6.15주간

주체90(2001)년

6.15Weekly 제18호 (10월 19~25일)



노작 - 일본 교도통신사 사장이 제기한 질문에 대하여

한국민족민주전선 대변인 담화 (10/13)

특집1 - 당국의 비상경계태세와 남북관계

특집2 - 미국과 일본의 전쟁책동

추천 논문 -

조미관계 10년을 통해 본 한(조선)반도의 통일정세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6.15주간 편집부

6.15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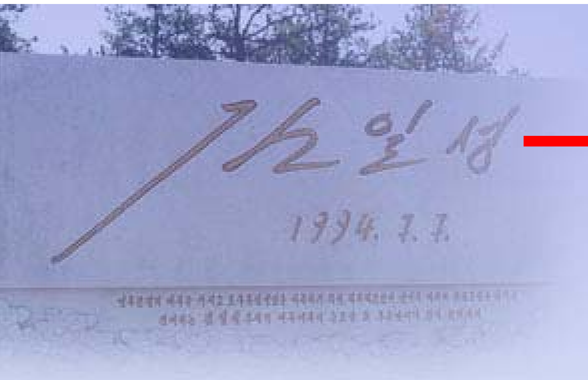
6.15WEEKLY

제18호 (10.19~25)



일본 교도통신사 사장이 제기한 질문에 대하여

주체80(1991)년 6월 4일



나는 사장 선생을 단장으로 하는 일본 교도통신사 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나는 당신들을 만나 면목을 익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일본의 벗들이 우리 나라를 많이 방문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두 나라 벗들 사이의 왕래가 많아지면 그것은 조일관계를 개선하고 두 나라 인민들 사이의 친선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게 될 것입니다.

가네마루 싱 선생이 나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온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가네마루 싱 선생이 건강하다니 대단히 기쁩니다. 나는 지난해에 우리 나라를 방문한 가네마루 싱 선생과 상봉하여 조일관계를 개선할 데 대한 문제를 협의하였으며 좋은 인상을 가지고 그와 헤어졌습니다. 나는 그와의 상봉을 지금도 기쁜 마음으로 회고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돌아가면 가네마루 싱 선생에게 나의 따뜻한 인사를 전하여 주기 바랍니다.

나는 이제부터 당신이 제기한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려고 합니다.

– 귀국의 정치 경제 분야의 과업과 전망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조선노동당과 공화국정부는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을 실현하는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습니다.

자주성은 사회적 인간의 생명이며 나라와 민족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사회주의정치의 근본목적은 대내적으로는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데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우리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철저히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정치에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여 전체 인민이 국가와 사회를 관리운영하는 데 주인답게 참가하며 모든 사회적 재부와 창조적 노동의 결과를 다같이 고르게 향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제국주의와 지배주의를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을 옹호하며 자주 평화 친선의 이념에 따라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치는 인민대중 자신의 정치이며 그것은 사람중심의 정치철학인 주체사상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과 국가의 모든 노선과 정책은 다 주체사상을 구현하고 있으며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인민대중이 그것을 자기의 생활적 요구로 받아들이고 창조적 열의와 헌신성을 발휘하여 적극 관철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주적인 정치는 자립적인 경제에 의하여 물질적으로 담보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경제건설에서 자립의 원칙을 관철하여 남에게 예속되거나 의존하지 않고 제발로 걸어나가는 경제, 우리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 놓았습니다. 우리 인민이 가장 어려운 조건과 환경속에서 자력갱생, 간고분투하여 건설하여 놓은 자립적민족경제는 우리 조국의 자주적 발전과 우리 인민의 행복한 사회주의생활을 위한 튼튼한 밑천으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수행하고 있는 제3차 7개년계획이 완수되면 우리 나라 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이 한층 강화되고 우리 인민의 물질문화생활 수준이 더욱 높아지게 될 것이며 우리 나라는 발전된 나라들의 수준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의 원칙에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키며 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승리에 대한 굳은 신심을 가지고 당과 정부의 두리에 하나로 굳게 뭉쳐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할 것입니다.

당신이 18년만에 우리 나라에 다시 와 보니 평양이 많이 변하였다고 하는데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 속담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건설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 18년 동안에 많은 변화가 일어난 것은 응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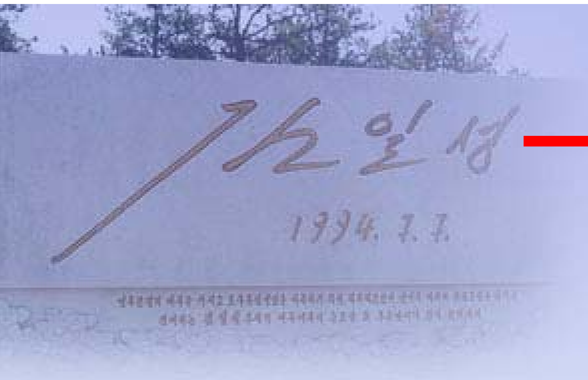
지금 우리 인민은 대건설행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양시에서는 5만 세대의 살림집 건설로 한창 들끓고 있습니다. 지금도 집이 없는 사람은 없지만 5만세대의 살림집을 새로 더 지으면 평양시민들이 더욱 현대적인 살림집에서 행복한 생활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제3차 7개년계획기간에 120–150만 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할 데 대한 목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목표를 실현하려면 매해 살림집을 한 20만 세대씩 건설하여야 합니다. 지금 온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 살림집도 많이 짓고 공장도 대대적으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민은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라는 구호를 들고 일심단결하여 당의 영도를 받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일조 두 나라 사이의 관계개선을 위하여 풀어야 할 문제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조선과 일본 사이의 관계를 개선하는 문제는 본질상 두 나라 사이의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두 나라 인민의 이익과 시대적 요구에 맞게 새로운 선린관계를 발전시키는 문제입니다.

두 나라 사이의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려면 무엇보다도 과거를 옳게 반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날 일본은 우리 나라를 침략한 나라이며 우리 나라는 일본의 침략을 받은 나라입니다. 일본이 그릇된 과거를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을 남을 위해서 보다도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일본은 과거를 반성하고 우리 나라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이로운가 아니면 지금과 같은 비정상적인 관



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이로운가 하는 것을 심사숙고하여야 합니다. 앞을 내다볼 줄 아는 일본의 정치인들은 조일 두 나라 사이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일본인민의 이익과 시대적 요구에 맞는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조일관계 개선을 위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으며 그 결과 조선노동당과 일본이 자유민주당, 일본사회당의 공동선언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조일 두 나라 사이의 관계를 개선하는 문제가 그 어떤 외부의 간섭이나 그릇된 정치적 동기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면 성과적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조일 두 나라가 다같이 자주적 입장에 튼튼히 서서 문제를 성실하게 협의해 나간다면 조일관계 정상화문제가 3당공동선언의 정신에 맞게 원만히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조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회담이 아직 큰 진전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데 물론 낯선 사람들끼리 마주 앉아 회담을 하는 조건에서 논쟁문제도 있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일관계를 정상화하는 문제는 두 나라 인민들의 공동의 염원이며 두 나라가 사이좋게 지내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인 만큼 회담에서는 이러한 염원과 목적에 부합되게 쌍방이 서로 좋은 말부터 하여야 할 것입니다. 회담에서 상대방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거나 기본문제와 관계없는 문제를 들고 나온다면 회담을 지연시키는 결과밖에 가져올 것이 없습니다. 이제 회담 쌍방이 면목이 깊어지면 서로 이해하고 좋은 말을 많이 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쌍방이 노력하여 우선 국교정상화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그 다음에 다른 문제들을 하나씩 협의해 나간다면 모든 문제를 다 원만히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가네마루 싱 선생과 다나베 마꼬도 선생이 조일관계의 개선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대하여 만족하게 생각합니다. 당신이 돌아가면 가네마루 싱 선생과 다나베 마꼬도 선생에게 나의 따뜻한 인사를 전하여 줄 것을 부탁합니다.

당신이 조일국교 정상화가 실현된 다음 내가 일본을 방문할 의향이 있는가고 물었는데 물론 있습니다. 일본인민들과 만나는 것이 왜 나쁘겠습니까. 나는 일본제국주의를 반대하였지 일본인민을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언제나 조선인민과 일본인민이 함께 손잡고 나아가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살고 있는 일본 여성들의 고향방문 문제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런 문제는 조일국교 정상화가 실현되면 자연히 해결되게 될 것입니다.

— 북남대화를 적극 추진하기 위한 방도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조국통일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근본입장과 원칙적인 방도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북과 남 사이에 대화를 진행하는 목적은 조국을 통일하려는 데 있는 것만큼 대화 쌍방이 다같이 조국을 통일하려는 입장과 자세를 가지고 공동으로 노력할 때에만 대화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지금 세계가 다 보고 있는 바와 같이 남조선 당국자들은 조국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의 진보적 인사들과 청년학생들, 광범한 인민들을 가혹하게 탄압하고 있으며 고의적으로 정세를 긴장시키고 군사적으로 우리를 위협함으로써 북남대화에 인위적인 장애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민족앞에서 대화의 명분이 설 수없으며 그러한 대화는 좋은 결실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북남 사이의 대화를 진전시키기 위하여 우리가 남측에 요구한 것은 첫째로 방북인사들을 석방하며, 둘째로 북남고위급 회담이 진행되는 기간만이라도 ≪팀 스피리트≫합동군사훈련을 중지하며, 셋째로 유엔에 단일의석으로 들어가는 문제를 북과 남이 협의하여 해결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측은 이 세 가지 문제를 다 거절하였습니다. 남측은 북남고위급 회담에서 북과 남 사이에 불가침선언을 채택할 데 대한 문제를 한사코 반대하고 화해와 협력에 관한 기본관계 합의서를 채택할 데 대해서만 고집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요구도 받아들여 불가침에 관한 선언과 기본관계 합의서를 하나의 문건으로 채택하자고 주장하였으나 남측은 그렇게 하는 것도 반대하였습니다. 속에 품은 칼을 내놓지 않고 화해와 협력에 관한 기본관계 합의서나 채택하여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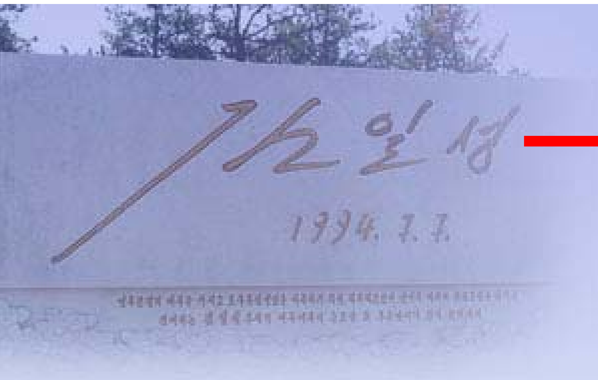
우리는 북남 사이의 회담을 파탄시킬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는 회담을 계속하자는 것입니다. 문제는 남측에 달려 있습니다. 남조선 당국자들이 조국통일을 방해하는 행동을 그만두고 남조선의 광범한 통일역량과 보조를 맞추어 대화에 임한다면 북과 남 사이의 대화가 활발히 추진되어 성과를 거두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조선의 통일문제와 동서독일의 통일문제 사이에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문제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여 본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동서독일이 통일을 실현한 데 대하여 반대하지 않습니다.

미국 대통령 부시는 베를린장벽이 허물어진데 대해서는 환성을 올렸으나 조선의 북과 남을 갈라놓고 있는 콘크리트장벽에 대해서는 그런 장벽이 있다는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조선 당국자들도 콘크리트장벽을 위장하여 숨겨놓고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조선의 분열을 그대로 지속시키자는 것입니다.

군사분계선 남쪽에 콘크리트장벽이 있다는 것은 숨길래야 숨길 수 없습니다. 지난해에 조선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국제연락위원회의 발기에 따라 세



계 여러 나라의 저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콘크리트장벽 국제조사단이 우리 나라에 와서 콘크리트장벽을 촬영하여 세계에 공개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본과 구라파의 여러 나라들에서는 미국의 압력이 두려워 이에 대하여 널리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미국 사람들의 말이라면 겁이 나서 벌벌 떠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아시아 나라인 일본이 자주적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일본이 자주적으로 나아가면 아시아의 번영과 평화를 보장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올가을에 진행되는 유엔총회에서의 유엔가입 문제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평화와 정의를 수호할 사명을 지닌 유엔의 권위를 존중하고 있으며 자주독립 국가인 우리 나라가 유엔에 들어가는 것을 응당한 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가 유엔에 들어가는 문제는 우리 민족지상의 과제인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문제와 직접 관련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에 대하여 신중히 고려하여 왔으며 조선의 유엔가입 문제를 북과 남 사이의 협상을 통하여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데 유리하게 해결할 것을 주장하여 왔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원칙적인 입장과 정당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조선 당국자들은 시종일관 이와 상반되는 분열주의적인 입장을 고집하여 왔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북과 남이 단일의석으로 유엔에 들어가는 문제가 실현될 수 없게 된 조건에서 우리는 그에 대응한 조치로서 유엔에 들어가기로 하였습니다. 북과 남이 하나의 민족으로서 국제무대에 공동으로 나가면 온 민족을 대표하는 하나의 국가로서 유엔 의석을 차지할 것을 지향하는 우리의 원칙적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 정부급의 조미관계 개선 전망과 평화협정 체결 문제, 핵문제, 아시아의 평화문제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조선과 미국 두 나라 사이의 비정상적인 관계는 전적으로 미국의 부당한 대조선정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 정세의 변화과정을 놓고 볼 때 이제는 미국이 대조선정책을 재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미국이 진심으로 우리 나라의 통일을 지지하고 조선반도의 평화를 보장하는 길로 나가려 한다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 데 대한 우리의 제의를 받아들이지 못할 조건이 없을 것이며 조미 두 나라 사이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서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미국이 남조선에 수많은 핵무기를 전개해 놓고 우리 공화국을 위협하는 핵전쟁연습을 번번히 벌이면서 그 누구에 대한 핵사찰 문제를 들고나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며 이것은 미국이 아직도 힘의 입장에 서서 자기 의사를 남에게 강요하는 낡은 습성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하여 줍니다.

오늘에 와서 힘의 입장에 서서 자기 의사를 남에게 강요하려고 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방식입니다. 내가 국제의회동맹 제 85차 총회에서 연설한 바와 같이 세계에 큰 나라와 작은 나라는 있어도 높은 나라와 낮은 나라가 따로 있을 수 없으며 발전된 민족과 덜 발전된 민족은 있어도 지배하는 민족과 지배받는 민족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핵무기가 없으며 우리는 핵무기를 생산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핵사찰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지금 남조선에는 1.000여 개의 핵무기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핵사찰을 하려면 핵무기가 없는 우리에 대해서만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핵무기가 있는 남조선에 대해서도 같이 하여야 합니다.

조선반도를 비핵지대 평화지대로 만들려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우리는 이미 오래 전에 조선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지역을 비핵지대 평화지대로 만들데 대하여 일본사회당과 합의하고 공동선언을 발표하였습니다.

지금 세계언론계가 우리에 대한 핵사찰 문제에 대해서만 떠들고 남조선에 있는 핵무기에 대해서는 떠들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공정하지 못한 것입니다. 당신들을 포함하여 언론계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공정하고 여론을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 안에서도 남조선에 있는 핵무기를 철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가네마루 싱 선생이 미국을 방문하여 조선과 미국 사이의 관계를 개선하는데서 다리의 역할을 하겠다고 한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나는 그가 조미관계에서 걸린 문제를 우선적으로 풀어야 조일관계 문제도 순조롭게 해결할 수 있다는 의도에서 우리에 대한 동정심을 가지고 그런 착상을 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네마루 싱 선생은 훌륭한 정치가입니다.

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 것은 아시아 인민들의 공동의 과제입니다. 아시아 인민들은 굳게 단결하고 긴밀히 협조하여 이 지역에서 다른 나라의 침략적 군사기지와 침략군대를 철거시키고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책동을 정지 파탄시키기 위하여 투쟁함으로써 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공화국정부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아시아 여러 나라들과의 친선협조 관계를 적극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나는 이 기회에 교도통신사가 조일 두 나라 인민들 사이의 친선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좋은 일을 많이 할 것을 희망하면서 앞으로 당신의 사업에서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기와 더불어

4. 합작은 불가능한가?

세기와 더불어 제2권 제6장 시련의 해



…

나는 행길에 나서자 김일룡에게 대렬을 맡기고 차광수와 함께 량세봉과의 담판계획을 다시금 상세하게 토의하였다. 나의 모든 사색과 상념은 미구에 맞다들게 될 독립군과의 사업에 집중되고 있었다. 물레방아간집 로인이 생각도 걱정도 일도 말도 다 적게 하고 지어 웃음까지 적게 웃는 것이 섭생의 본도라고 귀에 못박히게 강조하였지만 나는 도저히 그처럼 구속이 심한 섭생법을 지켜낼 수가 없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과정이고 사람들이 아직 한번도 걸어보지 못한 전인미답의 길을 개척해가는 독특한 창조과정이었으므로 누구보다도 사색을 많이 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의논을 많이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가장 관심한 것은 반일인민유격대와의 교섭에서 량세봉이 어떤 태도로 나오겠는가 하는 것이었다. 이 교섭의 결과에 대하여 차광수는 처음부터 미심쩍은 태도를 취하였지만 나는 시종일관 락관적인 예측을 하였다.

통화시가의 전경이 눈앞에 나타나는 순간 내 머리에는 량세봉에 대한 유쾌한 일화가 불쑥 떠올랐다. 그것은 아버지가 병환에 계실 때 뜻을 같이 나눈 동지들을 한 사람한 사람 회상하면서 나와어머니에게 여담으로 들려준 일화였다.

3.1운동전야에 량사령의 향촌에서는 빈농민들을 망라한 계가 중심이 되어 밭을 논으로 푸는 개답공사를 벌이었다. 량사령의 집도 이 계에 망라되어있었다. 소출을 많이 내는데서는 논이 밭보다 훨씬 더 생산적이라는 것을 상식으로 알고 있던 그는 이 개답공사를 적극 환영하였다. 그런데 계의 상층을 차지하고 있던 로장파들이 논농사가 파악이 없다는 구실을 내걸고 개답공사를 완강하게 반대해나섰다. 로장파와 소장파사이에는 봄씨붙임을 앞두고 련일 계가 생긴이래 처음 보는 아귀다툼이 벌어졌다.

소장파 젊은이들은 당나귀발통 같은 로장파 늙은이들의 고집을 도저히 휘여낼 수 없었다. 계에서는 그해에도 파종기가 오자 젊은이들이 논으로 풀지 못해 안달아하는 밭에 조와 보리를 심었다. 늙은이들은 계의 농사가 젊은것들에게 롱락당하지 않고 예전대로 순조롭게 되어가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면서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소장파의 우두머리었던 양세봉은 자기의 주장을 관철할 기회를 노리었다. 모내기철이 되어 사방에서 개구리가 울던 어느 밤 소를 끌고 들에 나간 그는 조와 보리 싹이 한창 푸름푸름 자라는 여러 뙈기의 밭을 쥐도 새도 모르게 다 논으로 갈아버리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조와 보리가 무럭무럭 자라던 밭이 하루밤사



세기와 더불어

이에 논으로 변하여 물까지 출렁거리는 것을 본 늙은이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여 ≪생벼락을 맞을놈, 계의 농사는 네가 다 망쳐놓았구나. 금년 농사를 망치면 거지가 될줄 알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조나 보리를 심으면 아홉섬밖에 나지 않던 그 돼기밭에서 량세봉은 그해 가을 스물넉섬의 소출을 냈다.

계와 늙은이들은 깜짝 놀라서 ≪그저 세봉이가 하여튼 난놈은 난놈이웨다.≫**하고 혀를 찼다**. 그후부터 량사령의 향촌과 그 린근마을에서는 논농사를 하는 집들이 대폭적을 늘어나기 시작했다. 계를 쥐락펴락하던 상투쟁이령감들도 량세봉의 말이라면 고분고분 다 들었다.

통화를 지척에 둔 로상에서 이런 일화가 내 머리에 떠오른 것은 무엇때문이였을까. 아마도 그것은 량사령과의 담판이 성공적으로 끝날것이라는 자기의 예상을 합리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내자신이 사색을 집중하였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량사령은 3.1운동전야에 고향(철산)을 떠나 남만의 흥경현으로 들어갔다. 우리 아버지가 량세봉을 맨 처음으로 만난곳이 바로 이 흥경땅이었다.

그 당시 그는 통의부에서 겸무관으로 활동하였다. 정의부가 나온 다음에는 중대장으로 임명되어 일약 오동진사령의 총애를 받는 중견간부가 되었다. 그의 중대주둔지가 바로 무송이였다. 그래서 나도 량세봉을 만날 수 있었다.

우리가 팔도구에서 무송으로 이사한지 얼마 안되어 량세봉은 다시 흥경현을 소환되어 가고 그대신 장철호가 그의 후임으로 무송에 왔다. 3부의 통합으로 국민부가 태어났을 때 독립군의 지도간부들은 성품이 바르고 실행력이 강하며 민중의 촉망이 높은 량세봉에게 군통수권을 맡기였다. 량세봉은 군부에서 뿐만 아니라 3부의 원로중신들이 모인 조선혁명당안에서도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량사령은 늘 자기와 김형직은 결의 형제라고 하면서 나를 친구의 자식으로 극진하게 사랑해주엇다. 오동진, 손정도, 장철호, 리웅, 김사헌, 현묵관과 함께 길림에서 나를 경제적으로 잘 후원해준 사람이 바로 량세봉이었다.

왕청문사건이 있은 후 국민부상층에 대한 우리의 감정이 몹시 나빠지고 또 그 반동화된 단체의 군부수뇌인 량세봉과도 오래동안 상면의 기회를 가지지 못하였지만 나는 나에 대한 량사령의 사랑과 믿음이 변치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이 모든 것은 어느것이나 다 인간 량세봉, 애국자 량사령에 대한 호감을 주는 회상들이었다. 우리의 합작활동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질수 있는 그런 과거에 대하여서는 구태여 추억하지도 않았다. 나는 될수록 우리의 담판전망을 락관적으로 조명해줄 수 있는 그런것들만을 회고하려고 애썼다. 그것은 담판의 전도를 어둡게 할 수 있는 불리한 증거들로 자기자신을 심리적으로 학대하지 않으려는 방어본능의 심리작용이었는지도 모른다.

통화를 비롯한 동변도의 20개 현은 모두 동변도 진수사 우지산의 관할하에 있었다. 그는 한때 장작림으로부터 제30군 군장으로 임명받은바도 있는 장령이었으나 1930년 6월의 대도회의 반란진압에서 솜씨를 발휘하지 못하여 장학량의 신용을 잃었다. 우지산은 동변도 주요지점들에 1개 려단 규모의 성방위군을 배치하고 이 일대의 최고통치자로서 군림하였는데 9.18사변후에는 동변도 보안위원회를 조직하고 그 사령이 되었으며 관동군 수뇌들과 련계를 가지면서 봉천성의 괴뢰정권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다.

관동군은 우지산의 협력을 담보로 이 지구에 대병력을 투입하지 안호 독립수비대와 만주국군, 경찰에 이 일대의 치안유지를 맡기었다. 관동군의 대부분 력량은 당시 북만에 쏠리고 있었다.

이런 기세를 타고 당취오의 료녕민중자위군이 량세봉휘하의 조선혁명군 부대와 함께 통화현서을 포위하였다. 오끼쯔 요시로주임을 비롯한 일본령사관 통화분관의 일본인 직원들과 가족들은 모두 이 포위속에서 오도가도 못하고 구조를 기다리게 되었다.

관동군 사령부는 통화현성이 포위되어 현지의 일본인들이 위기에 처해있다는 보고를 받았으나 모든 병력이 북만일대에 총출동중이었으므로 다만 100명 정도의 경찰관들을 구원대로 파견하고 우지산군의 방조를 기다렸다. 우지산군은 두 대로 나뉘여서 북쪽과 봉성 방면에서부터 량, 당의 련합군을 압박하였다.

관동군에서는 이다가끼참모장을 내세워 ≪통화에 있는 일본인 여러분, 봉천에서 급히 지원부대가 래일아침 도착하므로 잠시 완강히 견지하여 주십시오.≫**하는 방송을 하게 하였다**.

이처럼 9.18사변후 국제련맹사단의 만주파견과 때를 같이 하여 봉천성일대의 반만항일군은 도처에서 일본침략군대와 만주괴뢰군대를 위협하였다. 이런 때여서 통화현성을 장악하고 있는 조선혁명군과 자위군의 사기는 매우 높았다.

반일인민유격대가 통화현성에 입성한 것은 6월 29일 저녁이었다.

독립군들은 시내곳곳에 ≪반일인민유격대를 환영한다!≫,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자**!≫, ≪**조선을 독립시키자**!≫**등의 구호를** 써붙이고 우리 일행을 성대하게 환영하면서 우리를 맞이하였다. 량세봉은 반일인민유격대의 통화입성을 독립운동으로 확대발전시키는데서 하나의 전환적계기로 삼으려고 했던 것 같다.

안도에서 온 우리 일행은 즉시에 두패로 나뉘여 류본초가 데리고 온 구국군병사득은 자위군사령부 대표의 안내를 받아 중국사람들의 집으로 가고 내가 인솔하고 있는 반일인민유격대원들은 조선사람들이 사는 집들에 분숙하였다.

독립군대원들은 반일인민유격대원들의 숙소에 안내한 후에도 돌아가지 않고 우리와 함께 어울려 시간을 보냈다. 우리 부대에 대한 그들의 반영이 예상외로 대단히 좋았다. 그들은 안도에서 유격대가 온다는 련락을 받고 날창이나 화승대를 멘 촌바우들을 상상했었는데 만나고보니 멀쑥한 신사군대라고 하면서 부러움을 감추지 못하였다.

그날밤 나는 량세봉의 집을 방문하였다.

량사령은 나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나는 먼저 량사령부부의 안부를 묻고 어머니가 보내는 안사를 전해주었다.

≪**어머니가 안도에 가신 다음에도 선생님이야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너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량사령선생이 친구들과 함께 장례를 치르어주고 너를 화성의숙에도 추천해보냈는데 그 은공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였습니다.≫

량사령은 그 말을 듣자 사양의 뜻으로 손을 가로 흔들었다.

≪나하구 자네 아버지야 의형제간인데 은공이구 뭐구 할게 있나. 성주 아버지한테서 받아온 편달을 생각하면 오히려 그 신세야말로 백골난망이라고 할 수 있지. 자네 어머니는 좀 어떤가? 안도에 이사한 다음 속탈로 고생을 많이 한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네**, 병이 퍼그나 깊어진 것 같습니다. 요새는 일하는 날보다 누워계시는 날이 더 많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이처럼 범상한 대화로부터 시작되었다.

나는 통화시내에 들어설 때 받은 인상을 피력했다.

≪사령님의 부하들이 수백명이나 거리에 떨쳐나와 박수를 쳐주면서 환영을 해줄 때 우리는 모두가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었습니다. 독립군의 얼굴색이 밝은 것을 보니 우리의 마음도 가벼웠습니다.≫

≪**우리 부하들이 싸움은 변변히 하지 못해도 손님대접만을** 소홀히 하지 않네.≫

≪**너무 겸손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안도를 떠나기전에 사령

세기와 더불어

님의 부대가 당취오의 료녕민중자위군과 합세하여 통화현성을 포위하고 손쉽게 차지하였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건 뭐 그리 자랑할 전과가 못돼**. 자위군이 수만명이나 되는 데 성시 하나도 공략하지 못하면야 무슨 명분으로 밥을 먹겠나.≫

량세봉은 이렇게 말하면서도 통화현성포위전의 전과정에 대하여 상세하게 이야기해주었다.

그날은 그런 정도로 대화를 나누고 집에서 하루밤 잤다. 나도 찾아온 사유를 설명하지 않았고 량사령도 그런 설명을 요구하지 않았다. 량세봉이 우리의 원정목적을 묻지 않는 것이 좀 불안스럽기도 하였지만 나는 나를 환대해주는 그의 진심에 넘치는 행동을 보고 담판이 잘되갈것이라는 당초의 확신을 더욱 두터이하였다.

우리는 다음날 아침식사후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야기의 꼭지를 뗀 것은 량사령이었다. 그가 그때 나에게 한 첫 말은 이런것이었다.

≪**대장도** 알다싶이 지금 만주땅은 벌둥지가 됐네. 숱한 벌들이 일본이라는 불청객을 쏘겠다고 독을 물고 일어났네. 당취오, 리춘윤, 서원원, 손수암, 왕봉각, 등철매, 왕동헌 이건 다 동변도의 벌들이구 동만과 북만에서는 또 얼마나 많은 벌들이 일어났나. 이런 때에 우리두 합세해서 잘 싸우면 이길수가 있다고 보는데 대장생각은 어떤가?≫

그가 한 말은 우리의 원정목적과도 일치하는 것이었다. 량사령이 스스로 합작에 대해서 모색하고 그것을 주동적으로 우리에게 제기한다는 것은 참으로 고맙고 다행한 일이었다.

나는 독립운동전반을 대국적 견지에서 부감하는 량사령의 높은 안목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그의 제의를 흔연히 받아들이였다.

≪**합세해서 싸우자는** 사령님의 말씀에는 저도 동감입니다. 저희들도 사실 이 문제를 의논해보려고 사령님을 찾아왔습니다. 조선의 무장부대들이 서로 합세하고 중국의 무장부대들도 서로 합세해서 조중 두 나라 애국자들고 인민들이 한덩어리가 되어 사우면 능히 일제를 타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량세봉은 그 말을 듣자 미소를 지었다.

≪**대장이 동감이라면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서로 진지하게 의논해보세**.≫

≪**그런데** 사령님, 시국은 단결을 요구하는데 우리 민족내부는 유감스럽게도 단결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의 내부도 단결이 안되고 민족주의자들이 내부도 단결이 안되고 또 민족주의자들과 공사주의자들 호상간에도 단결이 안되고 있으니 이렇게 해가지고서야 일본이라는 강적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건 다 좌익에 섰다는 층이 정치를 잘못하는 탓이야**. 대장도 좌익이라니 그런 물계는 잘 알겠지만 그들이 투쟁을 과격하게 내밀기 때문에 인심을 잃었단 말일세. 소작쟁의를 해서 농사군들을 폭군으로 만들구, 무슨 적색 5월이요 해가지고서는 지주를 처단하구 이렇게 하니까 중국사람들이 조선사람들을 소닭보듯이 하거든. 이건 순전히 공산주의자운동을 한다는 사람들의 실책이야.≫

그것은 공산주의자들이 조직해온 온갖 폭력에 염증을 느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말이었다. 나는 그가 로동자, 농민들을 적대시하고 지주나 자산가들을 동정하는데로부터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량세봉자신도 독립운동에 관여하기전까지는 지독한 령세농민으로 고생을 많이 해온 사람이었다. 그는 섣달그믐께부터 매번 지주의 빚독촉 때문에 지긋지긋하게 단련을 받아오군한 채무노예에 가까운 소작농이었으며 무시래기에 피쌀을 쑨 죽을 기아의 해들을 기적으로 돌파해온 빈농민의 후예였다.

나는 또한 그가 공산주의자들이 조직한 폭력투쟁을 비난하는 것은 공산주의리념 자체를 반대하기 때문도 아니며 또 그 반대의 리념이 자본주의사상을 옹호하기 때문도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그가 조소하고 비판하는 것은 일부 공산주의자들의 운동방식이나 투쟁방법이었지 공산주의리념 그자체는 아니었다. 그러나 방법에 대한 립장과 태도는 곧 리념에 대한 인식과 관점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었다. 초기공산주의자들이 대중운동을 지도하는데서 범한 좌경적오류는 유감스럽게도 새 사조를 동경하던 많은 사람들의 넋속에서 공산주의에 대한 애정을 추방하는 가슴아픈 결과를 빚어냈다. 나는 량세봉사령과의 담화를 통해서도 만주지방에서 공산주의기성세대가 범한 과오의 후과가 얼마나 막대한가 하는 것을 다시한번 새삼스럽게 절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일부 공산주의자들이 대중투쟁과정에 범한 좌경망동적 과오를 시인하였다. 그러면서도 대중투쟁일반을 민족의 단결을 파괴하는 해독행위로 묘사하는 량세봉의 편견에 대해서는 바로잡아주어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사령님의 말씀과 같이 조선공산당출신의 지도인물이 계급투쟁을 하는데서 지나친 탈선을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들의 좌경망동바람에 사실은 우리도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조선사람이 일본놈의 앞잡이라는 인식까지 낳게 한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사령님, 농민이 지주를 반대해서 들고일어나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령님도 농사를 많이 지어보아서 아시겠지만 가을에 가서 지주에게 차례지는 것이 얼마인데 농민들에게 차례지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죽도록 일해서 농사지은 것은 다 빼앗기고 입에 풀칠조차 하기 어려우니 농민들도 살아보겠다고 소작쟁의를 하는 것인데 그것을 덮어놓고 열닷냥금으로 다 나쁘다고 할 수야 없지 않습니까?≫

량사령은 내가 대중투쟁의 불가피성을 변론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아니면 그 변론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였는지 아무 응대도 하지 않았다.

그날 독립군부대에서는 반일인민유격대를 위한 환영회를 열었다. 독립군대원들속에는 류하와 흥경에 있을 때부터 우리가 파견한 ≪ㅌ·ㄷ≫**성원들과 정치공작원들에 의하여 공산주의적인 영향을 받는 청년들이 많았다**. 그런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조직한 환영회인것만큼 대단히 성대하고 열광적이였다. 그 환영회에서는 통화현성에 살고 있는 조선인들도 많이 참가하였다.

주인과 손님이 서로 차례를 엇바꾸어가면서 연설도 하고 노래도 불렀는데 환영회의 모든 공정에서 반일인민유격대와 독립군의 개성상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독립군대원들은 반일인민유격대들의 소탈하고 겸손하고 락관적인 품성과 절제가 있고 기백이 있고 질서정연한 대오의 면모에 부러움을 금치 못하였다. 그들이 제일 부러워한 것은 우리 대원들이 부르는 혁명가요와 38식 보총이었다.

어떤 독립군대원들은 ≪저런 끌끌한 군대가 소문도 없이 갑자기 어디서 생겨났는가.≫**고 하면서 어리둥절해하였고 어떤 독립군대원들은** ≪당신네와의 합작이 성사됐으면 좋겠다, 량사령과의 담판이 어떻게 되었는가?≫**고 묻기도 하였다**.

량사령은 그날 성주가 데리고 온 군대를 보자고 하면서 반일인민유격대를 방문하였다. 우리 대원들은 박수도 치고 거수경례를 붙이면서 정신이 번쩍 들게 환영을 잘하였다 그런데 그만 량사령이 반공연설을 하는 바람에 모처럼 마련되었던 환영분위기는 적대적분위기로 바뀌여졌다.

≪**조선독립을 성사시키려면 우선** 리적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공산당은 지금 리적행위를 하고 있다. 공장에 가서는



세기와 더불어

자본가와 로동자가 싸우게 하고 농촌에 가서는 지주와 농민들이 싸우게 하고 가정에서는 남녀평등이라 하여 안해와 남편이 싸우게 한다. 쩍하면 수탈이요, 타도요 하면서 동족간에 불화의 씨를 뿌리고 이민족사이에도 불신의 벽을 쌓는다.≫

우리 동무들은 모두 그의 연설을 듣고 분개하였다. 차광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량사령을 원망스럽게 쳐다보기만 하였다.

반공으로 일관된 량세봉의 연설에 대해서는 나도 못마땅하게 생각하였다. 나는 그가 왜 그런 연설을 하는지 리해할 수 없었다.

≪사령님, 우리는 그런 리적행위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조선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며 근로민중의 리익을 위해서 투쟁하는 사람들입니다. 독립하자면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로력자대중이 중심이 되어 투쟁해야지 그저 옛날식으로 몇몇 영웅호걸들의 힘만으로는 안됩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자 우리 동무들은 입을 모아 국민부를 공격하였다. 국민부가 왕청문에서 애국청년 여섯명을 리유없이 살해한 것은 리적행위가 아닌가, 민족앞에 그런 대죄를 짓고서도 국민부 집단은 감히 그 무슨 리적행위를 운운하면서 우리를 구박할 수 있는가고 떠들어댔다.

그러자 량사령은 노염을 타면서 우리들에게 욕을 막 퍼부었다.

그 노여움이 도수가 지나치고 례의에 어긋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나도 아연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그가 갑자기 리성을 잃고 우리를 질책하는 것이 어쩐지 이상하게 생각되었다. 우리의 몇마디의 말이 그의 자존심을 건드린것이나 아닌가, 아니면 합작을 달가와하지 않는 어떤 인물이 량사령에게 우리를 걸고 나쁜 말을 한 것이나 아닌가, 어쨌든 그가 노여움을 타는데는 무슨 곡절이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인내성있게 그를 설복하였다.

≪**선생님**, 그렇게 노하실것까지야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그건 좀 더 지내봐야 알게 아닙니까. 상대를 호상 리해하기 위해서는 사령님부대와 우리 유격대가 자주 접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에는 량사령도 별로 응대가 없었다.

나는 량사령의 반공자세가 요지부동이긴 하지만 꾸준히 설복하면 그를 돌려세울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한가닥의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숙소로 돌아왔다. 남을 믿지 않는 것을 일종의 배타주의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면 남을 믿는 것은 최선의 인도주의라고 할 수있다. 국토침탈의 비운을 당한 나라의 애국자들에게 있어서 최상의 인도주의란 민족단합을 이룩하는 것이며 단합된 민족의 력량으로 부모형제 동포자매들을 해방하는 것이라고 나는 간주하였다.

내가 태어난지 한달밖에 안되는 부대를 이끌고 천리밖에 있는 량세봉을 찾아온 것도 이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회담이 결렬된 그날 통화시내에 있는 우리의 조직원이 독립군이 반일인민유격대의 무장을 해제하기 위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정보를 보내주었다.

량사령이 그런 음모를 꾸민다는 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우리는 만일의 경우를 생각하여 통화에서 벼락같이 철수하였다. 그렇게 되어 류본초선생과도 갈라졌다.

반일합작의 절박한 과제를 수행하지도 못하고 독립군과의 충돌을 피해 통화를 떠난 반일인민유격대의 대오에는 음침한 기분이 떠돌고 있었다. 차광수는 대오의 뒤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우리가 가야 할 로정도가 그려진 목책을 들여다보며 덤덤히 발걸음을 옮기였다.

≪광수동무, 오늘은 왜 그렇게 성난 사람처럼 뿌루퉁해있소?≫

나는 그의 기분을 짐작하고 일부러 웃으면서 말을 걸었다.

차광수는 때를 만났다는 듯이 주머니에 목책을 집어넣으며 볼부은 소리를 했다.

≪**그럼 이런 판국에 웃어야 하겠소**? 솔직히 말해서 나는 울화가 치밀어 못견디겠소. 피를 흘리며 천리를 달려온 로고가 허사로 돌아가지 않았소.≫

≪**왜 참모장동무는 독립군과의 담판을 실패작으로만** 보려고 하오?≫

≪**그럼 실패작이 아니고 성공작이란 말이오**? 어쨌든 량사령은 합작이 아니라 무장해제음모를 꾸미지 않았소.≫

≪**참모장동무는 상층의 표정만 보았지 하층의 얼굴은 보지** 못했구만. 독립군대원들이 우리 유격대를 보고 얼마나 감탄하고 부러워하였소, 나는 무장해제설보다 그걸 더 중시하고싶단 말이요. 중요한 것은 상층의 표정이 아니라 하층의 태도요. 나는 거기서 합작의 장래를 보고 있소.≫

이렇게 말하는 내자신에게도 합작의 장래에 대한 확고한 승산이 있은 것은 아니었다. 나는 그저 예감을 말했을뿐이고 념원을 표시했을 뿐이다.

나도 사실 마음속으로 고민하고 있었다. 그때 나를 지배하고 있던 고민이란 국적이 서로 다른 량사령과 당취오의 합작도 성사되고 우리와 우사령과의 합작도 성사되는데 동족끼리인 반일인민유격대와 독립군과의 합작은 불가능한가 하는 것이었다.

독립군이 그때 진실로 무장해제음모를 꾸몄는가 안꾸몄는가 하는 것은 오래동안 미지수로 남아있었다. 나는 그 정보가 조직원들이 수집한 것이기 때문에 틀림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것이 근거 없는 정보이기를 바랬다. 설사 그것이 과학성이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나는 량사령을 탓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었다. 인간의 사상이란 한계가 있는 법이며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시간과 체험이 소모되는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때 통화를 떠나면서도 독립군과의 합작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기를 서두르지 않았다.

오히려 량사령이 언제인가는 꼭 우리의 진심을 리해하고 합작의 대문에 들어설 때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였다. 애국은 련공의 바다에로 가는 시내물과 같은 것이엇다.

여러해가 지난후 부대를 이끌고 조선인민혁명군에 병변하여 온 독립군의 사령 최윤구는 나와 함께 1932년의 여름을 감회깊이 회고하였다. 최사령의 말에 의하면 그때 반일인민유격대의 무장을 해제할 음모를 꾸민 것은 량사령이 아니라 량사령의 수하에 있는 참모였다는 것이다. 원래 량사령은 반일인민유격대와 합작을 성사시키려고 하였는데 그 참모가 막후에서 반공마이크를 들고 우리를 쏠았으며 나중에는 자기의 심복부하들과 함께 우리 부대의 무장을 해제할 모의까지 하였다는 것이었다.

최윤구의 그 말이 량세봉사령에 대한 우리의 의혹을 완전히 풀어주었다. 량사령이 우리와의 거래가 결렬된 것을 두고두고 가슴아프게 생각하였으며 그가 우리를 반대하는 무장해제음모에 전혀 관계하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나는 안도감을 느끼었다. 그가 비록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애국심앞에서 결백하고 의리앞에서 한점의 부끄러움도 없는 인간임을 다시한번 확증할 수 있게 된 것이 무엇보다도 나를 기쁘게 하였다. 자기가 훌륭하다고 본 인간이 수십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도 계속 훌륭한 인간으로 남아있으며 그 인간에 대한 깨끗한 인상에 때가 끼지 않고 얼룩이지지 않을 때 그보다 더 즐겁고 흐뭇한 일은 없다.

량사령의 과실은 간계를 보지 못한 것이었다. 그는 대바르고 강직한 사람이었지만 자기의 턱밑에서 참모가 우리와의 합작을 류산시키려고 작간질을 하는 것도 몰랐다. 그리고 자기가 공산주의자들을 악랄하게 헐뜯을 때에도 그의 본심을 꿰뚫어보지 못하였다. 량사령이 억울하게 최후를 마친 것도 적의 간계에 속아



세기와 더불어

넘어갔기 때문이였다.

량세봉사령이 반공으로부터 련공에로 방향전환을 한 것은 림종전이였다. 그 당시 독립군 내부는 매우 복잡하였다. 밀정들과 그에 매수된 앞잡이들의 해독행위가 우심해지는가 하면 부대를 꺼나가는 락오자들과 탈주자들이 속출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공산주의자들과의 합작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울려나왔다.

량사령도 공산주의자들을 더는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그는 조중 두나라 혁명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주세력으로 등장하여 천하를 쥐락펴락하는 새로운 격동기다 도래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공산주의에 대한 자기의 립장을 랭철하게 검토하였으며 그 과정에 련공까지 결심하게 되었다.

공산주의에 대한 몰리해와 본의아닌 적대감에 포로되어 우리와의 합작마저 결심하지 못했던 량사령이 련공에로 방향전환을 한 것은 그자신의 생애는 물론, 독립군의 투쟁력사에서 하나의 특기할 사변이었다. 그가 반공을 배격하고 련공의 길을 택하였다는 것은 양정우와의 공동행동을 한데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는 우리와도 합작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일본의 헌병, 경찰기관들과 특무조직들은 량세봉을 살해하고 독립군을 내부로부터 와해시키기 위한 음모를 계획적으로 추진시켰다. 이 음모에는 봉천헌병대도 가담하고 조선총독부 후꾸시마기관도 미행하였다.

량세봉을 살해하기 위한 작전기밀비로 10여만원의 돈이 투하되었다는 말도 있다. 박창해를 비롯한 흥경의 밀정들도 이 작전에 동원되었다.

적들은 량세봉사령을 유인할 계책을 꾸미던 끝에 평소부터 그와 관계를 가지고 독립군을 협조해주던 배신자 왕가를 파견하였다. 어느날 왕가는 량세봉을 찾아와 중국항일군이 독립군을 원조하기 위하여 사령을 만나려고 한다고 회유하였다. 량세봉은 중국항일군이 원조를 약속한다는 말에 그만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고 왕가를 따라 항일군이 기다리고 있다는 대립자로 향하였다

왕가는 로상에서 문득 권총을 뽑아들고 ≪나는 이전날의 왕명번이 아니다. 목숨이 아깝거든 일본군에 항복하라.≫**고 하였다.**

량사령이 왕가에게 벽력같은 호령질을 하면서 무기를 꺼내들자 수수밭에 매복하고 있던 적들은 선손을 써서 일제사격으로 그를 살해하였다. 최일천이 묘사한 것처럼 ≪계림(조선)의 벌은 받아도 왜왕의 작록은 먹지 않는다.≫**는 박제상의 충언이 그대로 사령의 혼이 되어** 원쑤들을 질겁케 하였던 것이다.

량사령이 만일 좀 더 일찌기 련공의길에 나섰더라면 그의 운명이 달리 될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없지 않다. 물론 그의 죽음을 애달파하는 한가닥의 미련일 것이다.

≪나는 죽어서 항일을 할 수 없지만 너희들을 살아서 김일성 사령을 찾아가라. 살길은 그 길밖에 없다!≫

량사령은 부하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기고 눈을 감았다. 그것은 유언이라기보다도 반공의 벽을 부시고 뛰쳐나온 한 애국자의 죽음으로 탄생된 련공선언이였다

이 선언을 따라 4년후에는 통화거리에서 우리를 환영하던 300여명의 독립군대원들이 최윤구사령을 앞세우고 조선인민혁명군에 합세하기 위해 백두산으로 찾아 왔다. 그때 나는 화전에서 그들을 만났다.

환인현의 조선사람들은 적들에게 량사령의 시체를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마을뒤산에 그의 유해를 평토장으로 안장하였다. 평토장이란 지평면과 무덤의 높이가 동일한 봉분을 쌓지않은 평평한 묘를 말한다.

일본군경들은 그 묘마저 파헤치고 고인의 머리를 베여 통화시가에 걸어놓았다.

량사령의 유가족들은 모진 학대를 받았다. 그들은 일만군경들의 박해에 시달리다 못해 량가성을 김가로 고치고 철도에서 천여리나 떨어진 환인현의 심산벽촌에 들어가 두더지 같은 생활을 하였다.

나는 해방후 남만에 일군들을 파견하여 량사령의 유가족들을 조국에 데려오게 하였다. 그 일군을 따라 사령의 부인(윤재순)과 아들딸, 사위가 조국으로 나왔다.

≪**아주머니**, 그동안 사령님을 잃고 일본군경들에게 내내 쫓겨사시느라고 고생이 많았겠습니다.≫

내가 첫인사로 이런 말을 하자 윤재순녀사는 눈물을 흘리면서 한참동안 어깨를 떨었다.

≪**장군님**, 장군님의 얼굴을 보니 쌓였던 설움이 다 녹아서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쫓겨다니는 거야 무슨 큰 고생이겠습니까. 장군님께서 왜놈들을 쫓아내시느라고 고생이 막심하셨겠습니다.≫

≪싸움을 하느라고 바삐 보내다보니 소식 한번 전하지 못해 죄송스러웠습니다.≫

≪**장군님**, 오히려 저희들이 죄송스럽습니다. 우리는 그 산중에서도 장군님의 소식을 다 들었습니다. 나는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장군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이국의 원혼이 된 령감을 마음속으로 원망하군 했습니다.≫

≪**그렇지만** 량사령은 마지막 힘을 다할 때까지 굴하지 않고 잘 싸웠습니다.≫

그후 우리는 량사령의 아들 량의준을 만경대혁명학원에서 공부시키었다.

4월 남북련석회의때 이 학원을 참관한 김구선생은 거기서 량사령의 아들을 만나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였다.

≪**나는 북조선당국이** 빨찌산투사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이런 학원에서 독립군사령의 자제까지 공부시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 학원에는** 빨찌산투사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로조, 농조활동을 하다가 희생된 애국자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싸우다 순국한 애국자라면 그가 어떤 계렬이든지 우리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자 김구는 감격하여 ≪이 학원은 민족단합의 상징입니다!≫**하고 말했다.**

학원을 졸업하고 공군부대의 정치일군이 된 량의준은 전후에 비행기사고로 사망하였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 몹시 락망하였다. 량사령의 혈통이 끊어진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다행히도 량의준은 아들 하나를 남기고 돌아갔다. 그 아이의 이름을 량철수라고 하였다. 그런데 철수는 소아마비의 후과로 불구의 몸이 되었다.

당에서는 그를 인민학교에도 보내고 고등중학교에도 보내고 대학에도 보내여 14년동안 건강한 아이들과 꼭같은 교육과정을 마치게 하였다. 그가 **김일성**종합대학을 다니는 4년동안 그의 동무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그를 밀차에 태워가지고 다니며 17층에 있는 교실까지 오르내리었다. 애국선렬들에 대한 우리의 2세, 3세들의 존경심은 불구의 유자녀에 대한 따뜻한 애정으로 표현되었다. 지금 량철수는 공화국의 당당한 현역작가가 되어 침상에서 문학작품을 써내고 있다.

량철수에게는 2남 1녀의 자녀들이 있다. 혈통을 따지면 량세봉의 증손자, 증손녀들이다. 추석명절이 오면 그 애들도 부모를 따라 애국렬사릉에 있는 증조할아버지의 묘를 찾아가군 한다. 그들은 아직 자기네 증조할아버지의 생애를 얽어매고 있던 고뇌와 불행이 무엇이였던지를 알지 못한다.

그 천진한 것들의 어깨우에 다시는 반공이냐 련공이냐 하는 무거운 짐이 실리지 않기를 바란다.

선군정치, 그 활력

박남순 / 구국전선, 주체90(2001)년 10월 21일



오늘 **김정일**장군님의 선군정치는 세계를 매혹시키고 있다.

세계정치사에 처음으로 출현한 선군정치를 두고 진보적 인류는 ≪완성된 사회주의정치방식≫, ≪**필승의 무기**≫, ≪**만능의 보검**≫**이라고 높이 평가하고 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선군정치는 본질에 있어서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며 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내세우고 그에 의거하여 사회주의위업전반을 밀고 나가는 정치방식이다.

군사선행은 선군정치의 핵심적인 사항이다.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간다는 것은 나라의 힘을 군사분야에 선차적으로 돌린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군사를 국사중의 제일국사로 내세우고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가장 큰 힘을 기울인다는 것이다.

그래서 인민군대를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끊임없이 강화해 나가며 사회주의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도 어디까지나 군사력을 튼튼히 다지는데 복종시켜 풀어나간다는 것이다.

군을 혁명의 주력군, 기둥으로 내세우고 군에 의거하여 사회주의위업전반을 밀고 나간다는 것은 사회주의위업을 수행하기 위한 역량가운데서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해서 혁명의 주체를 튼튼히 다져나가며 그를 앞장에 내세워 사회주의건설에서 돌파구를 열어나가고 군대를 본보기로 해서 온 사회를 혁명적으로 일신시켜 사회주의건설위업전반을 힘있게 밀고 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독창적인 선군정치는 그 과학성과 진리성으로 하여 그 활력이 날이 갈수록 더욱 힘있게 과시되고 있다.

그 활력은 우선 생사기로에 놓였던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지켜낸데서 찾아볼 수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정치를 시작하시던 시기 이북은 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살책동으로 해서 생사존망의 갈림길에 놓여 있었다.

사면팔방에서 달려드는 제국주의반동세력의 책동을 짓부수고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지켜낼 수 있은 것은 장군님께서 선군정치, 선군영도를 하셨기 때문이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선군정치로 군대를 백방으로 강화하고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하는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 끌어올리시었다.

인민군대가 필승불패의 무력으로 강화되고 핵폭탄으로도 깰 수 없는 가장 위력한 일심단결이 이룩된 이북은 제국주의자들에게 공포를 가져다 주었고 결국 그들이 흰기를 들게 만들었던 것이다.

그 활력은 또한 강성대국건설의 전환적 국면을 마련한 데서도 찾아볼 수 있다.

내외가 공인하는 것처럼 남들같으면 열백번도 더 넘어졌을 이북이 중첩되는 시련과 난관을 뚫고 산악같이 일떠서 강성대국건설에로 매진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정치가 있었기 때문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군대가 경제적 난국을 뚫고 나가기 위한 투쟁의 앞장에서 사회주의건설의 돌파구를 열어나가게 하시었으며 군인들 속에서 높이 발양되고 있는 혁명적 군인정신을 온 사회에 일반화하시어 혁명과 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도록 하시었다.

그리하여 강성대국건설의 도약대가 마련되고 강성부흥의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게 된 것이다.

그 활력은 또한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획기적 전환이 마련된 데서도 알 수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정치에 의해 역사상 처음으로 평양상봉이 이루어지고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었다. 이것은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역사적 전환점으로 되었다.

그 활력은 대외적으로 이북의 권위와 위신이 최상의 경지에 이른데서도 찾아볼 수 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정치로 이북에 대한 세인들의 지지와 연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이 이북과 외교관계를 맺게 되었다.

제반 사실들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독창적인 선군정치야말로 불패의 위력을 지닌 탁월한 정치방식임을 실증해 주고 있다.

한국민족민주전선 대변인 담화

지금 이땅에는 전군과 경찰에 비상경계강화령이 내려져 극도로 위험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

당국의 심상치 않은 이러한 처사로 하여 어렵게 마련되었던 제4차 이산가족방문단과 태권도시범단교환은 계획대로 이루어질수 없게 되었다.

모든 책임은 남북관계를 긴장격화에로 몰아가고 있는 현 당국에 있다.

사실 바깥에서 벌어지는 일을 구실로 집안 일을 망치려는 전시하의 삼엄한 비상경계태세를 갖출 그 어떤 근거도 명분도 없다.

현 당국이 정녕 안심치 않으면 다른 나라들과 같이 주요시설이나 특정대상들에 대한 반테러안전조치나 취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도 현 당국은 그 무슨 국가안전보장회의니 비상국무회의니 하는 것을 긴급소집해 안보태세강화를 역설하면서 이북군의 동향까지 걸고들며 전군의 대비태세, 출동태세강화령까지 내렸다.

세계가 공인하는 바와 같이 이북은 미국에 대한 테러사건이후 격화되는 국제정세속에서도 6.15공동선언이행을 위해 넓은 아량과 포옹력으로 애국애족의 입장에서 남북장관급회담을 재개하고 4차 이산가족상봉을 주동적으로 제기하며 민족문제해결에 성의있는 노력을 다해오고 있다.

이런 이북을 걸고 긴장을 고조시키며 대결분위기를 고취하여 눈앞에 둔 이산가족상봉까지 지연시킨 현 당국의 작태는 6.15공동선언이행에 대한 정면도전이며 반북대결의식이 골수에 찬 분열주의자들의 흉심을 드러낸 범죄행위이다.

현실은 현 당국이 입만 벌리면 이산가족의 아픔을 덜겠다느니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느니 하고 떠들고 있는 것이 한갖 미사여구에 불과한 거짓이며 진짜 속셈은 외세와 공조해 이북을 압살할 계책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실증해 주고 있다.

남북관계개선을 위해 언제 한번 성실한 태도를 보인 적이 없는 당국은 현 사태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 국민은 이미 남북관계에서 이북을 자극하는 현 당국의 불미스러운 행위들에 대해 경고와 충고를 한두번만 해오지 않았다. 그러나 현 당국은 민심과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여 국민의 요구와 염원을 무참히 짓밟으며 불순한 목적달성에 혈안이 되어 왔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이 아니라 대결과 분열, 전쟁만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차례질 것은 오직 민족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뿐이다.

현 당국은 전 국민의 의사와 요구를 똑바로 보고 좋게 발전하는 남북관계에 제동을 걸며 미국의 대북압살책동에 동조해 나서는 범죄행위를 일소하고 오늘의 비상경계태세를 즉각 해제하며 전쟁접경의 분위기를 화해와 평화의 분위기로 바꾸어 이산가족상봉실현의 조속한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 민중은 언제나 6.15공동선언이행에 대한 당국의 입장과 태도를 예의주시할 것이다.

우리 한민전은 전 국민과 함께 6.15공동선언실행을 위한 투쟁에 과감히 떨쳐나 남북의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고 민족의 숙원인 조국의 평화통일을 기필코 이룩하고야 말 것이다.

주체90(2001)년 10월 13일
서울

남측 비상경계조치와 관련 흩어진 가족, 친척방문단교환 연기 표명

조평통대변인

≪평양 10월 12일발 조선중앙통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북남 사이의 대화와 협상과 관련하여 12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담화는 다음과 같다.

지난 9월 북남상급회담이 재개된 이후 북남 사이에는 10월에만도 제6차 상급회담과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 금강산관광활성화를 위한 제2차 당국회담이 열게 되여 있다.

이와 함께 제4차 흩어진 가족, 친척방문단 교환과 태권도 시범단 서울 방문 날자도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대화와 래왕은 북남 사이에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기운을 한층 높이고 전반적인 북남관계를 더욱 진전시켜 나가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남조선에서는 외부에서 벌어지는 일에 턱을 대고 전군과 경찰에 ≪비상경계태세≫가 내려져 예측할 수 없는 삼엄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남조선에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니 ≪비상국무회의≫니 하는 것들을 통하여 ≪철통같은 안보태세≫를 력설 하고 있는가 하면 군부세력들은 우리 군대의 ≪동향을 놓고 대책을 론의≫하고 군의 대비태세, 출동태세를 더욱 강화할 것을 공언하고 있다.

중단 되였던 당국대화가 재개되고 북남관계가 좋게 발전하고 있는 때에 우리를 걸고 긴장을 고조시키며 대결분위기를 고취하고 있는 것은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갈데 대한 6.15북남공동선언 정신에 배치되며 대화상대방인 우리를 심히 자극하는 위험한 행위로 된다.

살벌한 경계태세하에 있는 분위기에서는 대화와 래왕이 순조롭게 진행 될 수 없으며 그 어떤 우발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담보도 없다.

대공포가 하늘을 겨누고 아차하면 미싸일이 발사 될 수 있는 ≪비상경계태세≫가 취해지고 있는 지역에 몇 명도 아닌 숱한 민간인들이 비행기를 타고 드나든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며 이런 속에서 자유로운 가족, 친척상봉이나 태권도 시범단의 출연이 잘 될 수 없다는 것은 불을 보 듯 명백하다.

우리측의 당사자들도 지금의 정세 하에서는 남조선에 마음놓고 가기가 어렵다고 하고 있다.

우리는 남조선에 조성된 사태를 고려하여 제4차 흩어진 가족, 친척방문단 교환과 우리측 태권도 시범단의 서울 파견을 부득이 당분간 미루지 않을 수 없게 되였다.

우리는 이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북남 사이에 대화와 협상을 발전시켜 나가려는 우리의 의지는 확고하며 일관하다.

이러한 립장으로부터 우리측은 10월중에 하기로 되여 있는 제6차 북남상급회담과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2차 북남당국회담은 제 날자에 그대로 진행할 것이다.

이 회담들의 개최 장소는 우리가 이미 제안한 바 있고 안전성이 담보되여 있는 금강산 지역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한다.

아울러 우리는 남조선에서 비상경계조치가 시급히 해제되고 좋은 분위기가 조성되여 흩어진 가족, 친척방문단과 태권도 시범단 교환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기대한다.

우리의 이러한 립장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북남관계, 통일문제를 순조롭게 풀어 나가려는 애국 애족의 일념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우리는 남측이 우리의 정당한 조치에 긍정적으로 대하리라고 확신한다.



북남3회담 금강산개최 제안

상급회담 북측대표단 단장 남측에 전화통지문

≪평양 10월 18일발 조선중앙통신≫ 북남상급회담 북측대표단 김령성단장이 18일 남측대표단 홍순영 수석대표에게 전화통지문을 보내였다.

통지문은 전문다음과 같다.

우리측은 최근 귀측이 외부에서 벌어 지는 일에 턱을 대고 쌍방합의실천리행에 새로운 장애를 조성하고 있는것과 관련하여 그 엄중성을 지적하고 사태수습을 위한 조치를 시급히 취할것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측은 우리측의 성의를 터무니없이 걸고 들면서 누구에게도 납득이 될 수 없는 부당한 주장만을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에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4차 흩어진 가족, 친척방문단교환과 태권도시범단의 서울파견을 불과 1주일 앞두고 귀측이 불의에 ≪북한군의 동향을 놓고 대책을 론의≫한 다음 전군과 경찰에 ≪비상경계조치≫를 취한것 자체가 6.15북남공동선언의 근본정신과 제5차 북남상급회담의 합의사항을 위반한 엄중한 행위로 됩니다.

특히 귀측이 ≪리산가족문제≫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인도적 방문을 앞둔 시기에 그 무슨 ≪전력공백≫을 메꾼다는 미명하에 미국으로부터 많은 공군무력까지 새로 끌어 들인 것은 분명히 우리측을 자극하는 적대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귀측의 이러한 처사는 동족을 의연히 주적으로 취급하고 있는데서 출발한 것입니다.

현실은 귀측이 인도주의문제해결에 관심이나 있는 듯이 말한다고 하여도 세상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일은 귀측이 저질러 놓고 언론까지 동원하여 사실을 전도하는 행위에 급급하고 있는 것도 현 사태의 책임에서 벗어나 보려는 대화상대방에 대한 신의 없는 행동으로 됩니다.

우리측은 귀측에 의하여 조성된 현 난국이 지체없이 타개되여야 한다고 인정합니다.

우리측은 이러한 립장으로부터 귀측이 6.15공동선언의 정신을 존중하고 우리와 화해하고 단합할 의지가 있다면 어떤 형태로든 대화 대방이 리해하고 납득할 수 있게 환경과 분위기부터 일신하는 조치를 시급히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귀측이 우리의 이 정당한 요구에 호응하여 나온다면 우리는 어느때라도 흩어진 가족, 친척방문단과 태권도시범단을 교환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확언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쌍방사이에 합의된 회담들도 개최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면한 금강산관광활성화를 위한 북남당국회담과 관련하여 귀측은 회담의제에도 부합되지 않는 장소문제를 내들고 회담의 개최를 저애하는 행동을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측은 북남사이의 대화를 어떻게 하나 진전시켜 나가려는 립장으로부터 오는 19일 금강산에서 하게 된 금강산관광활성화를 위한 당국회담이 제 날자에 열릴수 없게 된 조건에서 이 회담을 10월 25일에 가지며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회의는 11월 5일에, 제6차 북남상급회담은 예정대로 10월 28일에 모두 금강산에서 개최할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귀측이 우리의 합리적인 제의에 호응해 나올것을 기대합니다.



북한 조평통 서기국 보도 제811호

우리는 지난 12일 남조선에서 비상경계조치를 취한 것과 관련하여 우리의 원칙적 입장을 밝히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내보낸 데 이어 18일에는 북남 상급회담 우리측 단장의 명의로 남측에 전화통지문을 보냈다.

담화와 통지문에서는 최근 남측이 취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긴장조성 행위에 대해 엄중시하고 북남대화를 진전시켜 나갈 데 대한 적극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남측은 우리의 정당한 발기와 주장에 아무런 호응도 보이지않고 도리어 북남관계 발전과 민족의 단합을 위한 우리측의 성의에 비방중상으로 대하고 있다.

우리는 남측의 부당한 처사와 관련하여 근원적으로 문제를 해부하지 않을 수 없다.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 교환이 눈앞이 박두한 때에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에 턱을 대고 남조선에 미국으로부터 숱한 공격무력을 끌어들여 대결의 찬바람을 일으키며 아차하면 안전장치가 풀려 대포알이나 미사일이 날아오를 위험한 사태를 조성한 장본인이 다름아닌 남측이었다.

또한 대화 상대방인 우리를 걸고 전군과 경찰에 비상경계 조치까지 취하면서 민족 내부에 대결분위기를 조성한 책임도 바로 남측에 있는 것이다.

지금 온 민족은 이에 대해 항의의 목소리를 높이며 깊이 우려하고 있다. 쌍방 합의사항을 위반하고 6.15 공동선언의 근본정신에 배치되는 남측의 부당한 처사는 결국 동족인 우리를 주적으로 취급하는데 근원을 두고 있는 것이다.

한편 남조선의 일부에서는 북남 사이에 협력문제를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하는 소리들까지 내돌리고 있다.

민족공동의 이익을 위한 협력사업을 어느 일방이 선심이나 쓰는 일처럼 생각하는 것은 속이 바르지않은 처사로서 그것은 그들 자신의 도덕적 저열성을 보여줄 뿐이다.

더욱이 한나라당을 비롯한 극우 보수세력들이 우리가 취한 정당한 조치에 대해 그 무슨 합의위반이니 오만한 행패니 하면서 대화 상대방을 자극하는 험담을 늘어놓는가 하면 지어 야당의 총재라고 하는 사람까지 앞에 나서서 당치않게 그 무슨 정치적 악용이니 누구의 일방적 이익이니 하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늘어놓고 있는 데 대해 문제시하지 않을 수 없다.

온민족과 세계가 적극 지지 환영하고 그 생활력이 현실을 통해 확증되고 있는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을 감히 반대하면서 북남 사이의 모든 긍정적인 사태 발전을 음으로 양으로 비방중상하는데만 매달려온 한나라당이 과연 북남관계 문제에 끼어들 체면이 있는가 하고 묻지않을 수 없다.

온갖 험담으로 동족을 헐뜯고 대결을 고취하며 반통일을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결코 앞날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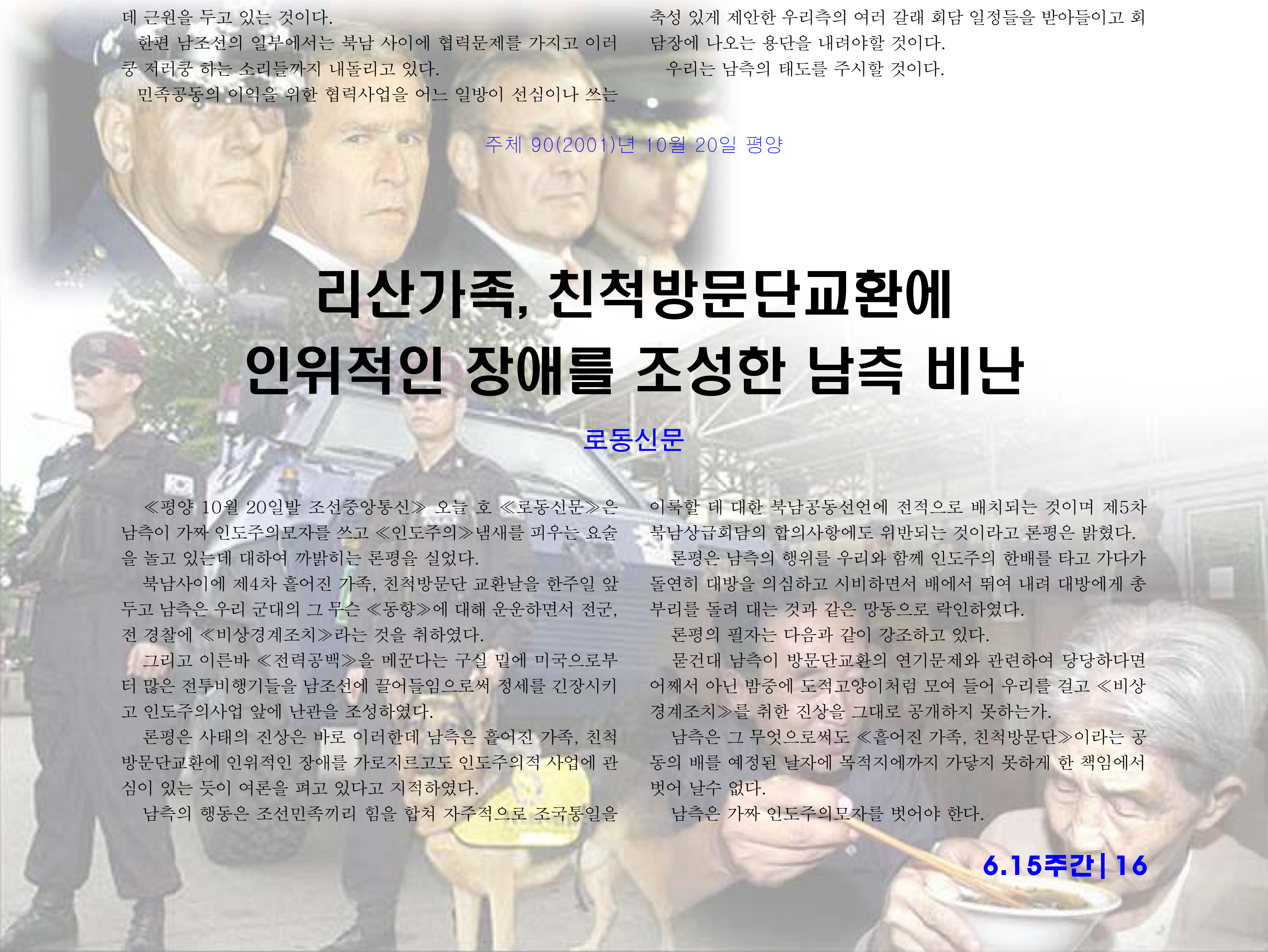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북남관계를 개선해 나가려는 우리의 의지는 확고부동하며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 교환사업을 비롯한 인도주의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려는 우리의 입장에도 변함이 없다.

우리측은 남측이 진실로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존중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바란다면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게 환경과 분위기부터 일신하는 조치를 시급히 취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함께 남측은 북남 사이의 대화를 발전시키려는 염원에서 신축성 있게 제안한 우리측의 여러 갈래 회담 일정들을 받아들이고 회담장에 나오는 용단을 내려야할 것이다.

우리는 남측의 태도를 주시할 것이다.

주체 90(2001)년 10월 20일 평양



리산가족, 친척방문단교환에 인위적인 장애를 조성한 남측 비난

로동신문

≪평양 10월 20일발 조선중앙통신≫ 오늘 호 ≪로동신문≫은 남측이 가짜 인도주의모자를 쓰고 ≪인도주의≫냄새를 피우는 요술을 놀고 있는데 대하여 까밝히는 론평을 실었다.

북남사이에 제4차 흩어진 가족, 친척방문단 교환날을 한주일 앞두고 남측은 우리 군대의 그 무슨 ≪동향≫에 대해 운운하면서 전군, 전 경찰에 ≪비상경계조치≫라는 것을 취하였다.

그리고 이른바 ≪전력공백≫을 메꾼다는 구실 밑에 미국으로부터 많은 전투비행기들을 남조선에 끌어들임으로써 정세를 긴장시키고 인도주의사업 앞에 난관을 조성하였다.

론평은 사태의 진상은 바로 이러한데 남측은 흩어진 가족, 친척방문단교환에 인위적인 장애를 가로지르고도 인도주의적 사업에 관심이 있는 듯이 여론을 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남측의 행동은 조선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조국통일을 이룩할 데 대한 북남공동선언에 전적으로 배치되는 것이며 제5차 북남상급회담의 합의사항에도 위반되는 것이라고 론평은 밝혔다.

론평은 남측의 행위를 우리와 함께 인도주의 한배를 타고 가다가 돌연히 대방을 의심하고 시비하면서 배에서 뛰여 내려 대방에게 총부리를 돌려 대는 것과 같은 망동으로 락인하였다.

론평의 필자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묻건대 남측이 방문단교환의 연기문제와 관련하여 당당하다면 어째서 아닌 밤중에 도적고양이처럼 모여 들어 우리를 걸고 ≪비상경계조치≫를 취한 진상을 그대로 공개하지 못하는가.

남측은 그 무엇으로써도 ≪흩어진 가족, 친척방문단≫이라는 공동의 배를 예정된 날자에 목적지에까지 가닿지 못하게 한 책임에서 벗어 날수 없다.

남측은 가짜 인도주의모자를 벗어야 한다.

환경과 조건이 보장된다면 어느때든지 방문단을 교환

조선적십자회 대변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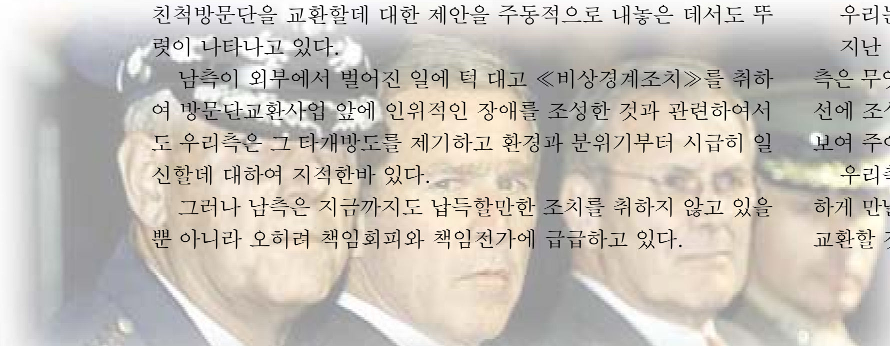
≪평양 10월 21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대변인은 방문단교환사업 앞에 나선 인위적인 장애를 타개할데 대한 우리측의 제의에 남측이 지금까지도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책임회피와 책임전가에 급급하고 있는것과 관련하여 21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담화는 다음과 같다.

나라의 분렬로 하여 겪고 있는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불행과 고통을 하루빨리 끝장내는 것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절박한 민족적 과제이다.

우리는 이러한 사명감으로부터 출발하여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이후에만도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불행과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해 합리적인 제안들을 거듭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하여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하였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초에 북 남사이에 3차에 걸치는 흩어진 가족, 친척방문단 교환이 진행되고 2차의 생사, 주소 확인과 서신교환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이 보여 준 것처럼 우리측은 인도적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이며 주동적인 립장을 취하였다.



우리측의 이러한 립장은 올해 추석을 계기로 제4차 흩어진 가족, 친척방문단을 교환할데 대한 제안을 주동적으로 내놓은 데서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남측이 외부에서 벌어진 일에 턱 대고 ≪비상경계조치≫를 취하여 방문단교환사업 앞에 인위적인 장애를 조성한 것과 관련하여서도 우리측은 그 타개방도를 제기하고 환경과 분위기부터 시급히 일신할데 대하여 지적한바 있다.

그러나 남측은 지금까지도 납득할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책임회피와 책임전가에 급급하고 있다.

이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흩어 진 가족, 친척들의 상봉을 발기하고 그를 하루속히 실현할 것을 제기해 온 우리측을 걸고 ≪비상경계조치≫를 취함으로써 상봉을 가로막은 당사자가 감히 무엇을 잘했다고 말할 처지나 되는가.

또한 외부로부터 숱한 공군무력을 끌어 들여 남조선 천지에 전쟁전야와 같은 삼엄한 분위기를 조성해 놓은 상태에서도 과연 인도적 문제에 대해 말할 체면이나 있는 것인가.

현실은 누가 인도적 문제에 진실로 관심이 있고 누가 그것을 방해하는가 하는 것을 웅변으로 실증해 주고 있다.

인도적 문제해결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전제로 하며 불신과 대결은 인도주의문제해결의 장애요인으로 된다.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우리 민족끼리 민족문제, 통일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는 때에 외부에서 벌어진 사태를 놓고 민족내부에 불신과 대결의 살벌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남측이 제 아무리 인도주의문제에 대해 말해도 그것을 믿을 사람은 없다.

말과 행동은 일치되여야 한다.

남측은 인도주의문제에 대해 말하기 전에 우선 자신의 진실성을 행동으로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기회를 이미 남측에 제공하였다고 간주한다.

지난 10월 18일부 우리측 전화통지문에서 밝혀 둔바와 같이 남측은 무엇보다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상봉이 실현될 수 있도록 남조선에 조성된 살벌한 환경과 분위기부터 일신하는 태도를 실천으로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측은 남조선에서 흩어 진 가족, 친척들이 혈육들을 마음 편하게 만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보장된다면 어느 때든지 방문단을 교환할 것이다,



남측은 대화에 성실하게 나와야 한다

로동신문

≪평양 10월 22일발 조선중앙통신≫ 오늘호 ≪로동신문≫은 금강산관광활성화를 위한 북남당국회담이 제 날자에 열리지 못하고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도 뒤로 미루지 않으면 안되게 된 것은 남측의 그릇된 태도에 있다고 하면서 우리측의 거듭되는 대화제의를 성실하게 받아들일 것을 남측에 요구하였다.

남측은 외부에서 벌어지는 사태에 빙자하여 그 누구의 ≪동향≫이요 ≪철통같은 안보태세≫요 하면서 전군과 전 경찰에 ≪비상경계조치≫를 취하고 남조선전역을 살벌한 ≪비상경계태세≫하에 밀어 넣었다.

특히 이른바 ≪전력공백≫을 메꾼다는 구실 밑에 외국으로부터 많은 전투비행기들을 끌어 들여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 북남관계를 극도로 악화시켰으며 군부의 호전분자들과 우익보수세력들은 ≪주적≫나발을 불어 대면서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을 모해압살할 야망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있다.

신문은 대화일방이 대방을 반대하여 대결의 광풍을 일으키는 속에서는 대화가 제대로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은 지난 시기의 북남대화들이 남긴 심각한 교훈이라고 지적하였다.

론평의 필자는 남측이 이 교훈을 망각하고 대화 앞에 계속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하는데 문제가 있으며 사태의 엄중성이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남측이 설악산관광을 의제로 하는 회담이 아니라 금강산관광활성화를 위한 회담을 굳이 금강산이 아닌 설악산에서 하자고 고집을 부리는 하나의 사실을 가지고도 남측이 대화에 얼마나 불성실한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남측은 심사숙고하여야 한다.

오늘의 북남대화는 결코 쉽게 마련된 대화가 아니다.

남측이 북남대화를 소중히 여기고 6.15공동선언을 함께 리행할 의사가 있다면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지 말고 우리측의 거듭되는 대화제의를 성실하게 받아 들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보복전쟁과 남한의 전력증강 사업에 반대를!

김태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장면 하나

10월 20일 오후 3시부터 ≪미국의 보복전쟁중단과 평화실현≫을 외치는 2,500명의 대오가 서울역을 가득 메운 채 집회가 개최되었다. 이날의 집회는 서울뿐만이 아니라 부산, 울산, 대구, 광주 등 전국 10여개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되었다. 이들은 9.11테러가 미국의 반인륜적 침략전쟁과 미국 중심의 패권정책에 근본적 원인이 있는 것이라며 즉각 보복전쟁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정부에 대해서도 아프간 파병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다. 아울러 반전평화를 바라는 일본의 시민, 민중단체들의 연대인사가 전해지기도 했다. 10월 21일, 국제 반전의 날을 맞이한 이 날의 집회는 그동안 베트남전쟁, 걸프전쟁 등의 각종 전쟁시에 거의 무풍지대로 남아있던 한국에 본격적인 반전 평화운동이 대중운동화한 날로 기록될 것이다.

장면 둘

지난 19일 성남 서울공항에서는 푸른 하늘아래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가족 단위로, 노인정과 유아원에서 단체로 관람을 온 시민들도 많았고 교사 인솔하에 참가한 초등학생들도 무척 많았다. 이들은 ≪한국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01≪약칭 서울 에어쇼 2001≫≫을 참관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었다. 오후 2시가 되자 본격적인 에어쇼 행사가 시작되었다. 각 나라의 전투기들이 큰 굉음을 내며 푸른 가을 하늘을 종횡으로 누비며 곡예 비행을 하며 가히 사람들이 넋을 잃고 구경할 정도의 절묘한 비행 기술을 선보였다.

이 날 넋을 잃은 사람들 사이에 플랭카드를 들고, 몸피켓을 한 채 유인물을 나누어주고 선전전을 전개하는 10여명의 이단자들이 있었다. 이들은 이 공중쇼가 기실은 최신 항공우주 선진기술을 선보인다는 주최측의 선전과 달리 미국과 러시아 등 외국 군수산업체들의 무기판매 장터에 불과하며, 이러한 화려한 에어쇼의 뒤편에서 수 조원에 이르는 우리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행사가 미래를 책임져갈 아이들에게 전쟁에 대한 환상과 무감각을 심어줄 것이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시민들에게 배포하였다.

단상≪斷想≫ 하나

얼핏 통일운동과 관련이 없는 이 두 가지 운동, 즉 군비증강 반대운동과 미국의 아프간 보복전쟁 반대운동을 열거한 이유는 이 두 가지 운동이 나로서는 통일운동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베트남과 이라크와 유고에서 전쟁과 폭격으로 죽어간 엄청난 민중의 비극은 우리나라의 분단과 전쟁으로 죽어간 이름없는 수백만의 민중들과 어떻게 다를 것인가? 그리고 또 지금 팔레스타인과 아프간에서 이스라엘과 미군의 폭격으로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민간인의 죽음은 6.25 전쟁에서 ≪노근리≫를 비롯한 미군의 학살로 죽어간 우리의 겨레와 또 어떻게 다를 것인가?

빈 라덴이 테러를 했다는 결정적 증거를 내놓지도 못하고 진상규명과 국제법적 관례에 따르지도 않은 채 단지 그가 아프간에 거주한다는 이유 한 가지만으로 아프간 전체를 공격하는 엄청난 ≪불량국가≫ 미국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인류에 대한 범죄이며,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은 이 사태를 빌미로 미사일방어망≪MD≫ 체제구축을 위한 명분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부시정권 이후 유지해온 대북 강경자세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이며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더욱 가로막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외치는 똑같은 논리로 미국의 보복전쟁 반대를 외쳐야 한다.

단상≪斷想≫ 둘

한반도의 냉전체제 고수와 군사적 대결을 고수하려는 가장 강력한 현실적 힘은 각국의 군수산업, 특히 미국의 군수산업이다. 윌리엄 하퉁 미국 무기거래연구센터 소장은 MD 구상의 배후에 군산복합체가 도사리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한다. 보잉, 록히드 마틴, 레이시온, TRW 등 4대 MD 계약업체들은 국무부 장비구매 및 연구개발 비용의 상당 부분을 통제하고 있고, 1999년 이런 목적을 위해 국방성이 할당한 자금의 4분의 1 이상≪약320억달러≫이 이들 업체에 넘어갔다고 주장한다.

지금 한국의 전력증강사업은 4조3천억원의 차세대 전투기 도입사업≪F-X≫, 2조1천억 규모의 차세대 공격용 헬기 사업, 2조4천억원대의 차기 대공미사일 사업 등이 핵심으로 조기경보기, 구축함 도입 등까지 합치면 무려 1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자금이 들어가게 된다. 여기에 미국과 유럽, 소련 등 세계의 무기상들이 모여들고 있으며 성남의 에어쇼는 이러한 무기상들의 첨단무기의 각축장으로서 선보여지고 있는 것이다.

이미 지난 2월 7일 미국의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이정빈 외무장관에게 미국의 F-15K를 차세대 전투기종으로 선정해 달라고 노골적으로 로비를 하였고 이번 APEC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은 햇볕정책에 대한 지지를 천명하는 대가로 미국의 F-15K를 구매할 것을 요청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심지어 미국은 유럽전투기를 구입할 경우 방공협정까지 파기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

필자는 어느 기종이 선택되는 것이 자주국방에 옳으냐 하는 일부 언론의 국수주의적 관점보다는 이러한 전력증강사업이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긴장완화에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본다. 차세대 전투기는 작전범위가 한반도를 넘어서서 1,000 km가 넘는 반경을 가지고 있으므로 누가 보더라도 방어력이 아닌 공격용으로 보여지며, 공격용 헬기 역시 산악이 많은 한국형 지형에 맞지 않고 대공미사일 역시 매우 공격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전력증강 사업은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화해와 평화 정세에 조응하지 않으며 남북한 군사 신뢰 구축과 군축 계획과는 매우 모순적일 수밖에 없다. 결국 최근 미국의 힘의 외교와 맞물려 북으로 하여금 더욱 의구심을 갖게 만들고 평화와 통일의 길은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더구나 경제 불황과 사회안전망의 미비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민중들의 삶의 생각할 때 군사력을 강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회복지에 대폭 투자함으로써 인간안보를 강화해야 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 한다. 더구나 그 방안이라는 것이 결국은 엄청난 국가예산을 들여서 우리 민족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무기상을 살찌우는 것임에랴......

지금은 창과 칼을 만들 때가 아니라 이를 녹여 쟁기와 보습을 만들 때인 것이다.

통일뉴스 2001-10-22

미 아프간 공습과 북한의 총대 강조

미국이 3주째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공습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정세하에서 북한이 총대정신과 군력(軍力)을 강조하며 내부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재일 친북단체인 조선인총연합≪총련≫의 기관지인 조선신보는 22일 인터넷판을 통해 미국의 아프간 공격은 ≪무모한 전쟁≫이라고 규정했다.

조선신보는 ≪테러에 대한 보복을 소리 높이 외치는 미국이지만 미국이야말로 테러의 왕초≫라고 비난했다. 총련 기관지의 이같은 보도는 미국의 아프간 공격에 대한 북한의 간접적 비난과 북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현재 미국으로부터 ≪테러지원국≫의 굴레를 쓰고 있는 북한은 그런 지위에서 벗어나고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유로 미국의 대테러 군사행동에 대한 입장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북한은 또 9.11 테러 참사에 대해 유감의 뜻과 반테러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테러근절을 명분으로 한 미국의 군사행동 자체를 반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의 군사행동이 장기화되면서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경색된 국제정세가 북한에 미칠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의 주시하고 있다.

조선신보가 미국의 아프간 공격을 두고,≪비록 우리 귀에 그 포성은 들리지 않지만 그 참화속에서 무고한 인민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 위험한 불티가 우리 곁에 날아 오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는가≫ 말한 점이 이런 지적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북한이 미국의 아프간 공격이 한반도에 미칠 부정적 여파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일본의 군사적 행동 범위 확대와 주한미군의 군사력 강화이다. 북한은 테러참사 이후 일본이 미국의 반테러 활동 지원을 명분으로 한 자위대법 개정, 자위대 파병 등을 ≪군국주의의 부활≫로 비난하고 있다.

노동신문은 미국이 아프간 공격으로 나타날 ≪전투력 공격≫을 이유로 남한에 공군전투력을 증강하는 등의 조치는 ≪조선반도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변함없는 지배야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놓은 것≫이라고 21일 주장했다.

이에 앞서 북한이 최근 이산가족상봉을 연기한 것도 남한에서 테러사태와 관련해 경계태세가 엄중해 분위기에 나쁘다는 점을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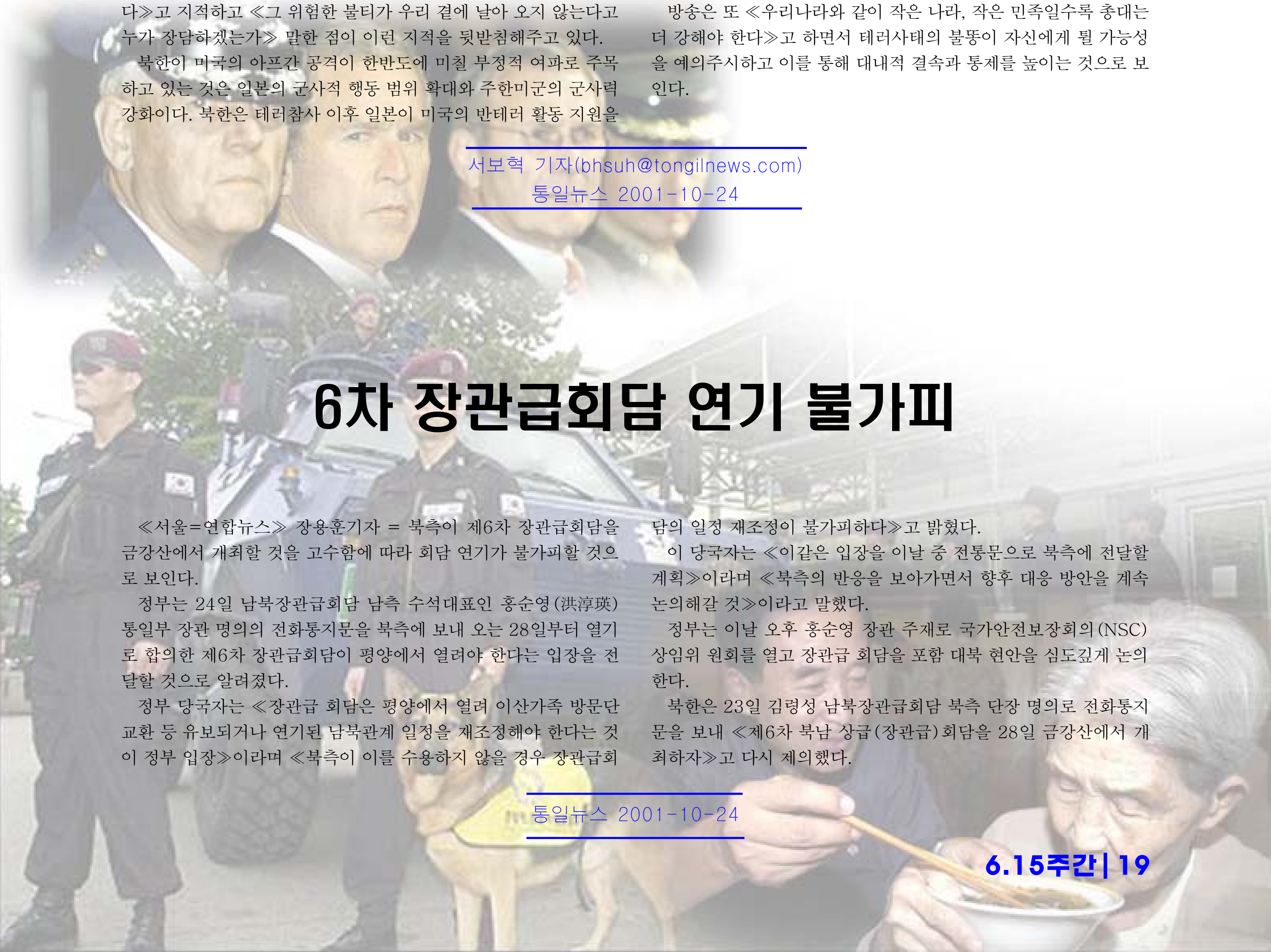
북한은 미국의 반테러 군사행동의 불똥이 언제, 어떻게 자신으로 향할지를 경계하고 있다. 향후 있을 북-미 회담에서 미국이 핵, 미사일, 재래식 병력 문제외에 테러문제를 의제로 추가할 경우 미국의 대북 압박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보다 앞서 현재 테러정국에서 미국이 북한-이라크, 혹은 북한-오사마 빈 라덴 커넥션을 제기할 경우를 가장 경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은 반테러 입장을 공식적으로 거듭 확인하면서 군력(軍力) 강화를 들고 나오고 있다.

군력 강화와 관련해 평양방송은 23일, ≪군력이 약하면 하루아침에 제국주의자들에게 먹히고 식민지 노예가 된다≫고 전제하고, ≪총대가 강해야 자주적 대를 튼튼히 세우고 민족의 존엄을 끝까지 지킬 수 있으며 나라의 부흥 발전을 이룩해 나갈 수 있다≫ 주장했다.

방송은 또 ≪우리나라와 같이 작은 나라, 작은 민족일수록 총대는 더 강해야 한다≫고 하면서 테러사태의 불똥이 자신에게 튈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이를 통해 대내적 결속과 통제를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

서보혁 기자(bhsuh@tongilnews.com)
통일뉴스 2001-10-24



6차 장관급회담 연기 불가피

≪서울=연합뉴스≫ 장용훈기자 = 북측이 제6차 장관급회담을 금강산에서 개최할 것을 고수함에 따라 회담 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4일 남북장관급회담 남측 수석대표인 홍순영(洪淳瑛) 통일부 장관 명의의 전화통지문을 북측에 보내 오는 28일부터 열기로 합의한 제6차 장관급회담이 평양에서 열려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장관급 회담은 평양에서 열려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등 유보되거나 연기된 남북관계 일정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며 ≪북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장관급회담의 일정 재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같은 입장을 이날 중 전통문으로 북측에 전달할 계획≫이라며 ≪북측의 반응을 보아가면서 향후 대응 방안을 계속 논의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홍순영 장관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원회를 열고 장관급 회담을 포함 대북 현안을 심도깊게 논의한다.

북한은 23일 김령성 남북장관급회담 북측 단장 명의로 전화통지문을 보내 ≪제6차 북남 상급(장관급)회담을 28일 금강산에서 개최하자≫고 다시 제의했다.

통일뉴스 2001-10-24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전쟁상

조선중앙통신

≪평양 10월 18일발 조선중앙통신≫ 미국이 주도하는 무력의 공격개시로 일어 난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보도들에 의하면 미국과 영국군은 전쟁 첫날부터 매일과 같이 수도 카불과 잘랄라바드, 칸다하르, 헤라트 등 아프가니스탄의 전역에 대한 집중적인 공습작전을 벌리고 있다.

여기에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주변지역 지상기지들에 은밀히 전개하였던 폭격기와 전투기 등 100여대의 군용기들 그리고 250여대의 함재기들과 40여척의 함선들을 포함한 4개의 항공모함전단을, 영국은 30여척의 함선과 2개의 해군륙전부대, 수십대의 전투기들을 투입하였다.

또한 방공호파괴 등에 쓰이는 레이자정밀유도폭탄과 대량살륙용알폭탄이 공습의 주요수단으로 되고 있다.

첫 며칠동안 미영군의 항공모함함재기들과 지상기지 폭격기들은 타리반군의 반항공무력과 비행장들, 연료 및 탄약창고들을 주되는 목표로 삼고 출격회수와 타격강도를 부단히 높이면서 련속 폭격을 가하였다.

미국대통령 부쉬는 주례라지오방송연설에서 미군이 타리반의 반항공체계를 파괴하고 제공권을 장악하였으며 따라서 공습의 제1단계목표가 달성된 조건에서 다음 단계의 군사작전에로 곧 이행한다는 것을 시사하였다.

이어 미국은 타리반의 지상군무력을 타격하는데로 공습의 초점을 돌리였다.

14일 미군용기들은 수도 카불에서 벗어 나 산간지대에로 이동하는 타리반의 포병무력과 중장갑무력 등에 집중공격을 가하였으며 타리반군지상무력이 집결되여 있는 칸다하르에 무려 7시간동안이나 폭격을 들이댔다.

15일에도 타리반군대의 집결처들과 방어시설들에 18～20차례에 걸쳐 맹공습을 하였다.

련속적인 공습으로 현재 아프가니스탄인들속에서 670여명의 사망자가 났으며 주로 평화적주민들이 희생물로 되고 있다고 타리반정부 국방상이 밝혔다.

11일에만도 잘랄라바드부근의 한 마을이 공습으로 완전히 페허로 되여 버렸는데 거기에서 160구의 시체가 발견되였으며 그 대다수는 녀성들과 어린이들이였다 한다.

또한 카불에서는 한 살림집이 미싸일에 맞아 10명의 한가족이 전원 무리죽음을 당하였으며 이에 앞서 카불주재 유엔지뢰해제사무소가 폭격을 받아 사무소직원 4명이 죽었다.

집중적인 공습작전에 이어 16일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지상작전을 개시하였다.

이날 새벽 미군특수부대가 타리반의 군사거점인 칸다하르시에 투하되였으며 도시의 남쪽에서 미군특수부대와 타리반군 제55사단사이에 치렬한 전투가 시작되였다.

외신들은 지상작전의 목적이 타리반정예부대들에 타격을 가하는것이라고 전하였다.

인디아신문 ≪힌두스탄 타임스≫는 미국이 우즈베끼스딴을 지상공격작전의 출발진지로, 파키스탄을 작전의 지원기지로 리용하기로 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이러한 군사적 움직임과 병행하여 미국은 심리전과 정보전을 맹렬히 벌리고 있다.

심리전에는 미제4심리작전그루빠, 미제193특수작전비행중대 등이 동원되고 있으며 미국의 소리방송이 미군과 협력하고 있다 한다.

또한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출판되는 신문인 ≪알 샤르끄 알 아우싸트≫는 미중앙정보국은 ≪도약≫이라는 암호를 단 정보작전을 본격적으로 실행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미중앙정보국 첩자들이 라덴의 위치를 알아 내기 위해 아프가니스탄과 그 이웃나라들에 ≪말 그대로 물밀듯이 들어 가고 있다≫고 밝혔다.

알려진데 의하면 미국은 라덴을 체포, 사살하는데 2,500만 딸라의 현상금을 내걸고 있다 한다.

또한 미행정부는 미국주도하의 군사적 공격으로 타리반 정권이 붕괴되는 경우 새 아프가니스탄정부를 구성하는데서 미국이 놀 수 있는 역할에 관한 전면적인 토의를 시작하였다고 미국신문 ≪뉴욕 타임스≫가 전하였다.

한편 아프가니스탄의 타리반 세력은 미국주도하의 군사적 공격을 무고한 주민들을 살륙하는 공개적인 테로행위로 규탄하면서 강하게 도전하고 있다.

타리반세력최고지도자 오마르는 사우디 아라비아의 한 잡지와의 회견에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을 반대하여 ≪죽을 때까지 싸워 승리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우리와 싸우고 있고 우리를 폭격하는 자들은 아프가니스탄사람들이 성전에 준비된 전투원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아프가니스탄땅은 이교도들의 무덤으로 될것이며 우리에게는 이를 위한 무기가 충분하다≫고 언명하였다.

영국주간지 ≪제인스 디펜스≫의 보도에 의하면 타리반군은 현재 650대의 땅크와 장갑차, 700기의 ≪스팅거≫미싸일, 수백문의 포, 250대의 각종 비행기들을 가지고 있으며 비록 장비는 대부분 낡은 재래식이지만 그것이면 전쟁을 10년간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한다.

미국 씨엔엔텔레비죤방송은 타리반세력이 미군의 지상작전에 대비하여 자기들보다 수적, 기술적으로 우세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무력과 직접 대결하지 않고 게릴라전의 전술에 의거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고 전하였다.



타리반대변인은 타리반전투원들이 이미 게릴라전에로 이행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런 가운데 타리반군과 북부동맹군사이에 치렬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

북부동맹군은 미국의 공습이 시작된 직후에 3개 방면에서 공격을 개시하여 고르주소재지와 바그람 공군기지 등 여러 요충지들을 장악하였다.

이에 반격하여 타리반군은 북부동맹군으로부터 바드기스주의 카디스를 탈환하였으며 15일에는 4시간동안의 치렬한 전투끝에 고르주소재지를 되찾았다.

16일 주요도시인 마자르 이 샤리프시에서는 타리반군과 북부동맹군사이에 시가전이 벌어 졌다.

현재도 타리반세력은 라덴을 똑똑한 증거가 없이 미국에 넘겨 줄수 없다고 완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타리반세력최고지도자 오마르는 성명에서 라덴을 미국에 넘겨 주는것을 다시금 배격하였으며 타리반대변인은 라덴이 자유롭게 반미성전을 벌릴수 있도록 그에 대한 모든 제한조치들을 철회한다고 하면서 ≪우리도 성전을 원하며 라덴도 그것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라덴은 이슬람교를 지키기 위해 떨쳐 나설것을 모든 이슬람교도들에게 호소하면서 미군병사를 산채로 잡아 오는 사람에게는 5만딸라의 상금을,미군복과 ≪m-16≫보총을 가져 오는 사람에게는 각각 3,000딸라, 1,500딸라의 상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한다.

라덴의 조직인 ≪알 카에다≫의 대변인은 성명을 발표하여 미국주도하의 군사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과 영국에 대한 새로운 비행기자폭공격을 벌리겠다고 경고하면서 ≪신의 뜻이라면 비행기폭풍은 가라앉지 않을 것≫이며 미국인들과 영국인들의 발밑에서 ≪땅이 불 탈것≫이라고 위협하였다.

지금 미국내에서는 고도의 긴장상태가 조성되고 있다 한다.

미련방수사국은 미국에 대한 새로운 공격이 있을수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였다고 하면서 ≪최고도경계태세≫에 어 갔으며 연안경비대도 삼엄한 경비진을 펴고 있다.

미국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정부는 필요한 경계태세를 취하고 있지만 미국본토에 대한 위협은 계속되고 있다≫고 하였으며 미국회 상원정보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공격이 있다면 대량살륙무기의 사용일 것이다≫라고 우려하였다.

이런 속에서 미국무성 청사 안에서 의심스러운 흰 분말이 들어 있는 소포꾸레미가 발견되는 사건이 2건이나 있었으며 14일까지 12명의 탄저균 감염자가 련이어 발생하여 그중 1명은 이미 죽었다고 한다.

15일 미국대통령 부쉬는 국회상원 민주당원내총무에게 보내진 편지에서도 탄저균이 발견되였다고 공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소리방송은 전국각지에서 탄저균소동이 일어 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일종의 치사성세균인 탄저균은 생물무기에 리용되는 경우 그 악성효률이 매우 높은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에스빠냐신문 ≪엘 빠이스≫에 의하면 지금 미국주민의 80프로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군사적 공격 후 미국에 대한 새로운 보복이 있을가봐 두려워하고 있다.

일본 ≪요미우리신붕≫ 등 외신들은 ≪미국은 제대로 발편잠을 잘 것 같지 못하다≫고 하면서 이러한 사태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날로 더욱 격화될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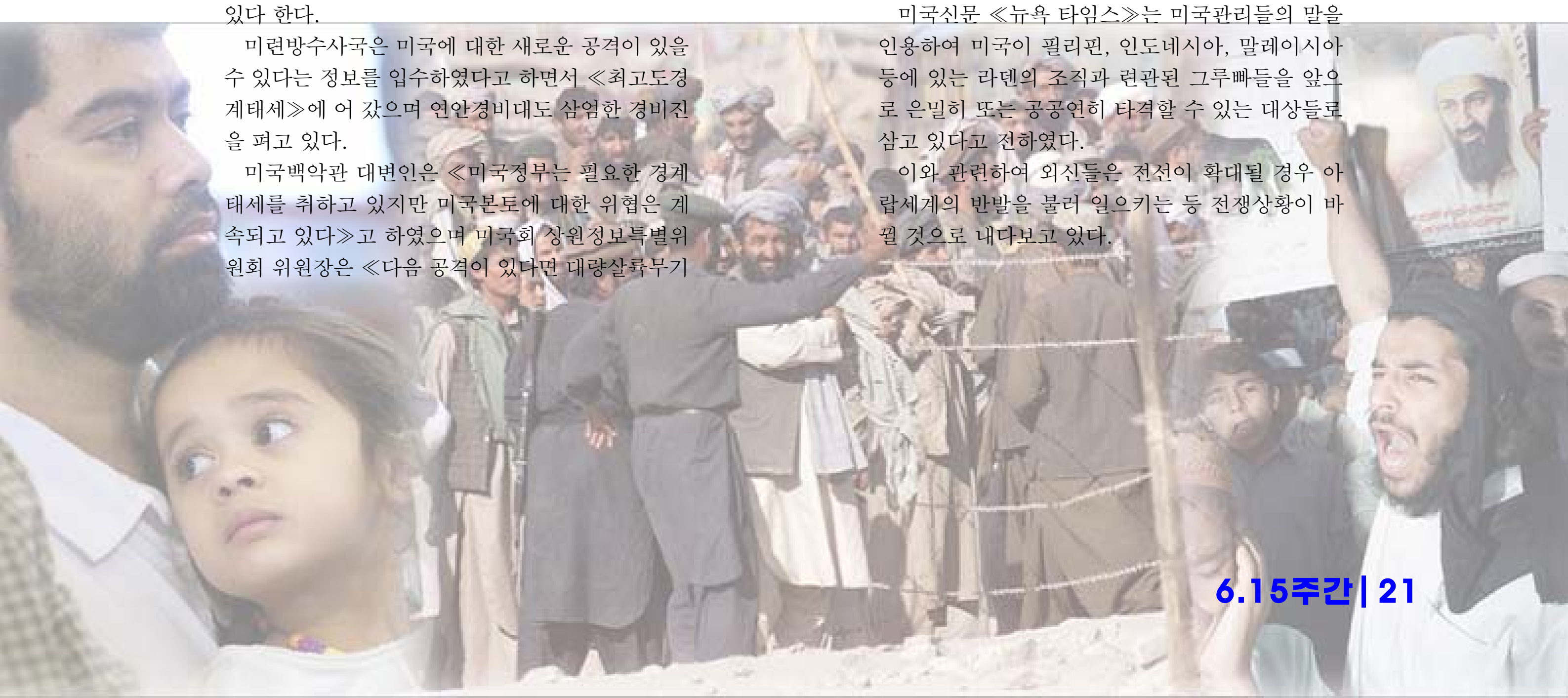
영국국방참모본부 의장은 아프가니스탄에 맵짠 겨울이 닥쳐오기 때문에 미국주도하의 군사적 깜빠니야의 도수가 ≪가까운 장래에 떨어질 것≫이라고 하면서 군사작전이 ≪겨울을 넘기고 래년 여름까지 갈 것으로 예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의 보복작전이 아프가니스탄이외의 다른 나라로 확대될 가능성이 표면화되고 있어 여론의 주의를 끌고 있다.

미국대통령 부쉬는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 미국에 대한 습격사건 배후자 수사에서 진전이 있다고 하면서 미국은 이라크와 수리아를 주시하고 있다고 공언하였다.

미국신문 ≪뉴욕 타임스≫는 미국관리들의 말을 인용하여 미국이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에 있는 라덴의 조직과 련관된 그루빠들을 앞으로 은밀히 또는 공공연히 타격할 수 있는 대상들로 삼고 있다고 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외신들은 전선이 확대될 경우 아랍세계의 반발을 불러 일으키는 등 전쟁상황이 바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무력증강책동은 로골적인 지배야망의 발로

민주조선

≪평양 10월 20일발 조선중앙통신≫ 오늘호 ≪민주조선≫은 미국이 남조선에 또다시 새로운 침략무력을 증강하고 있는데 대해 평하면서 이것은 미국이 조선반도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저들의 변함없는 지배야망을 또다시 로골적으로 드러내 놓은 것이라고 단죄하였다.

신문은 미국이 그 무슨 ≪한반도에서의 군사적공백≫을 운운하며 남조선에 전투기들을 비롯한 군사장비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은 그들의 반공화국 침략책동이 얼마나 위험한 단계에 이르렀는가를 잘 보여 주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론평의 필자는 실제로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무력증강책동은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 어떤 군사적 공백을 메꾸기위한 것이 아니라 조선반도에 대한 저들의 변함없는 지배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위험한 군사적 움직임의 하나이라고 다시금 까밝혔다.

론평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미국이 우리와의 군사적 대결을 한사코 고집해 나서는 조건에서 앞으로도 총대를 억세게 틀어쥐고 침략자들의 반공화국책동에 단호히 맞서나갈 것이다.

미국은 이에 대하여 똑똑히 알고 부질없는 짓에 매여달릴 것이 아니라 시급히 대조선정책 수정에 달라붙어야 한다.

남조선에서의 미군전력강화를 엄중시, 총대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

로동신문

≪평양 10월 21일발 조선중앙통신≫ ≪로동신문≫ 21일부는 미국의 남조선에서의 미공군전투력 증강조치를 엄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면서 새로운 복잡한 사태가 조성되고 있는 오늘의 정세는 우리로 하여금 고도의 경각성을 가지고 총대를 더욱 강화하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신문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보복작전을 둘러 싸고 매우 복잡하고 긴장하며 예측하기 어려운 속에서 미국이 그 무슨 ≪전투력공백≫을 구실로 남조선에 공중타격부대를 비롯한 군사장비들을 새로 전진배비한 것은 우리를 심히 자극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론평의 필자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미국이 그 무슨 ≪공백≫을 운운하며 남조선주둔 미군전력을 강화하는 것은 불순한 목적을 위해서이다.

우리는 미국에서의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모든 테로를 반대한다는 우리의 원칙적 립장을 거듭 밝히였다.

미국이 사태의 본질과 현실을 똑바로 대하지 않고 ≪전투력공백≫이라는 허구를 내들고 남조선에 전투무력을 추가배치하면서 긴장상태를 격화시키는 것은 조선반도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변함없는 지배야망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은 것이다.

미제의 ≪전력공백≫론과 미군무력 증강조치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우리는 그 어떤 사태에도 주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혁명진지를 백방으로 강화하며 혁명의 총대에 만탄창을 재우고 정세움직임을 예민하게 주시할것이다.



연석회의, 전국적으로 ≪범국민대회≫ 개최

≪보복전쟁 중단 · 평화실현!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미국의 보복전쟁 중단과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반대하는 집회가 서울, 부산, 광주를 비롯한 전국 10여개 지역에서 동시에 개최됐다.

≪보복전쟁 반대. 평화실현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연석회의≫는 20일 오후 3시 서울역 광장에서 ≪보복전쟁 중단 · 평화실현!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범국민대회≫를 갖고 미국의 보복전쟁 중단과 김대중 정부의 전쟁지원 반대, 그리고 미국의 신자유주의 경제침략반대를 주장했다.

오두희≪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범국민대회에서 문정현 신부는 ≪이 땅의 악의 근원인 미국의 패권정치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세계평화는 물론 한반도의 평화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미국의 오만한 패권주의를 깨부수자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민주노총의 허영구 위원장 직무대리는 정치연설에 나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생존권투쟁과 반전평화투쟁이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려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함께 힘차게 투쟁해 나가자고 호소했다.





이외에도 오종렬 민중연대 공동대표의 미국의 보복전쟁 중단과 정부의 전쟁지원 반대에 대한 정치연설, 그리고 일본의 평화운동가들이 보내온 연대의 말도 발표됐다.

특히 일본에서 보내온 연대사에 의하면 일본의 평화운동가들은 10월 21일을 국제 반전의 날로 정하고 보복전쟁 반대 뿐만 아니라 고이즈미 정권의 미국지원법 반대를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한국과 국제연대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이김현숙≪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공동대표의 결의문 낭독이 있었다.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세계의 평화애호민중들과 함께 미국의 보복전쟁중단, 한국 정부의 파병 철회, 세계화 저지를 위한 힘찬 투쟁을 결의했다.

범국민대회를 마친 시민사회단체 1,500여명의 참가자들은 서울역에서 명동성당까지 평화행진을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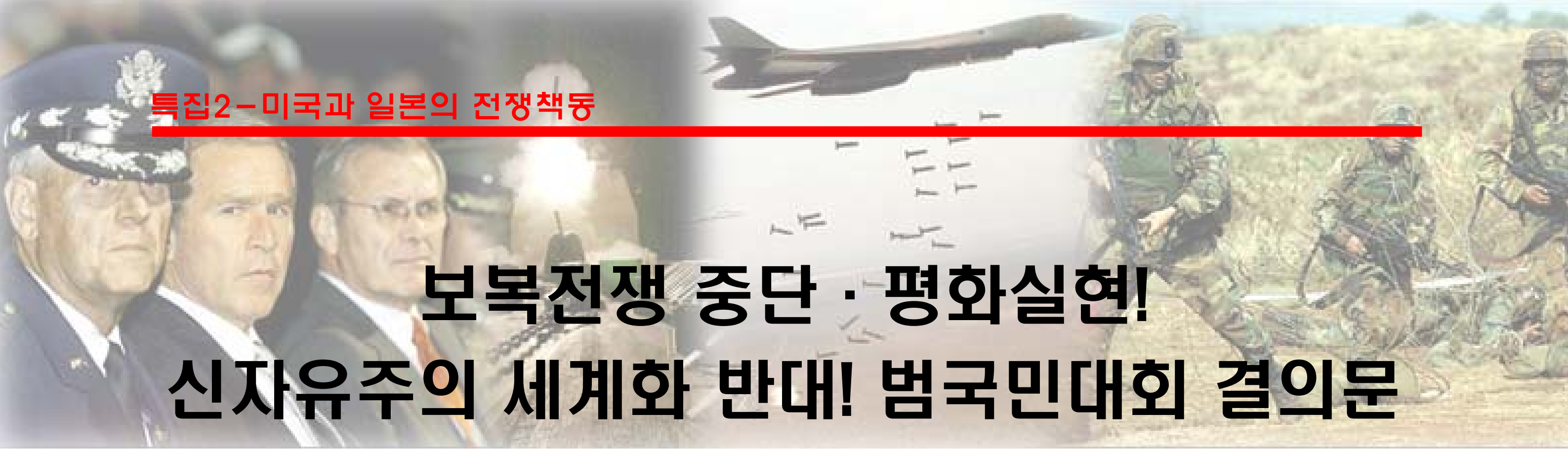
이로 인해 서울도심 일대가 참가자들의 ≪반전 반미≫의 함성과 다양한 홍보물들로 뒤덮였다.

명동까지 평화행진을 한 참가자들은 경찰의 저지로 정리집회 예정장소인 명동성당 들머리까지 행진하지 못하고 입구에서 김종일≪매향리 범대위≫ 집행위원장과 김주훈≪서총련≫ 의장의 기지반환과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연설을 끝으로 범국민대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범국민대회에 앞서 같은 장소에서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재구속 규탄 및 석방을 촉구하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결의대회가 있었다.



송정미 기자(jmsong@tongilnews.com)
통일뉴스 2001-10-20



보복전쟁 중단 · 평화실현!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범국민대회 결의문

세계는 지금, 미국의 보복전쟁과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전쟁과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보복전쟁을 감행함으로써 평화의 21세기를 갈망하던 인류의 염원을 무참히 짓밟았으며, 세계화라는 미명하에 선진자본주의 나라들의 노동자들과 제3세계 민중들에 대한 착취를 더없이 강화하고 있다.

특히 우리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 노력은 미국의 보복전쟁과 한반도에서의 무력 증강으로 수포로 돌아갈 중대한 위기에 놓여 있으며, 남한에 대한 미국의 경제침탈 강화는 민족 경제를 뿌리 채 흔들며 남한 민중에게 더 없는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이에 우리는 미국의 군사적, 경제적 패권주의에 맞서 결연히 투쟁해 나갈 것을 결의하고자 한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보복전쟁을 즉각 중단하라!

우리는 평화의 21세기를 갈망하던 인류의 염원을 저버리고 끝내 보복 전쟁을 감행한 미국 정부의 야만적 행위를 규탄하며 보복 전쟁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전세계 지성들이 한결같이 지적하고 있듯이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공격은 그 어떤 정당성도 없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미국은 빈 라덴의 혐의를 명백히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설령 미국 정부의 추정대로 빈 라덴이 테러의 배후자라고 하더라도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할 권한은 없는 것이다. 더욱이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과 민중들은 대미 테러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지 않는가!

그런데도 미국은 국제법적 근거도 결여한 채 온갖 군사력을 동원하여 아프가니스탄을 연일 초토화시키고 있다. 결국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공격은 ≪테러 응징≫이 아니라 수많은 아프가니스탄 민중들을 학살하는 국가적 테러이자 힘에 의한 패권 추구일 뿐이다.

미국은 2차 대전 이후에만도 수없이 많은 민간인들을 학살해 왔다. 한국, 베트남,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 유고 등에서 미국이 잔인하게 학살한 양민들은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다.

≪9 · 11 대미 테러 참사≫는 바로 미국의 이러한 반인륜적 침략 전쟁과 미국 중심의 패권정책에 근본원인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미국은 세계 인류를 상대로 자해해 온 자신의 죄과를 반성하기는커녕 도리어 잔인한 보복 전쟁으로 패권주의 강화를 꾀하고 있다.

미국이 진정 테러로부터 벗어나고자 한다면 즉각 보복전쟁을 중단하고 그 동안의 침략행위에 대한 반성과 패권 정책을 포기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파병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우리는 한국 정부의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파병 계획을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의 파병 계획은 아프가니스탄 민중에 대한 미국의 반인륜적인 학살 행위에, 세계 평화를 파괴하는 미국의 군사적 패권주의에 가담하는 것으로 된다.

미국의 보복 전쟁은 그 의도가 미국의 패권 추구에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전체 이슬람권과의 대결로 확산될 수밖에 없는 전쟁이다. 따라서 미국의 보복 전쟁을 지원하는 것은 세계 평화애호세력과 이슬람권 전체를 우리의 적으로 돌리는 것으로 된다.

한편 김대중 정부가 파병의 근거를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 찾고 있는 데 대해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시대착오적이며 반민족적인 조약으로 한시라도 빨리 폐기되어야 할 냉전 유물에 불과하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파병의 근거로 삼는 것은 김대중 정부가 한미간의 종속 관계를 얼마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말해 주고 있다.

이에 우리는 국가 이익은 뒷전으로 팽개친 채 민족 자존에 먹칠하는 파병을 즉각 철회할 것을 김대중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저지하고 민중생존권 쟁취하자!

IMF 경제위기 이후 세계화라는 미명하에 은행, 통신, 전력, 자동차 등 우리 경제의 중요한 기간산업들이 해외매각과 민영화로 외국자본에 헐값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대다수 노동자들은 정리해고와 감봉, 비정규직으로 내몰리며 최소한의 생존권조차 위협받고 있다. 또한 농민들은 물밀 듯이 들어오는 수입농산물로 농사 의욕을 상실한지 오래며, 도시빈민들은 마지막 생계수단인 거리에서 마저 쫓겨나고 있다.

이것이 세계화가 낳은 우리 민중의 현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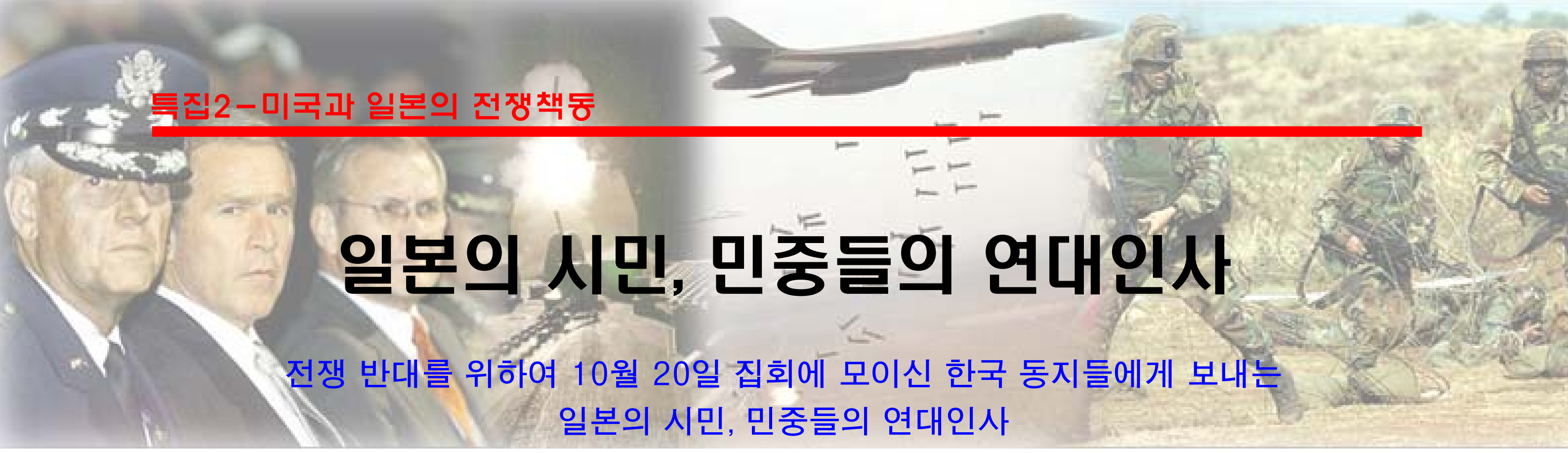
우리는 미국자본의 끝없는 이윤 추구의 산물인 세계화를 저지하고 민중의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민중의 생존권과 복지가 보장되는 민족자립경제를 건설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전개되고 있는 평화애호 민중들의 반미 · 반전, 반세계화 투쟁에 함께 하면서, 미국의 보복전쟁 중단, 한국 정부의 파병 철회, 세계화 저지를 위해 힘차게 투쟁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또한 우리는 무기강매 · MD강행 미국반대 투쟁, 한미 · 한일투자협정,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 반대 투쟁, 대북적대정책 · 내정간섭 저지 투쟁, 양민학살 진상규명 · 사죄배상 투쟁, 매향리 미군국제폭격장 폐쇄와 미군기지 전면반환 투쟁, 소파협정 전면재개정 투쟁, 일본 재무장화 반대 투쟁도 함께 힘을 모아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01년 10월 20일
보복전쟁 중단 · 평화실현!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범국민대회 참가자 일동



일본의 시민, 민중들의 연대인사

전쟁 반대를 위하여 10월 20일 집회에 모이신 한국 동지들에게 보내는 일본의 시민, 민중들의 연대인사

≪테러≫보복을 빌미로 시작된 미국과 영국군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반대하여 일제히 반전행동에 일어선 한국의 벗들에게 우리 일본의 시민, 민중들이 국경을 너머 뜨거운 연대 인사를 보냅니다. 우리도 내일, 10월 21일에 일본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 반전행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10.21 반전행동은 북쪽 혹가이도, 남쪽 오키나와 등 전국 31 곳에서 계획되고 있습니다.

≪1≫

9월 11일 미국의 테러사건은 5천명을 넘는 희생자와 엄청난 부상자가 생긴 대참사였습니다. 우리는 희생자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고 부상자의 회복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테러사건에 대한 조치는 부시가 추진하는 ≪보복전쟁≫이 아니라, 국제법과 국제관례에 근거하여 진상규명과 그 원인이 밝혀져야 됩니다. 미 당국자들조차 이번 사건을 빈.라덴씨들이 일으켰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거주한다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아프가니스탄 전역을 공격한다는 것은 세상 도리에 전혀 맞지 않는 일입니다. 이는 미국이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행세하기 위해 세계패권을 장악하려는 의사 표시 이외의 그 아무 것도 아닙니다.

≪2≫

생각해 보면,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 전쟁으로 세계각지에서 희생된 피해자가 그 얼마나 많습니까. 이라크에서, 유고에서, 베트남에서 그리고 한반도에서, 미군 폭격과 미사일 공격으로 엄청난 민중들이 희생되어 왔습니다. 특히 한반도에서는 6.25 전쟁 때에 ≪노근리≫를 비롯한 미군의 양민학살이 민중들의 한으로 맺혔습니다. 미국이 조종하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티나 민중들에 대한 무차별 살육은 그 곳 민중들의 증오를 더욱더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포와 분노가 뉴욕이나 워싱턴 사람들의 공포와 분노와 어떻게 다를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아프간 사람들 머리 위에 미군과 영국군의 폭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략요점 집중공격≫이라고 하지만 수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우리 일한 민중들은 지금이야말로 손을 굳게 잡고 아시아와 전세계 민중들과 함께 반전평화를 외쳐 가야 할 것입니다. 미군은 아프간 공격을 즉시 중단하라!

≪3≫

아울러 우리는 일본 고이즈미정권이 아프간 공격을 ≪전면지원≫해 나서고 ≪후방지원≫ 명목 하에 자위대 함선이나 항공기, 병력을 파병하려는 새로운 법을 제정하려는데 반대하여 투쟁하고 있습니다. 고이즈미 정권이 하는 짓은 과거 일본이 아시아 침략을 반성하고 전쟁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한 일본의 평화헌법 마저 내던지고 일본이 ≪참전국≫으로 변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고이즈미총리는 15일에 한국을 방문하였으나 왜곡역사교과서를 검정, 통과시켜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강행하면서 말뿐인 ≪사죄와 반성≫으로 슬쩍 넘기면서 자위대 해외파병을 한국정부에게 용인 받으려는 참으로 파렴치한 행동을 감행했습니다.

양심적 일본 시민, 민중들은 과거 일본이 한반도의 침략, 식민지 지배와 아시아 침략전쟁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기초로 한반도 남북분단 일본책임도 인정하고 한반도 평화, 통일을 바라면서 진정한 화해, 평화, 우호의 21세기를 만들어 가기 위해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전쟁반대, 평화실현을 위해 이 자리에 모이신 한국의 동지들에게 내일 일본 전국동시다발 반전행동에 나설 우리의 뜨거운 연대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함께 투쟁합시다!



2001년 10월 20일
테러도 보복전쟁도 반대! 시민긴급행동≪도쿄≫
대표연락처: 일본소비자연맹, 허용치 말자! 헌법개악 시민연락회, 시민광장
≪연대문 작성, 번역: 일한민중연대전국네트워크≫



≪보복전쟁 지지하는 한국정부 더 문제≫

미국의 보복전쟁에 대한 전주시민 생각 알아보기

≪미국의 옳지못한 전쟁을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이번 집회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명창권≪대우상용차노동조합 정책실장≫씨는 ≪미국이 이번 테러의 근본원인이 무엇인지 자기반성은 하지 않고 단순히 무력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에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교육대학교에 다니는 하영화≪미술교육과. 00학번≫씨는 ≪서명운동도 하면서 미국의 보복전쟁 반대집회에 참여하고자 왔다≫며 ≪교육투쟁을 하면서 집회가 있으면 더 관심이 가고 내 생각과 같다면 지금처럼 참여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의 전쟁은 경제위기의 타게책으로 쓰이는 것 같다≫며 미국의 이익에 의한 아프칸 민중들의 피해를 우려했다.

≪아프칸 민중들은 내전에 의해 그동안 많이 죽었는데도 또 전쟁이 일어나 민중들이 탄압받고 죽어가는 것을 참을 수 없다≫며 우석대학교에 다니는 이주철≪생명자원과학부 97학번≫씨는 말했다. 또 이번 전북 도민대회를 참여한 개정병원직원 전수희씨는 ≪보복전쟁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며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또다른 피해만이 있을 뿐이다≫라고 말하며 미국의 보복전쟁을 반대했다.



지나가다 대회를 지켜 본 시민 소옥순≪45≫씨는 ≪처음 미국이 전쟁을 선포했을때는 탈레반 정권만 피해를 보는 줄알았다≫며 ≪하지만 현지 민중이 피해가 큰 것을 알고나니 미국의 보복전쟁이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중학생이라서 잘 모른다≫고 말문을 연 박은지≪전주 효문여중 3학년≫씨는 ≪미국의 보복전쟁이라고 하는데, 그건 전쟁이 아니다≫며 ≪일방적인 미국의 공격일뿐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세계평화를 외치는 미국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보인 것같다≫며 ≪이번 기회에 아랍쪽의 반미세력을 없애려 한다≫고 말했다. 게다가 김대중대통령이 미국을 지지하는 성명을 낸 것에 대해 ≪김대중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받은 것이 맞냐≫며 불쾌함을 지우지 못했다.

정부의 미국지지 성명에 관해 시민들의 분노는 정점에 달해 있었다. ≪정부에 실망했다. 미국을 우방이라고 하는 것은 나쁘지 않으나 주체성없이 끌려 다니는 것으로 보인다≫는 하영화씨와 전수희씨, ≪아프칸 민중의 피해를 알면서 우리 정부가 협조하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소옥순씨.

집회를 지키던 경찰 한 사람은 ≪우리나라가 약하기 때문에 소신껏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으며 명창권씨는 ≪그 근본원인을 한국정부가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며 ≪현실을 극복하려는 노력은 없고 기존 세력에 의존하려는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분명 미국에 일어난 테러는 비인간적이고 참옥한 비극이다. 하지만 그 비극을 또 다시 이어가려는 미국의 보복전쟁. 이를 반대하는 세계 민중의 외침을 듣고 미국 스스로 자신들이 걸어온 길을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전주교대신문사 기자 jnuepress@hanmail.net
2001-10-21 ⓒ 2001 유뉴스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보복공격과 관련하여 세계도처에서 반미반전시위

구국전선, 주체90(2001)년 10월 21일

인도에서 항의의 날 선포

10월8일 인도의 좌익정당연합이 10월12일을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미영의 군사적 공격반대 항의의 날」로 선포했다. 좌익정당연합의 지도자들은 공동성명에서 미국의 행위를 규탄하며 아프가니스탄민중들을 반대하는 군사적 행위를 조속히 중지시킬데 관한 요구를 지지하여 10월12일 거리들에 떨쳐 나올 것을 주민들에게 호소했다.



그리스 미국깃발 화형

그리스 수도에서 수백명의 사람들이 8일 밤에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국의 군사행동을 반대하여 벌어진 항의시위에 참가했다. 시위자들은 경찰의 증강된 보호하에 있는 아테네중심부의 미국대사관으로 몰려가 미국깃발을 불태워버렸다.

그들은 구호를 외치며 아프가니스탄의 폭격희생자 가족들에게 연대를 표시하고 이 군사작전에 그리스군대를 파견하지 말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뒷이어 며칠후 좌익역량이 반미구호하에 조직한 강력한 반전시위가 그리스의 세살로니키에서 진행되었다. 시위에는 3,000~4,000명이 참가했다.



네덜란드에서 항의시위

네덜란드의 12개 도시에서 8일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미사일공격과 폭격을 반대하는 항의행동이 벌어졌다. 가장 큰 시위는 그로닌게이에서 진행되었는데 여기에 약 300명이 참가했다. 암스테르담에서는 200명이 시위에 나섰다. 많은 시위참가자들이 손에 반미, 반영구호판들과 대규모적인 무력사용을 중지할 것을 호소하는 구호판들을 들었으며 횃불행진들도 진행되었다.

이탈리아에서 각계층이 반전시위

이탈리아의 여러 도시에서 테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국의 군사행동을 반대한다는 구호하에 항의시위들이 연일 진행되었다. 항의행동에는 청년대학생들을 비롯하여 수천명이 참가했다. 시위조직자들은 반세계화단체들과 노조와 좌익정당 열성자들이다.

로마에서는 시위가 시내중심부를 따라 『테러와 전쟁을 반대한다』는 구호밑에 진행되었다. 밀라노에서는 5,000명, 볼로나와 피렌체에서는 각각 2,000명이 시위에 참가했다. 나토군 남부사령부가 자리잡고 있는 나폴리에서는 시위자들이 『전쟁을 중지하라, 나토를 해산하라』라는 구호를 외쳤다.



타일랜드 이슬람교도들이 선언문 발표



방코크에서 사는 약 300명의 이슬람교도들이 전쟁을 반대하는 국제적 의사를 무시하고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하고 있는 미국을 비난하여 10일 오후 미국대사관 앞에서 항의시위를 가졌다.

그들은 미국대사관 앞에서 『이슬람교도들은 한몸이나 같다. 따라서 어느 하나를 해치면 전체를 해치는 것이다』라는 글발이 씌어진 횡단막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그들은 오사마 빈 라덴에 대한 명백한 증거도 없이 공격을 개시했다고 주장했다.

타일랜드에는 약 2백85만명의 이슬람교도가 있다.

방글라데시에서 300만명 학생들 종교전쟁에 탄원, 부시의 허수아비 화형



방글라데시의 이슬람교도 수백명이 10월8일 거리들에 떨쳐나와 항의시위를 벌였다. 항의자들은 미국깃발과 부시의 허수아비를 불태웠다.

이슬람교단결전선당의 지도자 아미니는 집회에서 연설하면서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한데 따라 우리는 미국을 반대하여 싸울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방글라데시전역에 있는 5만여개의 종교학교에 300만명의 탈리반학생들이 있다고 하면서 그들이 미국을 반대하는 그 어떤 종교전쟁에도 참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파키스탄과 기타 지역에서도 격렬한 반미시위

파키스탄 크에타에서는 학생 1,000여명이 탈리반군기와 빈 라덴의 사진이 담긴 플래카드를 흔들고 반미구호를 외치며 시가행진을 벌이다 최소한 5명이 숨지고 28명이 다쳤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입타원에서는 수천명의 시위대가 미국영사관으로 몰려가서 미국의 아프가니스탄공습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요르단의 수도 암만에서도 학생 200명이 빈 라덴을 지지하는 구호를 외치고 성조기를 불태우며 격렬한 반미시위를 벌였다.

이밖에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란, 나이지리아 등에서도 반미시위를 벌이는 등 이슬람권 곳곳에서 반미시위가 확산되고 있다.





대통령의 체모에 어울리지 않는 부쉬의 경솔한 언동

조선외무성대변인

≪평양 10월 23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대변인은 미국대통령 부쉬가 또다시 분수없이 우리를 걸고 든것과 관련하여 23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담화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부쉬는 아페크수뇌자회의를 앞두고 한 기자회견에서 마치 미국이 조미대화를 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응하지 않고 있는것처럼 사실을 외곡하였으며 지어는 우리의 최고지도부에 대해 ≪지나치게 의심하고 비밀스럽다≫느니, ≪약속을 리행하기를 거부한다≫느니, ≪도대체 리해할수 없는 인물≫이라느니 하는 험담까지 늘어놓았다.

부쉬의 발언은 그 정치적 동기는 둘째치고 우선 일명 ≪초대국≫의 대통령이라는 체모에 어울리지 않는 경솔한 언동이 아닐수 없다.

한 나라의 국가수반이라는 사람이 면식도 없는 다른 나라의 지도자에 대해 무턱대고 이러쿵저러쿵 시비부터 하는 것 자체가 초보적인 외교 례의를 떠난 몰상식한 처사이다.

대통령의 권좌에 올라앉자마자 ≪북조선지도자에 대해 회의심을 품고 있다≫고 의심보따리를 먼저 풀어놓은 사람도 부쉬이고 진행 중에 있던 조미대화를 모두 중단시켜 버린 것도 다름 아닌 부쉬행정부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며 그것도 오래 전이 아닌 불과 몇 달 전의 일이다.

그러한 그가 자기의 처신에 대해서는 돌이켜 보지도 않고 오히려 우리더러 ≪의심이 많다≫거니, ≪약속을 했으면 자기 몫을 해야 한다≫느니 하며 훈시하려 든 것은 그야말로 제 코도 못 씻는 주제에 남을 넘겨다보는 가소로운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국가수반은 고사하고 일개 정치인의 체모마저 갖추지 못한 이러한 무분별한 처사를 두고 우리가 과연 미국이 귀맛 좋은 소리를 한들 믿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모처럼 눈석이를 맞이하였던 조미관계가 다시 얼어 부고 대화마저 파탄되게 된 것은 전적으로 부쉬와 그 행정부의 뿌리 깊은 대조선적대시 관념때문이다.

클린톤행정부 말기 조미사이에는 대화가 활발해 지고 적대관계의 종식을 확약한 공동콤뮤니케와 테로를 반대하는 공동성명도 발표되였었다.

두 나라 지도자들 사이에는 특사방문과 친서들이 교환되고 최고위급상봉이 일정에 오르는 정도로 리해와 신뢰가 조성되였었다.

더우기 클린톤대통령의 평양방문일정에는 미국이 ≪위협≫으로 보고 있는 우리의 미싸일문제를 서로의 리익에 맞게 해결하려는 우리의 중대결단에 대한 토의가 핵심사항으로 포함되여 있었다.

그러나 새 미행정부는 정권을 인계받기 바쁘게 이 모든것을 다 뒤집어 엎었다.

세계제패를 위한 ≪미싸일방위체계≫의 수립을 우선시한 새 행정부로서는 우리의 미싸일문제가 조기해결되는것이 불편했으며 오히려 ≪불량배국가≫라는 적을 만들어 내는 것이 더 필요했던 것이다.

이토록 계승성이라고는 꼬물만치도 없는 정권에 대해 신의를 가질 수 없다는것은 이번 부쉬의 망언이 더욱더 실증해 주고 있다.

부쉬행정부가 지난 6월에 내놓은 조미대화의 ≪재개 제안≫ 역시 본질에 있어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무장해제시키겠다는 강도적 요구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적대관계를 청산하지 않고 교전상대에게 일방적으로 상용무력을 축감하라는 것은 결국 대화상대방의 우려를 해소 해주기는커녕 도저히 접수되지 못할 것이 뻔한 문제를 들고 나와 대화자체를 성립시키지 않으려는 올가미에 불과하다.

미행정부는 말끝마다 미군을 남조선에 영구주둔 시키겠다고 호언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아프가니스탄전쟁을 구실로 남조선주둔 미군전력을 대폭 증강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우리더러 일방적으로 상용무력을 철수시켜 평화의 지를 보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기 전에 무지와 파렴치의 극치라고 해야 할 것이다.

부쉬행정부의 이러한 적대적인 대조선정책은 력사적인 북남최고위급상봉과 6.15북남공동선언에 의하여 모처럼 마련되였던 북남관계의 완화 분위기까지 일거에 랭각시켜 버렸다.

미국은 남조선을 ≪동맹국≫과 ≪공조≫라는 쇠사슬로 얽어 매여 북남관계를 저들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복종시켜 놓고 남조선으로 하여금 북과 남이 협의해야 할 민족내부문제마저 먼저 미국의 승인을 받도록 복잡한 공정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북남공동선언의 리행에 막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미국의 반≪테로≫전쟁을 빙자하여 새로운 무장장비들이 대량적으로 반입되고 있으며 전역에 ≪비상경계령≫이 선포되는 등 전시에 가까운 살벌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

미국에 편승하여 아프가니스탄전쟁에 동참한 남조선의 위험한 정세에 따르는 신변안전상 문제로 다른 나라 국가수반들의 서울방문이 취소되고 있으며 북남사이에 계획되였던 흩어진 가족들의 고향방문마저 부득이하게 일시 연기되고 있다.

한마디로 부쉬행정부에 의하여 조성되고 있는 정세가 바로 북남사이에 합의된 사항들의 리행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미 명백히 천명한바와 같이 우리는 미국과의 대화자체를 반대하지 않으며 미국과도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는 립장이다.

아무리 미국이라고 해도 외교정책에서는 계승성과 일관성이 어느 정도 보존되는 것이 상식인데 부쉬행정부에 와서 그렇게 안되는 것이 의문이다.

우리의 바지를 벗기기 위한 상용무력축감문제와 같은것이 자주정책을 실시하는 나라에 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허황하기 그지없는 망상이다.

조미대화가 이미 두 나라정부사이에 합의된 기본합의문과 공동콤뮤니케를 리행하기 위한 실천적 문제들부터 론의하는 대화로 되여야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공정으로 될 것이라는것은 상식이다.

신의 있는 조미대화의 재개는 부쉬행정부가 최소한 클린톤 행정부의 마지막시기에 취했던 립장 수준에 도달해야 론의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



주민들을 살해하는 미국의 보복공격작전 정당화될 수 없다

로동신문



≪평양 10월 23일발 조선중앙통신≫ 오늘호 ≪로동신문≫은 ≪무자비한 타격을 가할 것이다≫라는 제목으로 된 개인필명의 론평을 실었다.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지금 세계는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미국주도하의 보복공격작전과 복잡한 정세흐름을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다.

지난 9월 11일 비행기습격사건이 있은 후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보복공격작전을 벌리고 있다. 지난 8일에 시작된 미국의 군사보복작전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확대되고 있다. 수도 카불과 주요도시들과 군사시설들, 지점들에 대한 비행기 및 미싸일 공격이 끊임없이 가해지고 특수부대의 지상작전이 개시되였다. 이로 하여 아프가니스탄의 군사전략적 거점들과 시설들은 물론 도시와 민간시설물들이 혹심하게 파괴되고 수많은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인들은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으며 그들 속에서 희생자와 피난민이 날로 불어나고 있다.

미국은 라덴과 그의 조직망을 완전히 소탕할 때까지 군사작전을 계속할 것이며 라덴의 조직망과 련계가 있는 나라들에까지 보복작전을 확대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

한편 타리반세력과 라덴은 습격사건의 과학적이고 확실한 증거를 내놓을 것을 미국에 요구하면서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공격을 계속한다면 그에 보복할 것이라는 립장을 취하고 있다. 그들은 미국의 지배로부터 이슬람교나라들을 완전히 해방할 때까지 성전을 계속할 것이며 모든 미군과 미국인들과 미국의 군사작전에 참가하는 나라와 세력들을 보복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라고 선포하였다. 보도들은 미국에 대한 새로운 테로공격이 100프로 있을 수 있다고 전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과 지역들에서 흰 분말이 들어 있는 편지와 소포 꾸레미들, 탄저균 감염자들이 나타나고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소동이 벌어지고 있다. 여론은 이와 같은 사태에 대하여 심심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지금과 같이 나간다면 테로와 보복의 악순환을 피할 수 없으며 이교도들과 이슬람교세력사이의 전쟁, 새로운 세계전쟁이 일어날수 있다는데 대하여 경고하고 있다.

테로는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으며 그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허용되여서는 안된다.

온갖 형태의 테로와 그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반대하는 것은 우리 공화국의 원칙적 립장이며 이로부터 우리는 시종일관 테로 일반을 다 반대하여 왔다. 우리가 테로를 반대하는 것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며 인민들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테로와의 투쟁방법도 어디까지나 이러한 목적에 부합되여야 하며 그와 배치되게 무고한 주민들을 살해하거나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무력행사와 전쟁의 방법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테로행위를 감행한 것은 몇몇 분자들이며 절대다수 인민들은 그와는 상관이 없다. 따라서 죄 없는 민간인들이 반테로작전의 희생물로 되여서는 안되며 테로 근원을 뿌리 뽑는다고 하면서 군사적 행동을 다른 나라들에까지 확대하는 것은 반테로 투쟁의 목적에 어긋나며 그것은 오히려 엄중한 후과를 가져 올 수 있다. 테로와 보복의 악순환이 일어나면 평화와 안전, 안정이 파괴되고 수많은 무고한 인민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며 나아가서 세계가 전쟁마당으로 변할 수 있고 인류가 엄청난 재난을 겪을 수 있다.

자주권존중은 테로 방지의 최선의 방도이다. 지구상에서 벌어 지는 모든 군사적 충돌과 전쟁과 같은 비정상적인 사태들은 그 성격과 형태가 어떠하든지 결국은 다른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리익을 침해, 유린하는데 근원을 두고 있다.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자주권존중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할 때 건전한 국가관계와 국제질서가 수립되게 되고 나아가서 온갖 형태의 테로와 군사적 충돌도 없앨수 있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 인민들의 생명재산과 안전을 지키며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데로부터 출발하여 테로를 반대하는데서 자기할 바를 다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터무니없이 우리를 계속 ≪테로지원국≫명단에 올려놓고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실시하면서 우리의 자주권과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고 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공격작전과 관련하여 조선반도에서의 ≪전력공백≫과 ≪돌발사태대응≫을 운운하면서 남조선강점 미군무력을 강화하고 ≪고도경계태세≫를 취하게 하면서 정세를 더욱 긴장시키고 전쟁위험을 증대시키고 있다.

오늘의 정세흐름은 자위적 국방력을 튼튼히 다져 온 우리의 조치가 얼마나 정당하였는가 하는 것을 뚜렷이 실증해 주고 있다. 혁명실천은 우리 인민과 군대로 하여금 누가 뭐라고 하든,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위대한 선군의 기치 밑에 혁명의 총대를 억세게 틀어쥐고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견결히 고수하고 전진시켜 나갈 결의를 더욱 굳게 다지게 하고 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그 어떤 사태에도 대처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을 해치려고 덤벼드는 자들에 대하여서는 무자비한 징벌을 가할 것이다.

자주권과 평화, 인민들의 생명안전은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철저히 보장되여야 한다. 미국의 보복작전은 이에 부합되게 진행되여야 한다는 것이 세계민심과 공정한 여론의 요구이다.

우리는 오늘의 사태발전을 높은 각성을 가지고 대하며 그에 주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다.



일본의 고위인물들이 해외침략무력을 공식적으로 가질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구국의 소리, 주체90(2001)년 10월 20일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얼마전 일본 고위당국자는 한 TV방송프로그램에서 ≪자위대≫의 존재를 군사기구로 만들기 위해 일본헌법이 수정돼야한다고 떠들었습니다. 이것은 육해공군과 그밖의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일본헌법 제9조의 수정에 대해 언급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에서 현행헌법을 수정하자는 논의가 벌어져온 것은 오래전부터입니다. 그런데 고위당국자가 전쟁금지를 규제한 헌법 제9조의 수정을 비공식장소도 아닌 TV방송프로그램에서 공개적으로 제기한 것은 보기드문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의 헌법수정제기는 ≪평화헌법≫을 파괴하고 ≪전쟁헌법≫을 만들어 침략과 전쟁책동을 합리화하기 위한 실천적 단계에로 공식적인 걸음을 내디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일본 군국주의의 해외침략이 시간문제로 되고 있다는 것을 실증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반동들은 기다렸다는듯이 일본 고위당국자가 공개적으로 헌법수정을 제기한 것을 두고 그 무슨 사변이라도 되는 것처럼 받들어 올리면서 즉시 헌법수정을 진행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헌법수정이 일본의 당면한 국가정책으로 되고 있으며 조만간에 일본이 기만적인 평화국가의 허울을 벗어던지고 전쟁국가의 길을 걸을 것이라는 것은 재론할 여지가 없다 하겠습니다. 특히 헌법을 수정해 ≪자위대≫를 공식적인 ≪군대≫로 규정하려는 것은 매우 엄중한 사태 발견이 아닐수 없습니다.

일본고위당국자가 ≪자위대≫의 존재를 무력에 따위에 의거하지 않는 군사기구로 만들겠다고 주장한 것은 사실과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군대≫라는 인상을 피하기 위해 ≪자위대≫라는 간판을 단 일본의 육해공군무력은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침략무력으로 자라났습니다.

일본은 지금 오만해질대로 오만해졌습니다. 일본은 지난 시기와는 달리 그 누구의 눈치도 살피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반동들은 내외여론의 강력한 규탄과 항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저하고 싶은 것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오직 걸림돌로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무력행사를 금지하고 있는 일본의 헌법입니다. 일본반동들이 헌법을 수정해 ≪자위대≫를 ≪군대≫로 정식화하려는 것도 그 마지막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본 고위당국자가 현행헌법을 수정해 육해공군무력을 유지하며 ≪자위대≫를 ≪군대≫로 개칭하려는 것을 합헌화하려는 것은 대규모의 정규적인 현대적 전투무력을 가지는 것을 법제화하고 ≪국가의 안전과 이익≫을 구실로 그것들을 마음대로 써 먹으며 그 위력을 세계에 과시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당면해서 미국에 대한 기습공격사건과 보복작전을 계기로 일본의 **를 보여 주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반동들의 무모한 해외침략책동은 제 손으로 제 무덤을 파는 결과만을 빚게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위대≫의 ≪군대≫개칭 합헌화 비난

로동신문

≪평양 10월 19일발 조선중앙통신≫ 19일부 ≪로동신문≫은 일본고위당국자가 헌법을 수정하여 ≪자위대≫를 공식적인 ≪군대≫로 개칭하는 것을 합헌화하려는 것과 관련하여 론평을 실었다.

론평의 필자는 그의 헌법수정제기는 ≪평화헌법≫을 파괴하고 전쟁헌법을 만들어 침략과 전쟁책동을 합법화하기 위한 실천적 단계에로 공식적인 걸음을 내디딘 것으로 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군대≫라는 인상을 피하기 위해 ≪자위대≫라는 간판을 단 일본의 륙해공군무력은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침략무력으로 자라났다.

≪미일방위협력지침≫관련법이 채택됨으로써 일본≪자위대≫는 참전권과 교전권까지 되찾았다.

군사대국이 된 일본은 지금 오만해 질대로 오만해 졌다.

그들에게 오직 걸림돌로 되고 있는 것이 무력행사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헌법이다.

일본고위당국자가 현행헌법을 뜯어 고쳐 륙해공군무력을 유지하며 ≪자위대≫를 ≪군대≫로 개칭하는 것을 합헌화하려는 것은 대규모의 정규적인 현대적 전투무력을 가지는 것을 법제화하고 ≪국가의 안전과 리익≫을 구실로 그것들을 마음대로 써먹으며 그 위력을 세계에 과시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당면하여 미국에 대한 기습공격사건과 미국의 보복 작전을 계기로 일본의 ≪솜씨≫를 보여 주자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무모한 해외침략책동은 제 손으로 제 무덤을 파는 것으로 될 뿐이다.

해외침략을 위한 일본반동들의 전시체제수립책동

로동신문



≪평양 10월 20일발 조선중앙통신≫ ≪로동신문≫ 20일부는 일본반동들이 해외침략을 위한 책동의 한 고리로서 전시파쑈체제수립을 다그치고 있는데 대하여 폭로하는 개인필명의 글을 실었다.

신문에 의하면 일본반동들은 ≪유사시법제≫정비를 최종적으로 검토하는 사업을 다그치고 있다.

그들은 지금이야말로 그 누구의 ≪위협≫과 미국에 대한 지원을 빗대고 ≪유사시법제≫정비를 검토하고 완성할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들은 ≪간첩방지법≫과 사회질서의 안전한 유지, 언론통제, ≪유사시≫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일반국민에 대한 탄압규정 등의 내용들을 보다 구체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반동들이 전략물자생산과 저축을 다그치는 것도 매우 주목되고 있다.

그들은 ≪탄약저축법≫, ≪원유저축법≫ 등을 전시체제에 맞게 전반적으로 뜯어고치는 복닥소동을 일으키고 있다.

일본반동들이 전쟁체제의 완성을 위한 기구들과 악법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다그치고 있는 것도 전시파쑈체제수립에 따른 조치이다.

≪피난민구원≫ 등에 참가하는 ≪자위대≫로 하여금 ≪국제기준을 수용≫하여 무기사용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하였으며 ≪자위대≫의 구조와 장비를 근본적으로 개조하는 사업에 달라붙었다.

신문은 오늘의 조성된 정세는 일본반동들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에 경각성을 높이며 그들의 해외침략책동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일본당국자의 대미병참지원 정당화를 비난

민주조선

≪평양 10월 23일발 조선중앙통신≫ 오늘호 ≪민주조선≫은 2일 일본당국자가 중의원 본회의에서 미국의 이번 군사작전에 일본이 병참지원을 줄데 대한 자기의 립장을 정당화해나선 것은 해외팽창열에 들뜬 일본반동들의 심리상태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론평의 필자는 일본반동들은 세계적으로 반테로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해외침략의 길을 터놓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보고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일본의 군국화와 해외팽창은 국제조약에 의하여 완전히 금지되여 있으며 일본의 ≪헌법≫에도 그것이 명기되여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해외에서의 군사활동이 일본이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은 불을 보듯 명백하다.

일본이 진정으로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고 자체의 번영에 대하여 생각한다면 남들이 바라지도 않는 해외팽창을 꿈꿀 것이 아니라 지난날에 저지른 죄 많은 과거를 청산하고 국제사회 앞에 평화의 길로 나가려는 의지를 명백히 보여 주어야 한다.

≪위안부≫소송 기각은 범죄자를 비호하는 미국의 부당한 처사

민주조선

≪평양 10월 23일발 조선중앙통신≫ 오늘호 ≪민주조선≫은 워싱톤지방재판소가 ≪쌘프랜씨스코평화조약≫에 의해 배상문제는 이미 해결되였다는 일본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아시아 여러나라 이전≪종군위안부≫들의 집단소송을 끝내 기각시킨 사실을 인권문제에서 2중기준을 적용하는 미국의 부당한 처사로 단죄하였다.

론평의 필자는 ≪쌘프랜씨스코평화조약≫은 대일단독강화조약으로서 전후 미국과 일본의 정치적 결탁의 산물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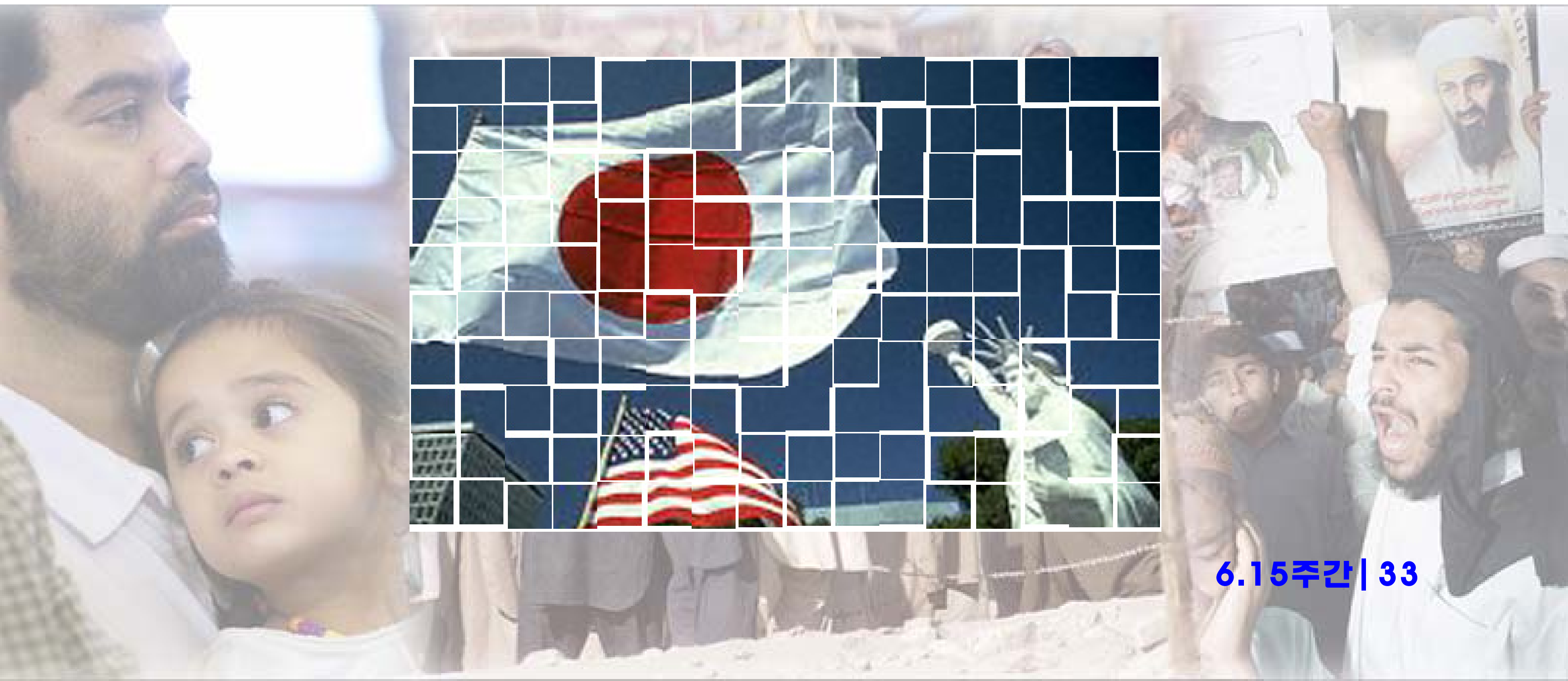
이 ≪조약≫에는 미국과 일본의 의사만이 반영되였을 뿐 정의와 공정성에 기초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요구는 완전히 배제되였다. 그리고 일본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많은 나라들의 요구와 의사가 무시되였다.

이런 이른바 ≪조약≫이 세계의 량심을 대변하는 국제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은 자명한 리치이다.

미국은 과거청산문제와 관련하여 세계적으로 몰리우며 궁지에 빠져드는 일본반동들을 구원하고 그 대가로 그들을 저들의 손아귀에 단단히 틀어쥐며 나아가서 대아시아전략실현의 돌격대로 써먹으려 하고 있다.

미국은 저들의 량면주의적인 태도가 결코 오래가지 못하며 그것이 앞으로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명심하고 처신을 바로 해야 한다.

그리고 일본은 현실을 바로 보고 미국의 옷섶에 매달려 과거청산의 의무를 회피해 보려는 어리석은 타산이나 할 것이 아니라 저들의 과거죄행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한시바삐 그 사죄와 보상에 나서야 한다.



한 노동운동가의 ≪통일운동에 대한 비판적 성찰≫

- 사월혁명회 주최 월례발표회에서

한 노동운동가가 지난 10여년에 걸친 통일운동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자리가 있었다.



18일 오후 5시 향린교회에서 열린 사월혁명회 주최 제73회 월례발표회에서 발표자 박찬식≪전태일을 따르는 민주노조운동연구소≫ 소장은 ≪민족자주 통일투쟁의 반성적 성찰≫이라는 제하의 강연에서 ≪비판이란 게 주도권을 갖거나 남을 깍아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 하기 위한 진심의 발로임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며 서두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박찬식 소장은 ≪8.15 민족통일대축전≫에서처럼 ≪최근 민족모순이 첨예함에도 불구하고 통일투쟁은 왜 정세가 요구하는 만큼 힘있게 수행되지 못하고 있는가?≫, ≪통일운동 내부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라는 문제제기를 시작으로 해서, 그 이유를 10여년에 걸친 통일운동의 역사성에서 찾고 있다.

우선 박찬식 소장은 문제의 시작으로, 1990년대 초 세계사적 차원의 사회주의 붕괴와 국내적으로는 김영삼 정부=문민정부 출범이라는 시대적 배경에서, 변혁.통일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좌절과 포기 그리고 변절과 정치권으로의 진입 등을 꼽았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통일운동에서 동요와 분열의 고비가 되었던 ≪사건≫으로 박찬식 소장은 1993-1994년에 있었던 이른바 ≪범민련 해소론≫을 지적했다.

박찬식 소장은 이 과정에서 발생한 범민련 사수파를 ≪변혁적≫ 입장으로 그리고 ≪민족회의≫≪자주평화통일 민족회의≫ 추진파를 ≪청산적.개량적 조류≫로 나눴다.

박 소장은 당시 범민련을 해체하고자 했던 전국연합 지도부와 ≪새통체≫≪새로운 통일운동체≫ 추진파가 ≪대중적≫ 통일운동체를 만든다면서 대중투쟁을 통한 대중적 결의과정을 거치지 않은 점을 비판했다.

하지만 변혁적 입장 역시 당시 경직되어 있었으며 기층 민중을 주체로 세워내지 못함으로써, 현재와 같은 통일운동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지적했다.

특히 박찬식 소장은 강연 말미에 최근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보복전쟁과 관련, 이 전쟁이 단지 두 나라간의 전쟁이 아니라 1970년대 불황이후 즉 30년 장기불황 끝에 온 전쟁으로서, 미국은 이 전쟁을 통해 경제회복의 기회로 삼고자 할 것이며 더 나아가 중동전을 장기화하다가 동아시아로 확전할 공산이 있다며 이에 대해 극도의 경계를 가질 것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강연은 통일운동과는 무관한 듯한 하지만 통일운동에 대해 관심 많은 노동운동가의 통일운동 평가인데다, 그것도 10여 년에 걸친 통일운동의 역사를 꼼꼼히 열거하면서 비판적으로 성찰 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는 평가다.

한편 사월혁명회 황 건 상임의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이번 강연이 통일운동을 온전히 ≪성찰≫하지는 못해도 통일운동의 성찰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계환 기자(khlee@tongilnews.com)
통일뉴스 2001-10-19



북녘땅을 달리게 될 ≪통일자전거≫



조만간 남녘의 자전거가 평양거리를 달리게 될 것 같다.

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 지원스님은 24일 12시 인권법당 길상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8.15 통일축전에 북측의 조선불교도연맹과 약속한 ≪통일자전거≫ 100대분의 모금이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지원스님은 지난 8.15 통일축전에 ≪6.15 남북공동선언을 위한 통일불교연대≪통일불교연대≫≫가 북측의 ≪조선불교도연맹≫ 방문시 통일자전거를 보내기로 약속을 하고 돌아와 모금에 들어갔으며, 부산에 거주하는 스님들과 신도들의 성의로 통일자전거 100대분의 성금 모금이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지원스님은 이것은 부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며 남녘의 불자들이 이번 통일자전거 보내기 운동이 통일에 기여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원스님은 지금은 부산지역에서만 진행되었으나 대구, 광주, 서울 등으로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자전거 100대분≪1,200만원≫을 전달받은 ≪통일불교연대≫ 진관 상임의장은 통일자전거는 조립하지 않은 상태로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밀가루보내기 11월 선적분에 함께 실어 보내기 위해서 실무적인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오인환 기자(tongil@tongilnews.com)
통일뉴스 2001-10-24





주한미대사가 주한미군의 장기주둔을 역설한 것과 관련해

구국의 소리, 주체90(2001)년 10월 18일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주한미대사 허바드는 17일 방송된 케이비에스기자회견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미국은 한반도가 통일된 후에도 주한미군이 지금처럼 주둔할수 있기를 희망한다느니 뭐니하고 떠들어댔습니다. 이것은 주한미군이 즉시 철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내외의 여론에 대한 악랄한 도전행위입니다.

미국의 한국강점은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창조하며 살아온 우리 민중에게 국토양단과 민족분열이라는 가슴아픈 비극을 가져왔습니다. 한반도의 분열로 인해 남과 북에는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게 됐으며 우리 겨레는 지난 50년대 3년간의 전쟁까지 겪지 않으면 안됐습니다.

국제사회가 자주와 통일의 길로 나가고 있는 현시대에 우리 민중은 장장 반세기가 넘도록 식민지파쇼통치아래서 온갖 불행과 고통만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미군의 한국강점과 식민지폭압책동은 한반도의 평화보장과 평화통일실현에 커다란 장애를 조성하고 있으며 우리 민족의 권리를 파쇼적으로 짓누르는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민중은 더이상 미국의 지배밑에 살기를 원치 않고 있으며 이땅에서 미군이 철수할 것을 견결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이땅에 남아 있어야 할 명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최근 남북사이에는 지난 2월에 불가침을 확약하는 합의서가 발표됐습니다. 북미사이에는 94년에 핵문제를 해결하고 정치, 경제관계를 정상화하며 평화와 안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자는 기본합의문이 채택됐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이 채택되어 통일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7천만겨레에게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한미대사가 방송에까지 공개출연해서 한반도가 통일된후에도 주한미군이 계속 남아있어야 한다는 시대착오적인 망발을 늘어놓은 것은 절대 용납할수 없다고 봅니다.

한반도가 통일된 후에도 미군이 계속 남아있어야 한다는 허바드의 망언이 결코 그 개인의 생각이나 입장이 아니고 부시행정부의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 되기 때문에 더욱 문제시하지 않을수 없는 것입니다.

한반도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는가 못되는가 하는 것은 미군의 한국강점종식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므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가 철수시키지 않는가 하는 것은 미국이 한반도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라는가 바라지 않는가를 판별하는 자막대기로 되는 것입니다. 미국이 진심으로 한반도에서 평화를 바란다면 조국통일의 기본장애물이고 새전쟁도발의 항시적 위험한 존재로 되고 있는 주한미군과 군사장비들을 지체없이 철수하는 용단을 내려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평화와 **에로 나아가는 시대의 흐름에도 맞는 것이고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노근리사건에 대한 새로운 자료를 두고

구국의 소리, 주체90(2001)년 10월 15일~16일



세월의 흐름은 언제나 망각이라는 친구와 동행하면서 가슴속에 ***남을수도 있고 지난날의 쓰라린 추억도 잊게 합니다. 그러나 세월의 흐름만으로는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가 우리 민중 모두의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어요.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는 미국에 의한 양민학살자료에는 미국의 범죄만행으로 이남땅은 그리고 민중의 불행과 아픔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실증해주고 있습니다. 네, ≪노근리사건에 대한 새로운 자료를 두고≫ 아주대 김모교수님의 글을 임현아씨 보내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0일경 나는 한 재미교포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그 편지봉투속에는 최근 새로 발굴된 노근리학살사건을 입증하는 자료들이 함께 들어 있었다. 그 자료에 따르면 1950년 7월 26일 오후 6시 40분 일본 ****공군기지를 이륙한 미제 35전폭대대소속 에프80전투기 4대가 용암리 남동쪽 3마일 지역에 출격했다고 한다. 미공군 제8폭격전비 35전투*이 출격임무결과보고서에서 확인된 자료라한다. 7월 27일자 출격임무결과보고서는 미제의 35전폭기대대소속 에프80전투기들이 오후 4시쯤 이륙해 한반도에서 1마일부근에서 미확인물체에 대해 공격하고 결과를 보았다고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에이피취재팀의 ***한반도북쪽 1마일부근 용암리 남동쪽 3마일지역은 노근리일대라고 했다.

이같은 사실들이 마치 한 화폭처럼 전개돼 있는 자료들을 편지를 통해 보내주며 재미교포는 그같은 내용을 담은 노근리**이라는 책이 에이피취재팀에 의해 일층 발간될 예정이라고 알려줬다. 그러면서 증거부족이요 뭐요하던 미국이 단단히 코를 꿰이게 됐다고 덧붙였다. 교포의 편지를 읽노라니 지난 1월 미국방부가 공개한 노근리사건조사최종조사결과보고서의 한 귀절이 다시금 눈에 밟혀왔다.

≪1950년 7월 26일 정시 노근리 근처에서 공중공격이나 집중사살을 한 증거를 뒷받침할 어떤 자료도 찾을수 없었다.≫

이러한 미국에게 저들의 범죄행위의 진상을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내보이는 이같은 자료를 들이댄다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미국이 단단히 코를 꿰이게 되었다는 교포의 얘기는 상식적으로 볼때는 옳은 것이다. 그러나 에이피통신에 의해 저들의 범죄적 만행의 진상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두해가 지난 오늘까지도 미국이 저들의 범죄행위를 부인하고 있는 것은 자료에 부족함이 결코 아니다. 역사에는 과거속에 파묻혀 있던 인륜적인 범죄행위의 진상들이 밝혀진 사실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노근리에서 저지른 미군의 양민학살만행과 같이 그 진상이 그 같이 낱낱이 밝혀진 사건은 흔치 않다. 피살자 유족들은 물론 사람들 모두가 에이피통신에 의해 노근리사건의 진상이 세상에 알려진 것을 계기로 피맺힌 한을 **때는 도래했다며 미국으로 하여금 대학살만행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하고 그 책임자들을 처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것은 그 때문이다.

그러나 그때로부터 2년이 어떻게 흘렀던가. 우리 민중은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보다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구실마련에 급급해온 미국의 교활한 책동을 목격하면서 범죄자들이 저들이 저지른 범죄행위의 진상을 밝힌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양민학살진상규명문제는 우리 민중이 주인이 되어 민족적 이익에 걸맞게 처리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페부로 절감했다.

그렇다. 바로 그래서였다. 대전과 광주, 울산과 이리를 비롯한 이 땅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반세기전에 있었던 미국의 범죄행위의 진상을 드러내보이는 사실자료들을 수많이 발굴한 것은 범죄자들의 값눅은 인정이나 받자는데 있는 것이 아니였다. 겨레의 피맺힌 한을 씻으려는 민족의 드높은 의지가 안아온 결실이였다. 그같은 자료들은 이땅에 더욱 거족적인 반미열풍을 안아왔으며 노근리사건피살자위령제를 비롯한 각종 **들을 계기로 민중들의 반미의식을 드높이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노근리사건을 비롯한 미국의 대규모양민학살사건과 더불어 흘러온 우리 민중의 투쟁의 나날들을 되새겨본 나는 재미교포가 보내준 자료들은 더더욱 나의 심장을 울려주었다. 참으로 얼마나 귀중한 자료들인가. 이 자료들은 각계층 민중을 반미항전으로 더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투쟁의 불꽃으로 돼야한다. 이 자료들을 가지고 여론**을 더욱 힘있게 벌여 이북의 범죄적 만행의 진상과 저들의 범죄행위를 은폐시켜보려는 미국의 교활한 정치를 만천하에 고발하여야 한다. 흐르는 세월과 더불어 새로 밝혀지는 미국에 의한 대학살만행자료들, 우리 민중의 가슴속에 미국이야말로 한 하늘을 이고 살수 없는 피맺힌 원수임을 더욱 뚜렷이 각인시켜야 한다. 민중의 드높은 반미의지에 받들려 그같은 자료들의 발굴은 계속 될것이다. 미국의 범죄적 진상을 낱낱이 밝히는 산 화폭이 되어 각계층 민중을 반미항전으로 부르는 투쟁의 불꽃이 되어야 한다.

네, 각계 민중은 단합된 힘으로 이땅에서 주한미군을 몰아내고 민족의 피맺힌 한을 반드시 씻어야 할겁니다.

민간인학살, 통합특별법 제정 가능하다

- ≪민간인학살 공동대책위≫ 발족



6.25 한국전쟁 전후에 벌어진 민간인 학살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밝히기 위한 ≪민간인학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전국공동대책위원회≪민간인학살 공대위≫≫가 발족했다.

≪한국전쟁후 민간인학살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범국민위원회≫와 ≪미군학살만행진상규명전민족특별위원회 남측본부≫ 등 62개 단체가 참여하여 22일 오후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발족한 민간인학살 공대위는 최우선의 사업으로 통합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피학살자 유족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발족식에서 홍근수 공동대표는 ≪우리의 역사왜곡을 간직한 채 일본의 역사왜곡에 항의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라며 ≪늦게나마 피학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역사를 바로 잡아 의미있는 ≪역사≫를 살 수 있도록 모두가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또한 민간인학살 공대위 김동춘≪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집행위원장은 ≪50년만에 유족이 아닌 각계인사가 만나 민간인학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큰 의의가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 때 반드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인학살 공대위는 지난 9월 6일 김원웅≪한나라당≫ 의원 등 47명의 국회의원 공동발의로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 15일부터 휴전협정이 성립한 1953년 7월 27일까지의 기간 중 남쪽내에서 국군, 경찰, 우익단체, 미군에 의해 학살당한 모든 민간인학살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대통령 소속하의 독립위원회로 위상을 상정하고 있다.

특히 의문사진상조사위원회와는 달리 위원장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게 하고 관계기관의 협력 의무를 명시하는 한편 벌칙을 강화하는 등 조사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그러나 현재의 북한인 북쪽 지방에 대한 민간인학살문제는 제외했다.

이에 대해 김동춘 집행위원장은 후에 ≪남북정권이 공동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해 조사 가능한 남측을 우선 순위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동춘 집행위원장은 정부에 대해 ≪함평, 문경 지역의 민간인학살에 대해 이미 100%의 증거가 확보됐음에도 정부와 국방부는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한국정부가 진실규명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미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며 정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앞으로의 민간인학살 공대위는 통합 특별법 입법 투쟁에 최대의 힘을 기울일 것이며 대국민홍보, 지속적인 실태조사, 전국합동위령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사진집와 영상자료, 각 지역의 실태조사 자료집이 발간될 예정이며 11월 5일 유족회 재창립으로 유족들의 국회의원 방문투쟁,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압박 등 다양하고 강도 높은 전술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계속되는 국회파행과 시기적으로 올해를 넘기면 정치권이 대선국면으로 들어가는 등 통합특별법 제정에 대한 어려움은 많다.

이에 대해 김동춘 집행위원장은 ≪공비가 실제로 관여된 제주 4.3도 특별법이 제정되었는데 여야가 전향적인 자세로 임하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며 이데올로기가 아닌 인권의 문제로 접근≫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비쳤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유족들이 피해의식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진실 밝히기와 시민사회단체의 폭넓은 관심≫이라고 김동춘 집행위원장은 전했다.

김명숙 기자(mskim@tongilnews.com)
통일뉴스 2001-10-22

민간인학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전국공동대책위원회 참여 단체

건강사회실천운동협의회,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기독시민사회연대, 노동자의 힘,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 역사문제연구소, 추모연대,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족정기수호협의회,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천주교인권위원회, 불교인권위원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문화예술청년공동체, 고양금정굴양민학살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범국민추진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반미여성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태일기념사업회, 진보교육연구소, 참여연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청년통일광장,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새사회연대≪준≫, 광주인권운동센터, 나와 우리,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본, 인권실천시민연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베트남전진실위원회≪국제민주연대≫, 베트남평화의료연대≪건치≫, 주한미군근절운동본부,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사월혁명회, 통일광장, 민족자주통일중앙회의, 전북평화와인권연대, 통일맞이늦봄문익환추진사업회, 좋은벗들, 학술단체협의회,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제주4.3연구소, 제주4.3범국민대책위원회, 경남지역 민간인학살 해결을 위한 모임, 대구 한겨레문화센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전국연사교사모임, 미군학살 만행진상규명 전민족특별조사위원회 남측본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이상 총 53개 단체, 무작위 순≫

민간인 학살 규명활동 활발

백서 발간.. 합천 하동 등 채록 작업.. 27일 위령제

진주를 비롯한 경남지역에서 한국전쟁 전후 양민학살 희생자 추모사업과 진상규명 작업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지역별 유족회 결성이 이어지는가 하면, 양민학살지에 표지석을 세우고 관련 단체의 합동위령제가 연이어서 열리고 있다.

하동 보도연맹원 150여명 희생

≪민간인 학살 문제 해결을 위한 경남지역 모임≫≪대표 서봉석, 산청군의원≫은 경남지역 민간인 학살문제와 관련한 백서 발간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이 모임은 지난해부터 여러 방면에 걸쳐 양민학살사건을 조사해오고 있다. 진주를 비롯해 마산 창원 거제 하동 남해 산청 등 도내 곳곳에서 벌어진 양민학살 사건에 대한 유족 증언과 당시 상황 채록 등의 작업을 하고 있다.

백서 발간은 거제에서 활동하는 전갑생 씨가 팀장을 맡아 진행하고 있는데, 11월 안으로 발간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전갑생 팀장은 최근 하동과 합천지역 조사를 마쳤다. 전 팀장은 ≪하동 양보면과 하동읍 등지의 유가족과 당시 사찰계 형사 등을 만나 인터뷰하였다. 하동군의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하였고 보도연맹 조직과 희생자들도 파악할 수 있었다. 하동군의 보도연맹원은 3000명이고 희생자는 150여 명이다. 학살장소는 전남 광양시 진월면 매티재, 일부는 마산형무소나 진주형무소로 끌려가 희생된 것으로 파악됐다. 주로 경찰과 특무대원들로 밝혀졌다≫라고 말했다. 합천 조사 결과에 대해, 전 팀장은 ≪삼가 · 가회 · 합천읍 3곳이며 유가족과 지서주임 등 관련자들을 만나 보도연맹 조직과 희생자도 파악하였다. 합천군은 2000여 명의 보도연맹원 중 희생자는 200여 명이고, 학살 장소는 산청군 생비량과 옛 진양군 경계지점인 방아재로 밝혀졌다. 가해자는 합천 경찰서 사찰계 형사들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거제유족회 결성 이어 고성 등 추진

지역별 유족회 결성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전쟁 전후 학살 당한 민간인들의 유족들이 모임을 만들어 각종 활동을 벌이기 위한 취지다.

지금까지 유족회가 결성된 곳은 마산 창원과 거제 등이다. 11월에는 고성지역 유족회 결성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각 지역별 유족회는 남해와 통영 산청 등에서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진주지역도 유족회를 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명석 일대에서 보도연맹원 등의 양민학살 희생 사건에 대한 증언이 나오고 있어 이들을 중심으로 진주지역유족회 결성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간인 학살 문제 해결을 위한 경남지역 모임≫은 양민학살지에 표지석을 세우는 사업도 추진한다. 스테인레스판으로 산청 외공리 등 지금까지 알려진 양민 학살 지역에 내역을 밝힌 표지석을 세우기로 했다.

또 이 모임은 민간인 학살과 관련한 영상물도 만들기로 하고, 김한규 씨가 중심이 되어 관련 자료 수집과 촬영 작업을 해나갈 예정이다.

양민학살합동위령제 27일

양민학살 합동위령제가 오는 27일 창원에서 열린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희생자 부산경남지역 합동위령제≫라는 이름으로, ≪한국전쟁 중 미군에 의한 양민학살 경상남도대책위원회≫와 ≪민간인학살문제해결을 위한 경남지역모임≫ ≪6.25 피학살민간인 부산경남유족회≫와 각 지역 유족회, 시민사회단체가 중심이 되어 열린다.

합동위령제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일어난 민간인학살은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분단과 민족차별의식 등이 낳은 구조적인 문제이다. 따라서 이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한반도에서 미국의 군사력을 걷어내고 민족의 존엄과 인권이 보장되는 자주적인 민주정부를 세워내는데,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실현하는 데 있다≫라고 말했다.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운동도 추진

경남지역에서도 지난 9월6일 국회의원 47명의 공동 발의로 제출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통합 특별법≫ 통과를 위한 일반 국민 서명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특별법은 조만간 열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친 뒤,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들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 궁금한 상태다.

성공회대 김동춘 교수는 지난 9월 거제유족회 결성식에 참석해, ≪유족들이 중심이 되어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을 찾아 호소하고, 적극적인 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윤성효 기자 cjnews@thrunet.com

≪공격용 헬기사업 전면 백지화돼야≫

≪대형 공격용 헬기 도입, 왜 문제인가?≫ 토론회 열려



≪공격용 헬기사업≪AH-X≫은 전면 백지화되고 폐기되어야 한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과 ≪나라와 문화를 생각하는 모임≫은 22일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대형 공격용 헬기 도입, 왜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토론 참가자들은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고영대≪평통사≫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김승국≪평통사≫ 정책위원장은 먼저 ≪대형 공격용 헬기 도입과 한반도 평화의 현주소≫라는 발제를 통해 ≪무기도입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군축 전망을 포함한 한반도의 평화보장을 위한 비전을 제시할 것≫을 주장했다.

김승국 정책위원장은 무기도입 계획의 전면 재검토와 관련해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보잉사의 아파치 롱보우≪AH-64D≫ 도입의 의미는 한국이 ≪신자유주의+미국 군·산 복합체의 합성자본≫의 우산 아래에 편입되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어 김승국 정책위원장은 아파치 헬기 도입의 근본 원인은 한국의 안보가 미국에 의한 ≪위탁 안보≫에 의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헬기 도입시 문제점으로 ▲효용성의 문제 ▲ 적실성과 타당성 문제 ▲헬기운영과 관리의 문제 ▲사업관리의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또한 헬기 도입 이후에는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대칭적 군비확산 ▲남북한 군비경쟁 ▲국방 투자와 획득 정책의 파행으로 총체적 국가이익의 상실을 가져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서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철기≪동국대≫ 교수는 김승국 정책위원장의 의견에 동의하고 추가 의견을 제시했다.

이철기 교수는 북한은 현재 단 한 대의 공격용 헬기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반면 한국은 약 160여대의 공격용 헬기를 보유하고 있어 공격용 헬기는 북에 비해 절대 우위에 있는 무기일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전차만으로도 북의 전차를 제압하는 것이 가능해 북한의 기갑전력 대비용이라는 국방부의 주장은 명분이 약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격용 헬기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조성되고 있는 남북화해 분위기에 역행하는 것이며 남북이 군축을 실시할 경우 군축의 1차적 대상이라는 문제점 등을 들었다.

이어 이철기 교수는 공격용 헬기사업의 전면 폐기를 주장하면서 그 대안으로 다목적 헬기사업으로 대체하는 것과 통일에 대비하여 적정군사력과 적정무기에 대한 평가가 선행된 무기 획득과 군사력 구축 방향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한나라당 김원웅 의원은 무기도입 정책결정과정에서 국민적 검증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무기도입 방식엔 한미간의 역학관계상 투명성과 제도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의 해결을 위해선 미국에 NO 라고 말할 수 있는 정치세력이 빨리 형성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시 대통령의 대북 대화재개 선언에 의하면 재래식 무기에 대한 논의와 협상에서 감축 1순위인 아파치 헬기를 도입한다면 모순되므로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이의 협상이 완료될 때까지 유보돼야 한다는 견해를 김 의원은 폈다.

이어 김원웅 의원은 국민들의 권리인 청원권을 행사한다면 그 해결을 위해 나라와 문화를 생각하는 모임에서 적극 나설 것과 이의 도입을 재검토하는 국회 결의안을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으로 이태호≪참여연대≫ 투명사회국장은 먼저 이날 토론회에 국방위원회 소속의원과 무기 도입 관련자들의 참여가 없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는 국방위원회의 역할의 문제와 예산부정방지 및 부패방지 등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종대≪군사평론가≫ 씨는 우리 군이 물량위주의 미국식 군사 패러다임과 유사해 국방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추가되는 현상을 유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 무기 획득이후 관리기능의 부재를 비롯해 잘못된 군사관행이 그대로 추진되는 문제점 등을 제기했다.

참가자들의 발제가 끝난 후 다양한 질문과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특히 김삼석≪군사문제연구가≫ 씨는 2003년 10월 1일이면 ≪북한 위협론≫이 제네바 핵 합의시한에 의해 무너질 것이라고 분석하고 북미간의 새로운 평화체제의 완료시점으로 한반도에서의 무기판매가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해 토론참가자들과 다른 관점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주최측에서 국방부의 참여를 요청했으나 국방부측이 불참의사를 밝혀와 다양한 문제제기에 대한 국방부측의 입장과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는 아쉬움을 남겼다.

송정미 기자(jmsong@tongilnews.com)
통일뉴스 2001-10-22



≪에어쇼를 평화쇼로≫



성남서울공항에서 지난 15일부터 ≪2001 서울 에어쇼≫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은 에어쇼 행사장 입구에서 ≪공격용 헬기와 차세대 전투기 도입 중단 촉구≫ 집회와 캠페인을 전개했다.

평통사는 ≪현란한 에어쇼를 넋 놓고 보고 있는 사이에 소중한 국민 세금이 불요불급한 무기 도입을 위해 미국 등의 군수업체 손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평통사는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AH-60D≪미, 보잉사≫ 등 공격용 헬기와 F-15E≪AL, 보잉사≫ 등 차세대 전투기 도입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부시 대통령이 10월 방한 중 이번 에어쇼에 참석해 판촉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던 보잉사 F-15E는 차세대 전투기가 아니라 70년대의 낡은 기종으로 한국 공군 장교들도 기피하는 기종이라고 지적했다.

행사 관계자에 의하면 오늘 에어쇼는 2만 5천 여명이 관람한 것으로 보인다. 아이들과 함께 한 가족단위 관람객이 가장 많이 눈에 띄었고, 학교별로 단체관람을 나온 경우, 그리고 항공기 매니아 등으로 행사장은 북새통을 이뤘다.

손자들과 함께 왔다는 성선애≪56세, 인천≫씨는 ≪무기를 팔기 위해 에어쇼를 한다는 것을 모르고 왔는데 시민단체들의 얘기를 듣고 나니 이런 어려운 시절에 에어쇼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다≫며 미안해했다.

그러나 행사장을 찾은 대부분의 관람객들은 에어쇼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았다.

직업상 행사장을 찾았다는 원중현≪30세, 인천≫씨는 에어쇼 관람 소감을 ≪멋있었다≫는 한마디로 밝히고는 무기구입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 대해 ≪평화로울 때 강하게 지켜야 한다≫는 지론을 폈다.

이에 대해 평통사의 박석분 간사는 ≪에어쇼를 관광하는 시민들은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이번 캠페인이 대중들에게 에어쇼의 이면에는 보잉사와 같은 호전적인 업체에 세금을 낭비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의 ≪차세대 전투기≪FX≫사업≫ 최종 기종 선정에 결정적인 행사가 될 것으로 알려진 이번 에어쇼에는, 라팔≪프랑스 다소≫과 F-15E≪미국 보잉≫ 등 참가 업체들 간의 홍보전이 치열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세인들의 관심도 집중됐었다.

하지만 19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FX 사업 기종 선정이 내년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년 5월부터 현재까지 2단계 협상을 진행중에 있으며, 업체에서 제시한 조건의 신뢰성과 기술이전 수준, 총 국방예산의 가용성 등을 철저하게 검증하기 위해 관련 부서≪국방부, 공군, 국방과학연구소, 국방연구원≫에서 확인 및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송정미 기자(jmsong@tongilnews.com)
통일뉴스 2001-10-19



용산 주민들, 미군기지 반환 걷기 대회 참여



용산 주민이 미군기지 반환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주민 100여명과 학생 200여명은 21일 낮 용산역에서 ≪용산미군기지 반환을 위한 시민걷기대회 준비위원회≪준비위원회≫≫ 주최로 미군기지 반환을 주장하는 걷기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용산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행사가 성사되었다.

자녀들과 함께 걷기 대회에 참여한 성정례≪33≫씨는 ≪기름유출과 기지내 비행기 소음 등 미군기지로 인한 피해가 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며 ≪예전에 도와준 것은 도와 준 것이고 이제는 국가 대 국가로 동등한 입장에서 미군기지를 내놓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는 3대 13명의 대가족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며느리 이수영≪39, 이촌동≫씨는 많은 가족이 참가한 배경에 대해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되고 싶은 작은 바램과 혼탁한 지금과는 다른 환경을 물려주고 싶≫어서라고 설명했다.

행사에 참여한 안연희≪신용산초등, 3학년≫ 학생은 ≪엄마한테 미국이 나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미국이 우리 땅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싫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행사를 준비한 이영훈≪고대, 4≫ 학생은 ≪용산 지역 주민들과 미군기지로 인해 곤란한 점이나 피해를 입은 이야기를 함께 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행사를 추진하게 되었다며 ≪매향리 주민들이 사격장을 폐쇄한 것처럼 용산주민들이 주체로 나서 미군기지를 폐쇄≫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걷기대회에 대해 경찰은 ≪불법집회≫로 간주하고 인도만 사용하여 행사를 진행하도록 했으며 용산미군기지 앞을 지나가는 것을 막았다.

경찰은 이적단체로 규정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이 폭력시위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방심할 수 없으며 미국 테러사건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고 집회 관계자는 전했다.

걷기대회를 치르는 동안 이를 지켜보던 시민 중 한 사람은 ≪외교단절까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며 정치권이 발벗고 나서야 해결될 것≫이라고 자신의 주장을 밝혔다.

이날 행사 참가자들은 용산역에서 이촌 한강시민공원까지 걷기대회를 진행했으며 한강시민공원에서는 미국의 범죄를 알리는 전시회와 가족들과 함께 볼 수 있는 노래공연이 열렸다.

공연 도중 참가자들은 ≪용산미군기지 반환≫이라고 쓰여진 풍선을 하늘 높이 띄우며 용산미군기지가 반환되고 그 장소가 시민공원이 될 수 있도록 소망했다.

김명숙 기자(mskim@tongilnews.com)
통일뉴스 2001-10-22

서총련, ≪용산기지 에워싸기≫ 전개

서총련은 학생 250여명은 20일 오후 1시 ≪전쟁반대 용산미군기지 반환≫을 위한 ≪용산미군기지 에워싸기≫를 진행했다.

이날 용산미군기지 에워싸기 행사는 서총련 학생들이 부르는 ≪반미반전가≫로 시작됐다.

규탄연설에 나선 서총련 전태영 조국통일위원장은 미국에서 발생한 테러를 ≪콩 심은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난다≫는 말에 비유하고 결국 미국의 테러는 ≪자신들이 초래한 것≫이라고 미국을 비난했다.

또한 전태영 조국통일위원장은 수도 한가운데 외국군대가 있다는 것은 ≪자주권≫을 가진 나라라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이 땅의 평화와 자주, 민주를 위해 이 땅에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자고 주장했다.

이어서 서총련 학생들은 풍물패를 앞세우고 단일기를 줄로 연결해 잡고 용산기지 에워싸기를 진행했다. 용산 미군기지를 에워싼 학생들은 ≪반전 반미≫의 구호와 노래를 부르면서 마지막으로 ≪US TROOPS OUT OF KOREA≫가 적힌 종이 비행기를 용산기지 안으로 날려보냈다.

한편 이날 용산 미군기지 에워싸기에 앞서 학생들은 ≪전쟁반대, 용산기지 반환≫ 등의 구호와 노래, 그리고 학생대표들의 결의발언을 듣는 시간을 가졌고 민주노총 서울본부장도 참석해 연대의 말을 전했다.

서총련의 ≪용산 미군기지 에워싸기≫는 지난 9월 22일에 이어 두 번째이다.

이날 서총련은 하반기 사업으로 ≪범국민 반미투쟁≫을 전개할 것을 밝히면서 주한미군이 철수 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는 결의를 다졌다.

송정미 기자(jmsong@tongilnews.com)
통일뉴스 2001-10-20

경찰이 전 한총련대의원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구국의 소리, 주체90(2001)년 10월 19일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부산 금정경찰서는 16일 한총련에 가입한 전 부산대 자연대학학생회장 전모군을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검거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모군이 한총련대의원으로 활동하는 것을 문제시해서 그를 지난해부터 수배하다가 끝내 검거하는 용납못할 폭거를 감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부산대생 50여명은 금정경찰서앞에서 전모군의 연행에 항의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경찰당국이 한총련대의원들을 계속 검거하거나 수배하고 있는 것은 한총련자체를 말살하고 학생들이 자주민주통일투쟁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데 그 저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돌이켜보면 경찰당국은 청년학생들의 합법적 자치조직인 한총련을 거세말살하기 위해 별의별 짓을 다해왔습니다. 그들은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매도하면서 핵심성원들을 닥치는대로 체포투옥했으며 탈퇴시한까지 정해놓고 한총련핵심들에게 조직에서 탈퇴할 것을 집요하게 강박해왔습니다. 그러나 한총련에 대한 경찰당국의 탄압책동은 시대착오적이고 파쇼적이며 반통일적인 것으로써 파산을 면치 못했습니다.

한총련은 경찰당국의 간악한 모략과 끈질긴 회유기만, 잔악무도한 파쇼칼부림에 죽어들지도, 꺾이지도 않고 불사신처럼 일어나 대오를 수습하고 조직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한총련소속 학생들은 조직에서 탈퇴한 것이 아니라 한총련의 깃발아래 더욱 튼튼히 결속되어 경찰당국의 폭압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경찰당국의 파쇼폭거에 항의해 부산대학교 학생들이 집회를 연 것은 한총련을 끝까지 사수하려는 굴함없는 의지의 발현이라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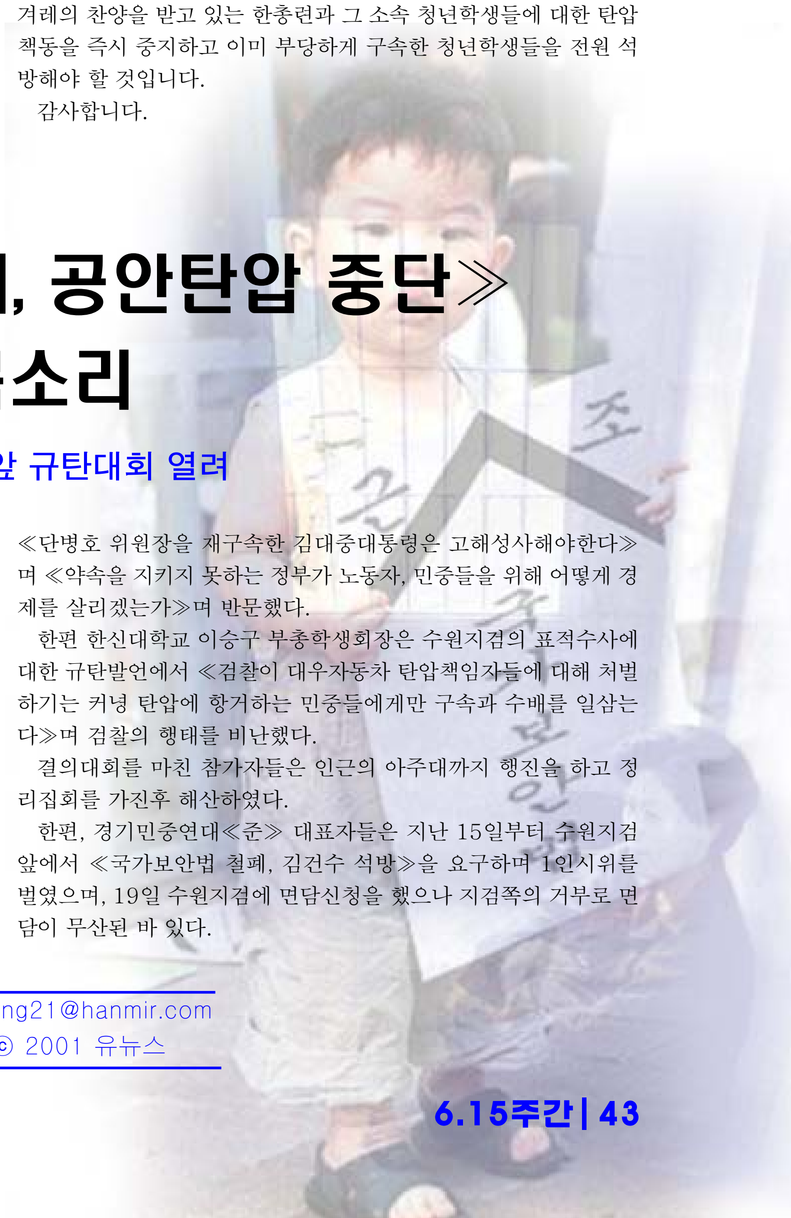
경찰당국이 이번에 부산대 자연대학 전 학생회장을 검거한 것은 한총련을 말살하기 위해 일으키는 발작증입니다. 경찰당국은 어떻게하나 자주민주통일의 선봉대인 한총련을 탄압말살함으로써 전반적인 통일민주세력의 투쟁진출을 가로막고 나아가서 통일애국운동을 분열와해, 탄압말살해보려고 책동하고 있습니다.

한총련에 대한 경찰당국의 탄압책동은 문민독재광이나 군부독재자들이 감행한 것보다 훨씬 더 악독하고 간악무도하며 집요합니다. 역대독재자들도 청년학생운동에 대한 탄압말살책동에 광분했지만 현 경찰당국처럼 그렇듯 집요하고 악랄하게 탄압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한총련 청년학생들에 대한 태도는 정의와 불의, 애국과 매국, 민주와 파쇼를 가르는 시금석으로 됩니다. 경찰당국이 각계 민중의 자주민주통일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하는 한총련을 탄압말살하기 위해 칼부림에 미쳐 날뛰면 날뛸수록 자주민주통일운동의 원수로써의 저들의 더러운 정체만을 더욱더 드러낼 뿐입니다.

경찰당국은 청년학생들에 대한 야수적 탄압만행이 저들의 파멸을 촉진시키는 결과밖에 가져올 것이 없다는 것을 똑똑히 명심하고 온 겨레의 찬양을 받고 있는 한총련과 그 소속 청년학생들에 대한 탄압책동을 즉시 중지하고 이미 부당하게 구속한 청년학생들을 전원 석방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국가보안법 철폐, 공안탄압 중단≫ 한 목소리

20일 수원지검 앞 규탄대회 열려

지난 20일, 수원지검 앞에서는 ≪국가보안법 철폐, 반인권 정점 식사퇴, 수원지검 규탄 결의대회≫가 열렸다.

경기민중연대≪준≫의 후원으로 경인총련과 김건수대책위에서 주최한 이번 집회에서 경기남부연합의장 도영호씨는 대회사에서 ≪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은 부당하다≫며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은 철회되어야 한다. 구속된 애국인사들은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번째 규탄연설에 나선 경희대 수원교정의 김모양은 한총련 이적규정의 부당성에 대해 ≪고이즈미 일본 총리 방한때 한총련이 헌신적으로 싸웠다. 그때 시민들이 한총련에 지지를 보내줬다.≫며 ≪한총련은 민족자주와 민중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싸워왔다. 이런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매도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수원지구협의회 하재학 의장은 이날 두번째 규탄사에서 ≪단병호 위원장을 재구속한 김대중대통령은 고해성사해야한다≫며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정부가 노동자, 민중들을 위해 어떻게 경제를 살리겠는가≫며 반문했다.

한편 한신대학교 이승구 부총학생회장은 수원지검의 표적수사에 대한 규탄발언에서 ≪검찰이 대우자동차 탄압책임자들에 대해 처벌하기는 커녕 탄압에 항거하는 민중들에게만 구속과 수배를 일삼는다≫며 검찰의 행태를 비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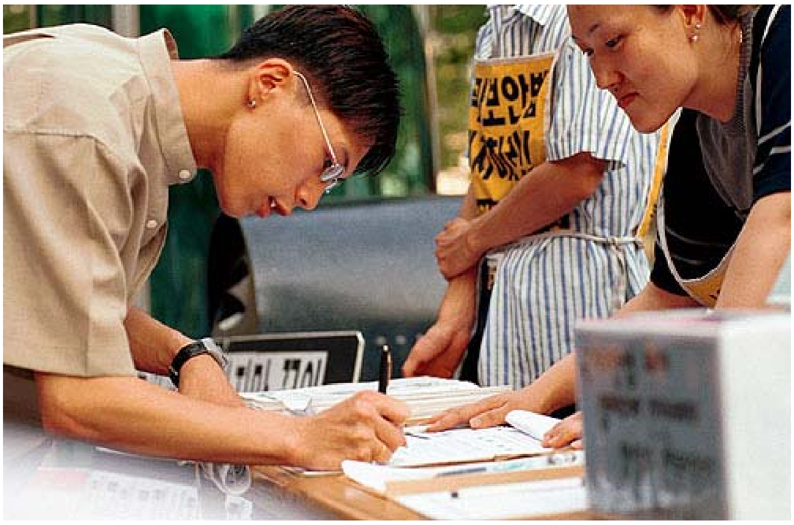
결의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인근의 아주대까지 행진을 하고 정리집회를 가진후 해산하였다.

한편, 경기민중연대≪준≫ 대표자들은 지난 15일부터 수원지검 앞에서 ≪국가보안법 철폐, 김건수 석방≫을 요구하며 1인시위를 벌였으며, 19일 수원지검에 면담신청을 했으나 지검쪽의 거부로 면담이 무산된 바 있다.

김경환 기자 heemang21@hanmir.com

국보법과 남북화해 양립될수 없다

구국의 소리, 주체90(2001)년 10월 17일~19일



6.15남북공동선언발표로 사실상 그 존재명분이 없어진 반통일악법인 국보법이 아직도 철폐되지 않고 온 겨레의 통일열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이 악법을 그대로 두고서는 통일운동을 활성화해 나갈수 없다는 것이 우리 민중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네, 그럼 ≪국보법과 남북화해 양립될수 없다≫ 이 시간 첫 순서로 김현규씨 말씀드리지요.

얼마전 공안당국은 통일대축전파문과 관련해 김규철부의장을 비롯한 범민련관계자 6명을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김규철씨 등은 이번 8.15통일대축전에 참가해 정부가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범민련북측본부와 만나 범민족회의를 개최하고 3대헌장탑앞에서의 행사에 참석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민간방북단은 이번에 평양에 가서 민족통일대축전을 통해 민족자주통일의지와 단합된 겨레의 힘을 내외에 과시하고 남북관계개선과 발전에 거대한 성과를 이룩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도 공안당국은 방북인사들의 방문시 행동과 언행을 조사해 국가보안법상의 그 무슨 회합통신죄, 찬양고무죄, 이적단체가입 및 이적표현물제작, 발표 등의 혐의까지 들씌워 사법처리를 주장하는 등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 통일에 역행하는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고 온 민족이 그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속에서도 이땅에서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가로막는 온갖 법률적 장치들이 제거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악랄한 반통일악법인 국보법의 존재가 바로 기본장애물로 되고 있습니다. 국보법은 수십년간 인권을 유린하고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며 기득권세력의 이익만을 지켜왔습니다. 국보법은 남북관계를 가로막고 통일을 부정하는 동시에 냉전수구세력이 저들의 정치적 지반과 이익을 챙기는 검은 도구로 이용돼 왔으며 한반도의 분단을 고착하는 역대 군부파쇼정권의 제도적 장치였습니다. 이같은 국보법이 지난해 6.15남북공동선언발표로 사실상 그 존재명분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국보법의 철폐문제가 상정되고 온 민중이 국보법철폐를 한결같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회창을 비롯한 반통일수구세력의 범죄적인 책동에 의해 아직까지도 이 악법은 의연 존재하고 있으며 이번에도 공안당국이 그 서슬퍼런 칼날로 통일애국세력들을 탄압해 나선 겁니다.

오늘날 국보법을 철폐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는 진정으로 통일을 바라는가 바라지 않는가를 가르는 시금석으로 된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온 국민이 국보법의 철폐를 요구하고 있고 또 6.15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한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 통일운동이 국보법의 존재와 절대로 양립될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의 통일은 어디까지나 민족의 단합에 의해서만 실현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에서 가장 독소적인 조항이 바로 민족단합을 전면 부정한겁니다. 국가보안법은 조국통일논의의 자유도, 남북간의 화해와 단합을 위한 그 어떤 움직임도 가차없이 탄압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악법을 그대로 두고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이룬다는 것 자체가 언어도단이 아닐수 없는 겁니다. 통일을 하재도 대화를 해야하고 의사소통을 해야하는건 자명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국보법은 남과 북의 사람들이 서로 만나기만해도 회합죄에 걸어 10년까지의 중형에 처하게 돼있습니다. 임수경, 문익환, 박용길, 정민주, 이혜정 등 수많은 방북인사들의 실례가 바로 그렇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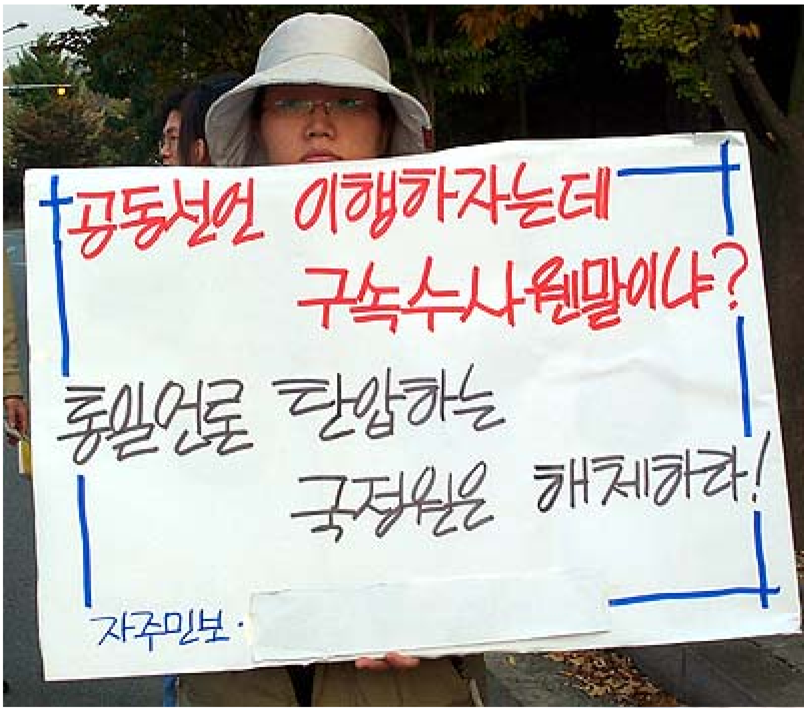
뿐만 아니라 국가보안법 제7조 1항에는 이북을 찬양고무 또는 동조하면서 북을 이롭게 한 사람은 중형에 처한다고 못박아 놓았는데 당국이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탄압하고 있는 한총련의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들이 미군철수, 국가보안법철폐, 연방제에 의한 통일을 주장하는건 7천만 겨레의 염원을 그대로 반영한 겁니다. 그들의 모든 통일투쟁은 애국충정의 일념에서 출발한 것이지 누구의 추동이나 조종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공안당국은 그들에게 친북, 이적세력, 폭력**세력이라는 딱지를 붙여 국보법에 걸어 야수적으로 탄압하고 있습니다.

제반 사실은 이땅의 반민주반통일악법인 국보법이 존재하는 한 민족의 화해와 통일은 언제가도 실현될수 없다는걸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방북단탄압사건을 계기로 국보법철폐의 당위성과 절박성은 더욱 부각되었다 하겠습니다.

각계민중들과 청년학생들은 겨레의 소원인 나라의 통일을 하루빨리 앞당기기 위해 국보법철폐투쟁의 파고를 더욱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네, 국가보안법철폐투쟁의 앞장에서 우리 청년학생들이 기수가 되어 온 민중의 힘을 하나로 모아야합니다.

≪월간 ≪자주민보≫ 이적 규정은 명백한 언론탄압≫



≪월간 ≪자주민보≫에 대한 압수수색과 이창기 발행인을 비롯한 3인의 연행은 명백한 언론탄압이다.≫

월간 자주민보는 오늘 벌어진 사건과 관련해 이와 같이 규정하고 오후 4시 내곡동에 있는 국가정보원 앞에서 규탄집회를 진행했다.

실천연대, 노래패 우리나라, 자통협,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 등 회원 30여명이 참여한 항의규탄집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한편에서는 연행자 3인에 대한 면회신청에 들어갔다.

월간 자주민보의 나풍자 기자에 의하면 23일 오전 9시경 이창기 발행인과 박준영 기자, 그리고 백운종(2달전 퇴사) 전 기자는 모두 집에서 연행됐고, 이때 가택수사와 함께 자주민보 사무실 압수수색이 동시에 이뤄졌다.

국정원이 제시한 영장의 혐의는 자주민보가 발행한 도서 ≪통일 참 쉽다≫, ≪조국과 민권≫, ≪어머니 여기도 조국입니다≫ 등의 이적 표현물 제작. 배포와 월간 자주민보 제작. 배포이다.

또한 국정원은 월간 자주민보가 주요 필자인 김명철≪군사전략가로 활동≫, 곽동의≪한통련 의장≫, 김윤순≪잡지 ≪새세대≫ 전 기자≫씨 등과의 원고 청탁 과정에서 주고받은 전화와 이메일을 문제삼아 회합통신죄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이 이창기 발행인을 제외한 두 사람을 연행자로 지목한 이유에 대해, 나풍자 기자는 퇴사전 자주민보 기자로 일했던 백운종씨를 자주민보 편집장으로 오인하고 있는 듯하고 박준영 기자의 경우는 원고 청탁 과정에서 주로 주요 필진들과 연락을 취한 것을 문제시한 것으로 추측했다.

또한 나풍자 기자는 국정원이 사무실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영장 혐의내용을 제대로 확인시켜주지 않은 상태로 압수된 물품들을 싣고 떠나려 해 한동안 자주민보 기자들과 주변 사람들이 실랑이를 벌였으며, 그런 연후에 연행된 3인에 대한 영장 혐의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당시 상황 설명을 했다.

나풍자 기자는 이어 자주민보의 이번 사건은 통일언론을 탄압하기 위한 빌미로서 명백한 언론탄압이라고 규정했다.

이의 근거로 국정원이 문제삼고 있는 ≪어머니 여기도 조국입니다≫라는 책은 이미 2년여 동안 유통돼 왔으며, 월간 자주민보 또한 합법적으로 유통돼 왔음을 한 예로 들었다.

이후 자주민보는 이 사건과 관련해 대책위를 구성해 연행자들이 석방되는 날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정원 앞에서의 항의규탄 집회는 연행자 3인에 대한 면회신청이 직계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되면서 오후 7시경까지 계속됐다.

항의규탄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통일을 위해 열심히 일한 자주민보를 이적 혐의로 규정한 것에 대해 강하게 규탄했으며 이에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철폐시켜야 한다는 결의의 발언들, 그리고 자주민보측의 전체 상황설명들이 있었다.

오후 9시 현재 월간 자주민보 관계자에 의하면 대책위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연오≪한총련 학부모 협의회≫ 대표와 김승교 변호사, 박준영 기자의 언니, 그리고 관련자 10여명은 가족접견은 하지 못하고 변호사 접견만을 했으며, 계속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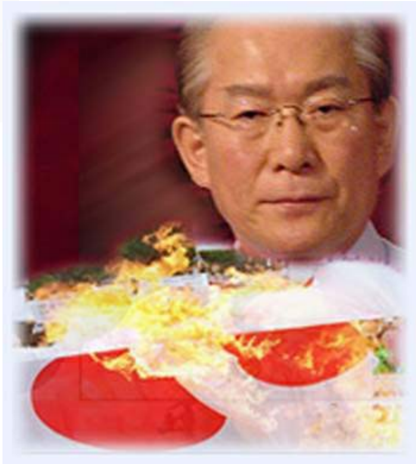
월간 자주민보는 작년 5월 창간 이전인 준비단계부터 국정원으로부터 계속 내사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송정미 기자(jmsong@tongilnews.com)
통일뉴스 2001-10-23



역적이 낳은 역적

서울시 종로구에 사는 차현수씨의 글 / 구국의 소리, 주체90(2001)년 18일~20일



독버섯 뿌리에서는 독버섯이 돋기 마련인데요. 친일친미주구인 애비의 넋을 이어받은 이회창이라 민족반역자, 매국노의 칭호를 ******다하겠습니다. 이런 자가 정치를 한답시고 야당 당수로 들어앉아 으시대고 있으니 참으로 가관이라 하겠죠. 네, 민족반역자 이회창애비의 행적을 살펴보는 얘기, 서울시 종로구에 사는 차현수씨의 글을 신은경씨 소개해 드리죠.

얼마전 나는 업무상관계로 자민련당사에 갔다가 우연하게 거기에서 발행되는 자민련보를 보게됐다. 낡은 자민련보를 뒤적거리던 나는 어느 한 기사에서 눈길을 멈추었다. ≪이회창을 검증한다≫는 제목의 기획기사는 이회창의 아들 병역면제와 애비의 친일행적 등을 제기하면서 이렇게 썼다.

부친 이홍규는 1929년 경성법전을 졸업하고 일제의 검찰청 서흥지청 사무원으로 일하다가 광복직후 광주지검 검사로 특명된 인물이다. 모 의원에 따르면 그는 광주에 거주할때 이회창의 집과 앞뒷집에 살았다고 하는데 이회창의 집은 일본어를 상용어로 사용했다고 한다. 또 부친이 일본옷을 입고 찍은 사진이 있다고 한다.

나는 무어라 말할수 없는 심정에 마음을 진정할수 없었다. 일제시기 이회창의 집에서 일본말을 일상대화로 했다는 것은 그저 넘겨지지 않았다. 당시 일제가 우리 민중의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고치게 하고 일본말을 사용할 것을 강요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했다. 극악한 친일파가 아니고서는 결코 자기의 모국어를 버릴수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회창의 집에서 일본말을 사용했다는 것은 그 애비부터가 철저한 친일파라는 것을 실증해준다.

그가 일본을 얼마나 우상화하고 숭배했으면 일본옷을 입고 사진까지 찍었겠는가. 그 치욕스러운 모습을 수치로 여길 대신 오히려 자랑거리로 여기고 사진을 찍었다고 하니 참으로 분격을 금할수 없다. 더욱이 일제검찰기관에 복무하면서 일제의 손과 발이 돼서 활약했으니 얼마나 많은 독립운동가들과 무고한 주민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으며 고문 당했겠는가. 독립운동에 나섰던 나의 아버님이 감옥에서의 고문후유증으로 3년을 넘기지 못하고 숨진 것이라든가 삼촌이 옥살이를 겪은 것도 다 이홍규때문일 것이다.

일제의 충실한 노복이였던 이회창의 애비 이홍규는 8.15광복후 제일 먼저 청산됐어야 할 친일파중의 친일파였다. 그러나 이홍규는 청산된 것이 아니라 이승만독재정권과 군사독재정권에 기생하면서 우리 민중의 자주, 민주, 통일운동을 탄압하는데 앞장섰고 그 공으로 훈장까지 받았다.

문제는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같은 이홍규가 미국침략자들의 총애를 받은 친미주구였다는 사실이다. 광복직후 미군정청의 문서인 ≪임명사령 제64호≫에는 이홍규를 아놀드 미군 소장에 의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 검사로 임명한다고 밝혀져 있다. 그후에도 이홍규가 미군의 충견이 되어 법조계의 고위직까지 올라가며 나라와 민족을 배반하는 역적질을 충실히 해온 것은 무엇보다 명백한 사실이다.

언젠가 이홍규의 묘지에 쇠말뚝이 꽂혀진 것은 어느 피해유족의 개인복수가 아닌 민족민중의 준엄한 심판이다. 그리고 보면 이홍규는 일제와 미제의 꼭같은 총애를 받고 친일친미사대의 매국행위로 일생동안 부귀영화를 누린 매국역적이다. 역적은 역적을 낳기 마련이다. 이회창은 바로 이홍규역적의 품에서 나온 또하나의 역적이다. 이회창은 애비의 사대매국적이고 민족반역적인 체질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하기에 그는 온 겨레, 온 인류가 지지환영하는 6.15공동선언을 반대부정하고 미국의 대북강경책에 쌍수를 들어 환영하며 남북대결논리만을 염불처럼 외우고 있다. 더욱 간과할수 없는 것은 이런 친미사대매국역적이 지금 대권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만약 이런 역적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 민중이 미국의 식민지노예로 더욱 전락되고 민족이 재난을 입으리라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이치이다. 백해무익한 이회창을 드러내야 민중이 살고 민족이 산다.

나는 이회창을 정치권에서 축출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강도높게 벌여야 할 것이라는 마음 더욱 굳히며 그곳을 떠났다.





≪이 총재 민족일보 사건 입장 밝혀야≫

≪인터뷰≫ 김자동 민족일보사건 진상규명위원장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는 판사 초년병 때 차출되어 말석에서 ≪민족일보≫ 조용수 선생의 판결에 참여했다. 당시 젊은 판사로 부득이한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잘못은 잘못이다. 판결을 잘못했다고 본다면 판사 옷을 벗었어야 했다. 그렇게 하지 않았기에 ≪대쪽≫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는 ≪≪민족일보≫사건 진상규명위원회≫ 김자동≪74≫ 위원장이 지난 13일 진주를 찾아 한 말이다. 김 위원장은 ≪고 조용수 선생의 삶과 죽음의 진실 밝히기 작업을 하면서, 그의 고향을 찾아 보아야 한다고 생각해 진주를 방문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번 김 위원장의 진주 방문에는 조용수 선생의 동생인 조용준≪69≫ 씨가 동행했다.

김자동 위원장은 이회창 총재와 관련한 이야기를 계속했다. ≪이회창 총재와 한나라당이 ≪민족일보≫ 사건과 관련하여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 듣기로는 이회창 총재가 사석에서 기자들에게 말을 한 것으로 알지만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없었다. 이 총재는 당당하고 솔직하게 자신의 과거 잘못을 인정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민족일보 사건은 올해 초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국민적인 관심이 다시 모아졌다. 올해 2월 15일 국회에서 자민련 송석찬 의원이 질문을 통해, 이회창 총재의 판사 시절 행적을 거론하며 정계 은퇴까지 거론해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당시 송 의원은 ≪이회창 총재는 지난 61년 8월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의 언론말살사건인 ≪민족일보≫ 사건의 담당 판사로서 반민주 악법의 칼날을 휘둘러 조용수 사장을 반국가단체 동조혐의로 사형시키는 등 수많은 인사들을 처벌함으로써 언론 말살과 인권 탄압에 앞장섰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한나라당 대변인실은 ≪≪민족일보≫ 판결 사건을 시비 걸고 과거정권 체제에서의 법관생활까지 걸다니 참으로 어이가 없다≫는 내용의 논평을 냈고,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은 ≪과거의 용공행위가 애국행위로 둔갑했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 이같은 논란이 일자 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이 무슨 망발인가. ≪민족일보≫를 봤다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가≫라며 한나라당 대변인실과 일부 의원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다음은 지난 13일 진주를 방문한 김자동 위원장과 나눈 대화 내용이다.

– <민족일보> 사건에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누구라고 보는가?

≪≪민족일보≫ 사건을 주도한 세력은 5·16 쿠데타 세력이다. 특히 당시 중앙정보부장을 지낸 김종필 현 자민련 총재다. 김 총재는 이 사건에 매우 깊숙히 개입했다. 또 당시의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 자민련 김종필 총재와 당시 재판을 맡았던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현재까지 우리나라 정치를 이끌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는가?

≪61년 일어난 사건이지만 국민들은 완전히 잘못된 일로 여기고 있다. 당시 사건에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현재까지 건재해 있으니 유감이다.≫

– ≪민족일보≫ 사건은 내년 대통령선거 때도 논란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진실을 밝히는 작업이 중요하다. 어느 정치권에 편들어서도 안되고, 어느 정치 세력과 관계 없이 진실은 밝혀져야 하기에 계속 진상규명을 밝히는 노력을 할 것이다.≫

– 일부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는 심심찮게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까지 국회 대정부 질문 등을 통해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지금까지 송석찬 안동선 설훈 의원이 공식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안다. 진실이 밝혀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

– 국회에 대해 진상 규명과 관련한 일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아직 국회에는 공식적으로 제기한 것은 없다. 민주당과 한나라






民族日報

1961年 2月13日 (月曜日) 創刊號

經濟自立性을 冒瀆侵害

政局의 關心「經協」對政府質疑戰에

批准同意與否의 판가리

張內閣運命건 重大한外交論爭

創刊辭

우리는 少數의 利益이 아니라

多數의 利益을 爲해 奉仕한다

당에 ≪민족일보≫사건 재침 청구를 위한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 ≪민족일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은 언제쯤 깨끗하게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는가?

≪프랑스 드레퓌스 사건은 100년이 지나 법적 조치가 내려지면서 진실이 밝혀졌다. ≪민족일보≫ 사건이 일어난 지 올해로 꼭 40년이다. 현재도 사회적 분위기가 되었다고 보지만, 시간을 갖고 차근차근 진실을 밝혀 나갈 것이다.≫

– ≪민족일보≫ 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를 한다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지?

≪사회적 분위기는 조성되어 있다고 본다. 언론≪MBC–이제는 말할 수 있다≫에서 계속 다루고 있다. 하지만 현재 대법관들을 볼 때 역사적 사건에 대한 판결을 제대로 할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국가보안법이 엄연히 존재해 있는 상황에서는 다소 어렵게 될 측면도 있다.≫

– ≪민족일보≫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해 계획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올해로 조용수 선생이 처형 당한 지 꼭 40년이 된다. 오는 12월 8일 조용수 선생 추모 학술강연회를 할 계획이다. 역사와 언론 학자들과 섭외를 하고 있다. 학술계에서 비중 있는 학자들을 참여시킬 것이다. 그리고 재심청구를 하더라도 비중 있는 변호사들과 함께 추진할 것이다.≫

– 사건 진상 규명과 관련하여 진주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진주신문≫에서 여러 차례 보도해주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것으로 여긴다. 지난해 재심청구를 위한 진정서를 낼 때 진주의 몇몇 인사들이 서명을 해주었는데, 너무나 고마웠다. 올해 12월에 할 추모학술강연회나 각종 진상규명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한다. 현재 위원회는 15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진주지역 인사들도 많이 참여하기를 바란다.≫

윤성효 기자 cjnews@thrunet.com
2001/02/15 ⓒ 2001 OhmyNews

민족일보 사건이란

민족일보 사건이란 1960년 5.16혁명 직후 군부가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 1961년 2월 창간한 민족일보에 대해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제6조를 적용, 반국가단체에 고무 · 동조했다는 혐의를 적용, 5.16쿠테타 1호로 구속하여 결국 발행인인 조용수 사장에게 사형을 확정 집행한 사건이다.

민족일보는 4.19혁명으로 진보의 물결과 보수의 파장이 교차되던 때에 민족정론지로 태어났으나 예상 못한 군부쿠테타로 인해 92호로써 폭력적인 종막을 고한 신문이다. 변혁의 시기에 민족민주언론의 참담한 시련의 대표적 상징으로 기록돼있다. 또한 반국가단체에 동조혐의를 적용한 것은 적법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당시 국제신문편집협회≪IPI≫, 재일조선언론출판인협회, 조국평화통일남북문화교류촉진재일문화회의, 오사카지방일본인유지, 명치대 유학생 및 교수 각계 언론 및 사회단체들은 항의성명을 내고 구명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기도 했다.

당시 혁명재판심판부 구성은 재판장 김홍규≪육군대령≫, 법무사 강현태≪해군대위≫, 심판관 유원종≪육군대위≫, 심판관 이회창≪판사≫, 심판관 차영조≪변호사≫였으며, 검찰관은 오재옥≪중령≫, 변호인은 강신옥이었다.

≪정치 불신의 콘크리트를 깨자≫ ≪당신 아이가 살만한 세상은?≫

구로을 민주노동당 정종권-사회당 김향미 후보

10월 18일 오전 9시. 구로을 재보선 기호4번 민주노동당 정종권 ≪34≫후보 사무실은 시끌벅적했다. 막 아침유세를 마치고 온 선거 운동원들이 삼삼오오 둘러앉아 아침을 먹고 있었고, 한 쪽에서는 일정 확인에 정신이 없었다.

10월 25일을 며칠 남겨두지 않은 분위기는 이후 진행된 아침 조회 시간에 잘 나타나 있었다.

선본 사무장 : ≪앞으로 점심 식사는 유권자들 식사시간을 피해서 오후 1시 30분에 합니다. 가급적 점심식사는 많이 드십시오. 그리고 저녁식사는 밤 9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식사를 밤9시에 하라는, 그렇기 때문에 점심 식사는 많이 먹으라는 잔인한 주문에도 이의를 제기하는 운동원은 없었다. 그 만큼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고, 만나야할 유권자는 아직 많았다.

저녁 식사는 밤 9시



-분위기는 어떤가.

≪구로을 전직 국회의원인 한광옥 씨는 자리를 떴고, 장영신 씨는 불법선거로 자리를 내놓았기 때문에 정치 불신이 크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뜨지 않고 있다. 반면 선본 분위기는 아주 좋다.≫

-하루를 어떻게 보내나.

≪아침에는 인근 지하철역을 다니면서 출근하는 직장인들을 만난다. 선거 초기에는 주로 상가를 돌았는데, 요즘은 주택가를 돌고 있다. 하루 일정을 마치면 대략 자정쯤 된다.≫

-공약을 보니 지금까지 민주노동당이 주장했던 정책공약과 많이 겹친다. 상대적으로 지역공약은 취약하고.

≪구로 지역 주민 70%가 노동자다. 노동자들 주머니가 두툼해져야 시장이 잘되고 그래야 서민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 직장이 불안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고용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서민경제 개선을 위해 조세정의나 이자제한법 부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내걸고 있다. 높은 빌딩만 생긴다고 지역경제가 발전하는 건 아니다.≫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민주당 강세지역인데.

≪지난 대선에서 18%나 민주당이 앞설 정도로 민주당 정서가 강한 지역이다. 원적지를 근거로 살펴보면 전라도가 30%이상이다. 그런데 돌아 다녀보면 민주당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서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다.≫

정종권 후보의 구로와의 인연은 198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87년 구로구청 부정투표함 사건 당시 정종권 후보는 대학교 새내기였지만 투표함을 지키다 경찰에 끌려갔다. 그리고 1991년 구로 노동자문화교실을 시작으로 구로 지역과 질긴 인연을 이어왔다. 물론 98년 이후 잠시 구로를 떠나 외도를 경험했지만 말이다.

-구로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

≪청년운동을 고민하면서 구체적인 현장인 지역에서의 활동을 고민했다. 구로 지역이 노동현장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곳에서 활동하게 됐다.≫

-민주노동당 구로을 후보선출과정에서 잡음이 있었다고 들었다.

≪이번 재보선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는 당의 방침과 구로 지역의 현실적 여건 속에서 논란이 있었던 건 사실이다. 그래서 후보선출이 9월 23일에야 겨우 확정됐다. 선거 준비가 늦었지만 지금은 무리 없

이 선거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기존 정당들에 비해 어려움이 많을텐데.
≪보수정치 50년의 불평등이 하루아침에 개선되리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그러나 재보선 선거 투표율을 높이는 방법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재보선은 공휴일에 투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불가능하다면 직장인들을 위해 밤9시까지 투표 시간을 연장해야 한다. 이 내용을 제안했는데 선관위에서 받아들일지 모르겠다.≫

-출마한 후보들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민주노동당과 사회당 후보만 빼놓고 모두 3번 이상 출마경력이 있는 베테랑들이다. 그런데 1차 합동유세를 보고 좀 실망했다. 한나라당 이승철 후보는 새≪철새≫타령만 하고 민주당 김한길 후보는 학력위조 이야기에다 유세 2/3가 마누라인 최명길 자랑이더라.≫

오래된 구로와의 인연

-민주노동당과 사회당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개인적으로는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당이 굳이 선을 그어야 한다고 하니 그 부분은 그 쪽이 해명할 부분이다. 밖에서 보면 사회당은 설득보다는 선언이 앞서는 감이 없지 않다.≫

-민주노동당의 다양한 스펙트럼이 당 운영에 걸림돌로 작용하지는 않나.
≪진보적인 대중정당에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이를 대가족에 비유하고 싶다. 가족이란 단위 안에 가장도 있고, 삼촌도 있고, 조카도 있다. 하는 일도 다르고, 조금씩 생각이 다를 수 있다. 물론 다가구 주택이 돼서는 곤란하다. 따라서 서로의 세계관을 존중하면서 어떻게 리더쉽을 창출할 수 있는가가 과제이지 다양한 스펙트럼이 문제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정종권 후보는 오전 10시 30분부터 구로 시장 구석구석을 훑기 시작했다.
≪서울대 출신이지만 출세길 포기하고 현장에서 노동자들과 함께 한 후보입니다. 이 사람은 철새도 아니고, 가짜도 아닙니다. 젊은 후보가 꼭 바꾸겠습니다.≫
당에서는 나온 천영세 사무총장, 최규엽 자주통일위원장, 정성희 안양지구당 위원장 등이 거리 유세를 함께 했다. 그러나 구로 시장 상인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국회의원 맨날 싸움만 하지 않느냐. 편안하게 앉아서 돈 벌고...≫
≪그놈이 그 놈이다. 찍어줄 때뿐이다.≫

-하루에 몇 명 정도 만나나.
≪요즘은 출퇴근 시간에만 1000명 정도의 유권자를 만난다. 출퇴근 시간 이외에 시장 상인들을 만나면 5분 이상 이야기하면서 민주노동당에 대해 알리려고 노력한다.≫

-선거자금 마련이 쉽지 않았을 텐데. 1500만원 선거기탁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후보 난립을 막아야 한다면 돈으로 제한을 두지 말고 다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추천인수 강화 등이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돈으로 참정권을 제한하는 건 19세기 영국 귀족들에게만 투표권을 준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대학을 나온 나야 친구들과 당에서 도와줘서 돈을 마련했지만 고졸 출신 노동자가 마련하기엔 1500만원은 너무 과한 금액이다.≫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정치 불신의 콘크리트가 너무 두껍다. 말로 될 성질이 아니지만 한 명의 노동자 후보가 273명과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불신의 콘크리트가 무너질 수 있도록 하겠다. 선거 이후까지 꼭 지켜봐 달라고 말하고 싶다.≫

-득표 전략은.
≪목표를 두가지로 잡았다. 하나는 민주노동당 고정표를 통해 향후 구로 지구당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지지기반을 만드는 것이고, 하나는 의미 있는 득표를 기록하는 일이다. 최대 두자리수 득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얼마전 구로을에서는 돈 봉투 사건이 있었다. 민주당 운동원이 돈을 줬다고 한나라당이 경찰에 신고한 것.
≪돈을 준 쪽에서는 칠순잔치 축의금이라고 하고, 받은 쪽에서는 계돈이라고 하니 알 수 없는 일이다. 며칠 전 자민련 사무실에서 아줌마들



이 줄지어 라면 한 박스씩 들고 나오는 것도 목격했다.≫

정종권 후보는 마음을 비웠다. 그는 스스로를 자신이 하고 싶은 일보다는 무엇을 해야하느냐는 객관적 요구에 따라 움직이는 유형이라고 설명했다. 운동판에서 선거에 나간다는 건 총대를 메는 일이지만 어차피 본인이 해야할 일, 그는 출마 결정은 늦었지만 누구보다 빨리 현실에 적응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정종권 후보가 내뱉는 마지막 말이 더 힘있게 들렸다.

≪보수정당에 빼앗긴 노동자와 서민들의 영혼을 찾아오는 선거, 이놈은 저 놈들과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선거를 만들겠다.≫

온 가족 총출동 선거운동

오전 5시 기상. 10월 18일도 어김없이 허리에 '만보기'를 차고 구로을 재보선 기호5번 사회당 김향미≪32≫ 후보는 집을 나선다. 오전 6시부터 7시까지 아침운동 나온 유권자들과의 만남. 대림역 출근 인사. 여성인력센터 방문.

요즘 김향미 후보 만보기에는 3만 이상의 숫자가 찍힌다. 선거 일주일을 앞둔 요즘 김향미 후보는 하루 3만 5000보 이상을 걷는다.

18일 오후12시 30분 구로동 태영 아파트. 두 대의 차에서 어깨띠를 맨 10여명의 운동원이 내렸다. 그 운동원 중에는 김향미 후보의 어머니 정옥순≪66≫ 씨가 있었다. 어머니 뿐 아니다. 남편, 셋째언니, 이모. 온 가족이 총출동이다. 이날 김 후보의 아버지는 일 때문에 나오지 못했지만 평소에는 아버지도 열성 선거운동원이다.

≪맨 처음에는 밤 새워 뜯어 말렸어. 그러나 지금은 달라. 딸이 하는 일이 옳은 것 같거든. 내가 지지하는 당이 있었는데 이제는 사회당으로 바꿨어. 돌아다녀보니 아주 반응이 좋아. 아마 1인 2투표제가 되면 사회당이 잘 될 것 같아.≫

자칭 신세대라는 김향미 후보 어머니 정옥순 씨는 나이에 걸맞지 않게 1인2 투표제를 주장할 만큼 정치에 관심 많은 운동권 엄마로 바뀌어 있었다.

-'당신의 아이를 위해 사회당에 투표하십시오'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여성후보로서 이런 사회에 살고 싶다는 직접적인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당신 아이가 살 미래의 세상을 바꾸자는 의미다. 자기 직업을 물려주기 싫어하는 나라 1위가 우리나라 아닌가. 당당한 부모가 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는 뜻에서 '당신의 아이를 위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유권자들 반응은 어떤가.

≪아주 좋다. 여자가 더 깨끗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 젊은 아줌마들 반응이 특별하다. 자기는 이렇게 사는데 참 보기 좋다는 이야기도 하고, 대단하다는 이야기도 하고. 여성들이 정치나 사회전반에 목소리를 내야 바뀌지 않겠느냐는데 공감을 많이 한다.≫

-구로을은 특히 정치 불신이 심한 것 같다.

≪이 지역 유권자들은 처음 선거 운동할 때 손을 내밀면 손을 딱 뿌리치면서 정치도 싫고, 정치인은 더 싫다는 거부 반응을 보였다. 지금 손을 내밀면 좀 달라지긴 했지만 정치 불신은 여전하다.≫



-사회당 존재를 잘 아느냐.

≪거의 모른다. 예전에 최혁 전 대표가 보궐선거에 출마했고, 4.13 총선에서도 후보가 나왔으니까 청년진보당이 당명을 바꿨다고 하면 그 때서야 열에 한두명 아는 정도다. 한국에 사회당이 있었느냐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다.≫

-어떤 공약을 내걸었나.

≪정리해고제와 비정규직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보복전쟁 지원 및 파병에도 반대 입장이다. 이 밖에 국가보안법와 호주제 폐지, 정당명부식 완전 비례대표제 도입, 예비군제도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오후 1시 김향미 후보가 태영아파트 부녀회 사무실에 들어서자 부녀회장 이현자 씨는 지역 현안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부녀회장 : ≪교통이 너무 불편하다. 길 내준다고 약속해 놓고 왜 이제 와서 안 해주는지 모르겠다. 지역 현안문제 좀 꼭 해결해 달라. 구청에서 약속하고 지키지도 않는다.≫

김향미 후보 : ≪유세 다니면서 우리도 불편함을 많이 느낀다. 이쪽으로는 버스노선도 부족해 주민들이 많이 불편할 것 같다.≫

-지역공약에 대한 요구가 높다.

≪구청이 할일 아닌가. 유권자들은 구청이 해야할 일과 국회의원이 해야할 일의 차이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 국회의원들이 그러면서도 공약을 내걸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그것을 국회의원이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썩은 정치, 절반의 책임은 유권자에게

−선거 목표는.

≪지난 보궐선거에서 최혁 전 대표는 4.2%, 4.13 총선에서는 3.7%의 지지를 얻었다. 90%가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간다고 봤을 때 나머지 정당이 10%를 놓고 각축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10% 중에서 절반인 5%를 얻는 게 목표다. 그리고 선거라는 열린 공간에서 사회당의 인지도를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존 정치권 풍토를 바꿔나갈 것이다. 유인물에도 밝혔지만 썩은 정치, 부패의 정치의 절반의 책임은 유권자에게 있다. 투표율을 높이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사회당이 지역에 뿌리내리는 운동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후 계속 구로을에서 활동할 의향이 있는지.

≪사회당이 하기 싫어서 하지 않은 게 아니다. 역량의 한계 때문에 생긴 문제다. 보수당은 지구당 사무실이 있어도 일상활동을 진행하지 못하지만 앞으로 우리는 지구당 활동을 통해 일상 활동도 진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꼭 내가 그 일을 맡겠다고는 장담할 수 없다.≫

−정종권 후보는 사회당이 설득보다는 선언이 앞서는 당이라고 평가했는데.

≪설득과 선언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논의라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인가를 밝히는 것이 선언이고, 구체화 작업이 설득이다. 선언과 설득, 어느 쪽을 먼저 하느냐는 각자의 방식에 따라 다르다. 두괄식이냐, 미괄식이냐의 차이다. 아직 사회당은 커나가는 당이기 때문에 구체화시키는 과정에 서 있다고 본다.≫

김향미 후보는 점심을 먹으면서 유세기간 중 에피소드를 소개했다.

≪이틀 전≪16일≫인가 구로병원 쪽에 거리유세를 나간 적이 있다. 그 동네 미용실에 들어가 ≪5번 김향미 입니다≫라고 인사를 했더니 50대 아주머니 한 분이 머리하다 말고 지난 일요일 합동유세 너무너무 잘 들었다면서 유세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꿈까지 꿨다는 이야기를 했다. 참 힘이 나고 기분이 좋았다.≫

김향미 후보는 여자라서 좋은 점이 훨씬 많다고 설명했다.

≪약국에서 만난 남자 약사 한 분은 ≪남자보다 여자가 정치를 깨끗하게 잘할 수 있다≫면서 여자 국회의원이 전체의 50%가 돼야 한다고 하더라. 여자라서 힘들거나 어렵다기 보다는 격려해 주시는 분들이 많다.≫

−선거를 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가장 큰 어려움은 언론 때문에 생기는 것 같다.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발로 열심히 뛰지만 우리는 발로 100을 뛰면 50만큼의 효과만 나타난다. 그러나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은 언론덕분에 50만 뛰어도 150이상의 효과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정이다. 우리야 모두 선거운동원이 자원봉사자들이기 때문에 상시적인 가동인원은 30명쯤 된다. 기존 정당들이야 돈으로 선거운동원들을 늘릴 수 있지만 우리는 어렵다. 선거비용으로 선거기탁금 1500만원, 홍보물비 1500만원, 밥값 1000만원, 부대비용 1000만원 등 총 5000여만원을 책정해 두었다. 최소비용도 이만큼 든다.≫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과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50년 동안 축적된 보수정치, 한번도 바뀌지 않은 정치를 심판한다는 의미가 크다. 부패한 정치에 희망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 선거는 축제의 장이 돼야 한다. 선거를 통해 누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을지 유권자와 함께 고민하고 머리를 맞대고 토론해야 하지 않겠는가.≫

김향미 후보는 목사의 딸이다. 이 때문에 대학교 시절 한국기독청년학생연합에서 활동하기도 했었다. ≪종교가 민중의 아편이다≫라는 세미나를 받고 고민했다는 그는 지금 운동과 종교인으로서의 삶이 전혀 배치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조직하는 삶, 함께 하는 삶을 그는 종교에서 배웠기 때문이다. 중학교 시절 판잣집이 즐비한 시흥2동에 살면서 ≪왜 저렇게 큰 가방을 메고 일하러 가는 아저씨들이 못살까≫라는 생각을 해봤다는 그는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과 호흡하면서 그 답을 찾아가는 중이다.

그는 선거가 끝나면 아이를 가질 계획을 가지고 있다. 애초 예정대로 라면 진작 임신을 했겠지만 이번 재보선 때문에 잠시 그 시기를 늦췄다. 유권자들에게는 ≪당신의 아이를 위해≫에 사회당에 투표하라고 유세하는 김향미 후보지만 앞으로 태어날 자신의 아이를 위해서도 그의 발걸음은 더욱 빨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축제의 장 선거를 꿈꾸며 유권자들과 함께 살만한 세상을 고민하는 김향미 후보에게 구로 을 유권자들이 얼마만큼 지지를 보내줄지 결과가 자못 궁금하다.

박수원 기자 won@ohmynews.com

≪장사 잘 되세요? 살기 힘드시죠≫ ≪여자들도 살맛나는 세상 만들자≫

동대문을 민주노동당 장화식 - 사회당 김숙이 후보

≪노동자 · 서민의 친구≫

10월 10일 오후 12시. 동대문을 재선거 기호 3번 민주노동당 장화식≪38≫ 후보 사무실에 들어서자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은 선거 슬로건이었다.

사무실 중앙에 붙어있는 지역구 대형 지도와 D-15 문구는 선거가 이미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20여명의 선거운동원들은 유세 피켓을 만들거나 일정을 점거하면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민주노동당 대변인실에서 파견나와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공태윤씨는 ≪선거 첫날이라 아직 정신이 없다≫며 장화식 후보의 정책과 약력이 담긴 보도 자료를 내밀었다.

오후 12시 30분. 큰 우산을 쓰고 시장을 돌면서 상인들을 만나고 있는 장화식 후보를 만날 수 있었다. 상인들 중 몇몇은 ≪또 오셨네요≫라며 반갑게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난 386세대가 아닌 현장세대≫



- 요즘 하루 일과가 어떻게 진행되나.

≪오전 5시 30분에 일어나 주민들과 함께 운동하고 출퇴근 시간에는 지하철에서 인사하고 아침과 낮에는 아파트, 시장, 상가를 돌며 지역주민들을 만나고 있다. 대략 밤12시쯤 일정이 끝난다.≫

- 허인회 후보 쪽에서 정책연합을 제시했다고 들었는데.

≪공식적으로 이야기 한 적은 한번도 없었다. 지나가는 소리로 정책연합을 슬쩍 내비친 적은 있다고 들었지만.≫

- 동대문을 재선거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이번 재선거는 김대중 정부 3년 반의 실정을 평가하는 자리다. 국민의 정부 속에서 노동자와 서민들이 얼마나 살기 어려워졌는지 그래서 정치가 어떻게 바뀌야 하는지를 말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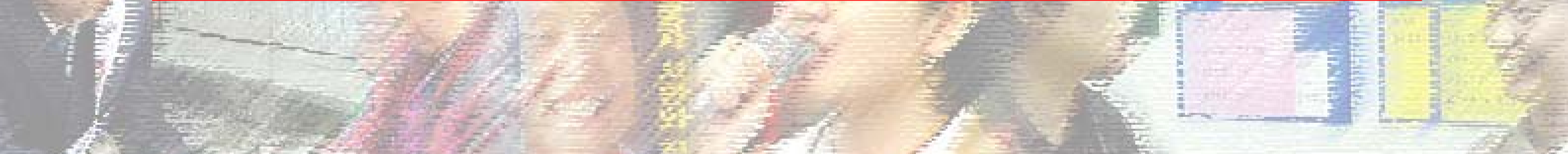
장화식 후보는 7월에 이미 민주노동당 동대문을 후보로 내정됐다. 그래서 그런지 벌써 두세차례 지역을 돌면서 주민들과 인사를 나눴다. 유난히 영세자영업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 장화식 후보의 선거운동은 가게를 돌면서 유권자들과 만나는 대면접촉이 주를 이룬다. ≪요즘 장사 잘 되세요. 살기 힘드시죠≫가 상인들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첫마디다.

- 선거 분위기는 어떤가.

≪보시다시피 아주 좋다.≪웃으면서≫ 지금 분위기 같으면 당선도 가능할 것 같다. 시장과 상가들 돌면서 주민들 만나보면 느낌이 온다. 아파트 지역이 취약해서 걱정이 되긴 하지만...≫

- 어떤 정책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을 만날 계획인지 궁금하다.

≪노동자들 고용안정을 위해 대책 없는 정리해고를 없애는 ≪고용안정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고, 상가임대차 보호법 입법화와 이자 제한법 부활, 근로소득세 인하 등 노동자와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어려움을 해결해줄 수 있는 정책들을 가지고 나왔다.≫

– 지역 공약이 없다.
≪지역 공약이라는 게 부자들만 잘 살기 위해 필요한 것 아니냐. 의미 없는 공약이다.≫

– 각 후보들에 대해 평가를 한다면.
≪홍준표 씨는 모래시계 검사 이미지가 강하다. 그리고 허인회 씨는 이미지가 많이 바뀌어서 헷갈린다. 삼민투 의장이라는 이름으로 버텨왔지만 몇 년 전에는 벤처 사장으로 보이려고 노력했다. 이번에는 ≪지역1등론≫을 내세우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로 많이 노력하는 후보라는 생각이 든다. 김숙이 사회당 후보는 이번 선거하면서 처음 봤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다.≫

– 허인회 후보는 대학교 1년 후배다. 선거에 돌입하기 전 출마포기를 권유하기도 했는데.
≪지역 주민들 만나보면 386후보냐고 묻는다. 386세대, 광주 가서 술 먹고 개판 치고 대통령 앞에서 넙죽 절이나 하는 사람들 아니냐. 386이미지가 전체적으로 나빠졌다. 동대문을 선거만 해도 그렇다. 정치권이 잘못해서 재선거한다. 유권자들도 다 알고 있다. 허인회 후보의 경우 위장전입으로 잘못을 했기 때문에 자기 반성 차원에서 선거에 나오지 않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했던 거다.≫

– 본인은 386세대가 아니라고 생각하나.
≪386세대는 조작된 이미지다. 80년대 대학교를 다니면서 고민했던 사람들은 노동운동이나 시민운동의 현장으로 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386세대가 아니라 현장세대다.≫

멸치 공장 다녀오는 아줌마들

– 사회당과 왜 함께 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다.
≪내가 허인회 후보와 함께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유다. 진보정치의 힘을 키운다는 측면에서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억지로 합치자는 건 힘센 자의 폭력이다.≫

식사를 하기 위해서 식당을 들어서려는 데 대여섯 명의 아주머니들이 멸치상자를 들고 길을 지나가다가 장화식 후보를 만났다. 장화식 후보가 ≪어디 멸치공장에 다녀오십니까≫하고 묻자 아주머니 몇몇은 도망치듯 자리를 피했다.

– 선거운동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기본적으로 선거가 돈 쓰는 구조로 돼 있다. 우리는 발로 뛰어다니기는 하지만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은 음식대접하고, 관광버스로 모아서 여행시켜주고 경품 나눠준다. 멸치 상자 한 박스씩 받아서 지나는 사람들은 어디서 멸치상자를 받아오는지 불가사의다. 그런 것은 제지하지 않으면서 선거법으로는 명함도 돌리지 못하도록 돼 있다. 주민들과 만나는 기회를 사전에 봉쇄 당한다는 느낌이다.≫

– 과거에는 안산공단에서 노동운동을 했고, 현재는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왜 노동운동을 시작했나.
≪농촌 출신이다. 대학교에 들어가서 누구나 그렇듯 고민을 했다. 그 과정에서 세상을 바꾸는 주된 힘이 노동자라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안산에 있는 우신전자에 들어가 노조를 만들었고 해고당했다. 학교 졸업하고는 외환카드에 입사해 자연스럽게 사무직 노조운동을 하게 됐다.≫

– 어떤 정치인이 되겠다는 포부가 있나.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이 잡히지 않는다. 눈앞에 있는 서민들은 살기가 힘들고, 정치인들은 썩었다는 사실을 알려내기도 벅차다. 큰 바위 얼굴은 찾는다고 찾아지는 게 아니듯 스스로 큰 바위 얼굴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일하고 싶다.≫

장화식 후보가 만났던 떡볶기 집 주인은 ≪선거 때만 이렇게 찾아오지 말고 정말 서민들 어려움 해결하는 정치인이 돼 달라≫고 신신당부했다. 장화식 후보는 요즘 하루 600여명이 넘는 지역주민들 손을 잡는다. 장화식 후보가 친구라고 내세운 노동자와 서민들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동대문을 선거의 변수가 바로 여기에 있다.

≪밥상 니가 한번 차려봐라≫

재보선이 진행되는 동대문을 지역을 다니면 조금은 선정적인 문구를 곳곳에서 만나게 된다.
≪밥상 니가 한번 차려 봐라, 제사상 남자들이 차려봐라.≫
동대문을 재보선 기호 4번 사회당 김숙이≪31≫ 후보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다. 그래서 그가 내건 선거 구호도 '여성해방'이다. 슬로건도 과격하다.
≪한판 붙자! 남자세상≫
김숙이 후보가 인사하면 남자인 양명철 수행비서가 후보인 줄 착각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유권자들에게 여자 후보는 아직 생소하다.
사회당 김숙이 후보 사무실은 시끌벅적하다. 운동원들은 대부분 20대. 그래서 이들의 선거운동 방식은 특별하다. 김숙이 후보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 MBC여성시대 음악에 맞춰 로고송이 흘러나오고 율동이 따라붙는다.

– 분위기는 어떤가.
≪좋다. 젊은 여성이 후보로 나왔다는데 상당히 관심을 보인다.≫



– 9일에는 선거 기탁금 폐지를 주장하면서 기탁금 1500만원을 요강에 넣어 구청을 찾아갔었는데.

≪선거기탁금을 대폭 낮춰야 한다. 선거 기탁금 2000만원은 위헌이고 1500만원은 괜찮다는 건 정치를 돈으로 하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다. 1500만원 기탁금은 있는 사람들에게는 얼마 안 되는 돈일지 모르지만 노동자, 서민들에게는 엄청난 액수다. 국민 참정권 제한이다.≫

– ≪여성해방≫구호를 내건 이유는.

≪누군가는 진작에 이야기했어야 할 주제였다. 한국사회에 바꿔야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는 여성차별을 없애는 일이다. 여성들이 이제 공식적인 자리에서 해방을 선언해야 할 시점이다. 많은 여자들이 아들 못 낳은 설움, 매맞는 설움에 시달리고 있다. 이들의 이해와 요구를 모아 정치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너무 남자들을 적대시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이야기도 듣는다. 하지만 돈과 권력을 가지고 남성들이 만들어낸 한국정치 50년을 한번 돌아봐라, 제대로 된 게 있는지. 이런 부패정치를 바꿔 깨끗한 정치를 통해 여자가 살맛나는 세상, 아이들이 살만한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지 남자들과 맞서자는 의미는 아니다.≫

김숙이 후보와 사회당 당원들은 선거운동을 시작하기 전 장안평역과 전농 사거리에서 호주제 폐지를 위한 1인 시위와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김 후보를 비롯한 사회당원들이 1인 시위를 하면 매일 와서 욕을 하고 가는 사람이 있었다. ≪미친××≫. 그 사람은 아저씨가 아니라 아줌마였다. 물론 관심을 보이고 격려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1인 시위하는 당사자들은 왠지 씁쓸했다.

어쨌든 김숙이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여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를 많이 만들어 볼 작정이다. 추석을 앞두고는 아줌마들과 ≪접시를 깨자≫는 이벤트를 벌였다. 한가위를 앞두고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아줌마들은 깨뜨릴 접시에 남편 이름을 적기도 하고 ≪얄미운 시누이≫를 적기도 했다.

– 핵심 공약으로 호주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어제≪9일≫ 어떤 여성분을 만났는데 동생이 아이를 키우는데 호적에 못 올린다고 걱정을 많이 하셨다. 그러면서 호주제가 정말 폐지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 수많은 여자아이들이 세상에 빛도 보기 전에 낙태 당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호주제 때문이다.≫

– 구체적인 공약은 무엇인가.

≪호주제 폐지 이외에도 전업 주부의 가사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 인정, 육아비용 사회분담, 주요공직에 여성비율 50% 의무화, 가정폭력 방지법 현실화를 내걸었다. 영세자영업자가 많은 이 지역에서는 남성들의 여성폭력이 일상화돼 있다.≫

– 민주노동당과 차별점이 불분명하다.

≪유권자들은 관심 없는 이야기다. 오히려 여자가 후보로 나왔다는데 더 관심을 보여준다. 민주노동당은 여성후보가 나올 수 없다. 그게 가장 큰 차이다.≫

– 지난 선거에서 청년진보당이 서울 전지역에 출마했지만 이후 지역에서의 활동으로 연결시키지 못했다. 이벤트성 운동이었다는 비판도 있다.

≪서울 전지역 출마는 당시 우익 사회에서 우리의 요구를 알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선택했다. 현재는 서울에 모두 지구당을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나름대로 전국 곳곳에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 선거가 끝나도 이 지역에서 활동할 계획인가.

≪여성문제를 제기하는 데 꼭 어떤 지역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여성의 현실을 알려낼 수 있는 활동이라면 어디에서 일하든 무방하다고 본다.≫

– 4.13 선거에도 출마했었다. 지난 선거와 좀 차이가 있나.

≪4.13 총선 당시에는 지역구에 몇 번 가보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지역주민들을 만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다. 그게 가장 큰 차이다.≫

≪동창 선거는 학교가서 해라≫

– 지역공약이 없는데.
≪지역주민이라는 것도 정체성이지만 여성이라는 것도 중요한 정체성이다. 여성문제는 지역에 살고 있는 여성들이 피부로 느끼는 절실한 일들이다.≫

– 이번 재보선에서 목표는.
≪≪웃으면서≫당선이 목표지만 최소한 투표자의 10% 지지를 얻는 것이다.≫

선거운동 첫날인 10월 10일 오전 10시쯤 김숙이 후보는 시장에 있는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주다가 선거감시단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번호 찍힌 명함을 유권자들에게 주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이 선거 감시단의 설명이었다. 선거 운동이 진행되는 곳곳에는 선거 감시단의 눈이 있었다.

– 선거 준비하면서 어려움은 없나.
≪언론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후보를 집중적으로 보도해 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굳이 유권자들을 만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다.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리품을 팔지 않으면 유권자들이 존재조차 인식하지 못한다. 명함 돌리는 것도 불법이니 참 선거 운동하기 힘들다.≫

– 홍준표, 허인회, 장화식 후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동창선거≪고려대≫는 학교에 가서 하라고 말해주고 싶다. 특히 홍준표 씨나 허인회 씨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선거법 위반자와 위장전입자가 선거에 나선다는 것이 우습지 않은가.≫

– 농협 은행원으로 일했다고 들었다. 정치운동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생활인으로 청년운동을 해왔다.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다. 직장 다니는 일이 운동과 분리된다고 생각지 않았다. 국가보안법 구속으로 정치운동으로 자리를 옮기기는 했지만...≫

–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은가.
≪최근 장애인과 ≪이동권≫ 문제를 고민하면서 충격을 받았다. ≪이동권≫이라는 말이 너무 생소했고 새로운 용어였기 때문이었다. 스스로 눈높이를 더 낮춰야 한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다.≫

10일 오전 김숙이 후보가 찾아다니는 곳에는 어디나 여성 유권자들이 있었다. 아줌마, 아가씨, 할머니. 이들은 자기지역에서 여성 후보가 나온 것에 대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여자가 고생많다≫며 열심히 하라고 격려를 보내기도 했다. 이 세상의 절반인 여성들.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동대문을 선거판도를 바꿀 수도 있을 것 같다.

박수원 기자 won@ohmynews.com





민주노동당 청년단국 학생위원회 창립총회

민주노동당 청년단국 학생위원회입니다.

10월 16일 화요일에 저희 청년단국 학생위원회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선거시기여서 바로 총화하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창립총회는 무사히 성사되었습니다. 회원 13명중 10명의 참석으로 총회는 성사되었습니다.

아직 많은 회원이 가입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회원을 늘려갈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년단국 학생위원회 창립총회 자리에 지역의 사회단체분들도 함께 해 주셨습니다. 천안농민회 회장님, 통일로 가는길 회장님, 천안 통일연대 회장님≪축사메일 보내주심≫, 민주노동당 충남지부 이재기 사무처장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노동자 형님들도 함께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가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노동자 형님들과의 연대가 미흡한 단위학교다 보니 준비를 잘 하지 못했습니다. 노동자 형님들과의 연대를 강화해 나갈 것이 저희 학생위원회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재기 사무처장님은 민주노동당 강령을 발제해 주셨습니다. 발제가 끝난뒤 청년단국 학생위원회의 회칙제정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회칙제정은 회원들의 비표행사로 결정되었습니다.

저희 민주노동당 청년단국 학생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지지의 글을 띄어주신 동지들께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정형과 모범들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색과 토론이 있어야 하는지를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저희를 비방하는 글들을 보았습니다. 비방의 글을 띄우신 동지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정당운동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며, 정파운동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동지들의 행동은 정당활동을 하고 있는 당원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당 정책과 당활동을 어떻게 구현해나가는 가는 역사가 평가할 것입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부족한 지점들은 동지들의 비판을 받고자 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열려있는 학생위원회가 되고자 합니다.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함께 찾아 주신다면 저희도 더 발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그것이 곧 민주노동당을 강화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창립총회 자료집을 올립니다. 민주노동당 가입을 고민하고 있는 단위 학교나 동지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민주노동당 청년단국 학생위원회

고이즈미일본총리의 방한에 대한 각계 민중과 언론의 반향에 대해

구국의 소리, 주체90(2001)년 10월 21일



사회자 : 안녕하십니까.

윤정원 : 안녕하세요.

사회자 :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만 지난 15일 일본 고이즈미총리가 하루동안, 정확히 말하면 7시간 30분동안 방한하고 돌아갔는데요. 지금 그에 대한 각계 민중과 언론의 반향은 한마디로 매우 부정적입니다. 모두 분격하며 단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먼저 고이즈미총리의 방한에 대한 각계 민중과 언론의 반향부터 알아봤으면 합니다.

윤정원 : 고이즈미일본총리의 방한에 대한 우리 민중과 언론의 반향은 매우 날카롭다 하겠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분격한 것으로 되죠. ≪**우리 국민들에 대한 모독이자 오만한 행각이다**. 저들의 죄행을 정당화하고 우리 한국민의 반일감정을 잠재우려는 행각이다. 빈 보따리만 들고왔다≫ **등 그 반향은 매우 부정적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16일자 경향신문은 역사교과서문제, 야스쿠니신사참배문제, 최근의 꽁치분쟁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하나 속시원한 해답을 들고 오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15일자 한겨레는 실질적 과거청산없이 또다시 말장난으로 한국민을 농락했다며 비난을 했습니다.

일본교과서바로잡기운동본부도 긴급논평에서 고이즈미일본총리가 또다시 의례적인 수식어로 허울뿐인 사죄를 한 것에 불과하며 구체적으로 사죄의 뜻을 실천하기전까지는 그 진상을 신뢰할수 없다고 밝혔고 이 본부의 김민철집행위원장은 교과서왜곡을 바로잡고 태평양전쟁피해자에 대한 정부차원의 보상과 일제시대 각종 만행에 대한 역사자료를 공개하는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죄의 행동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또다시 실천없는 반성과 사과를 운운하는 것은 우리 국민을 향한 조롱이라고 비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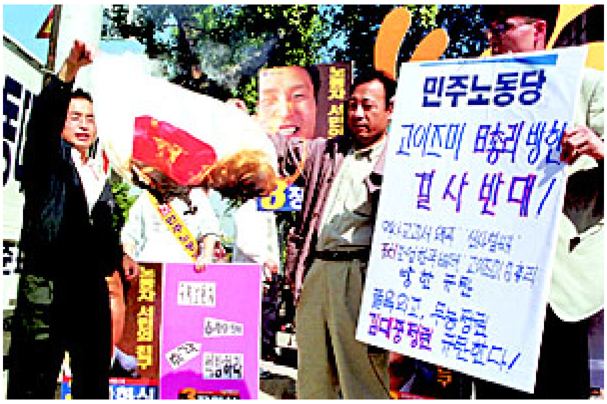
사회자 : 양미강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총무는 양국정상의 합의내용이 매우 포괄적이고 애매모호해 그동안 일본정부의 행태에 비춰볼때 또다시 말장난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윤정원 : 특히 청년학생들과 민주노총 핵심들의 반향은 비난의 도수가 매우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한총련의 한 간부는 고이즈미총리는 우리 국민을 크게 기만, 우롱했다면서 이번 고이즈미총리의 방한을 통해 일본 지배층의 오만성과 파렴치성을 더욱 똑똑히 알게 됐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민주노총의 한 간부는 이번 일본총리의 방한은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일본에 대해서는 자그마한 환상도 절대로 가지지 말아야 하며 반일투쟁을 더욱 강력히 벌여야 한다는 것을 확실케 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처럼 각계 민중들의 반향은 매우 날카로운데요. 이런 반향이 나오게 된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사회자 :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된거죠?

윤정원 : 말하자면 고이즈미총리가 이번에 방한해서 한 그의 언동이 잘 말해준다고 봐요. 아시다시피 고이즈미일본총리는 독립공원을 방문해서 한국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준데 대해 마음으로부터 반성과 사죄의 마음을 갖고 시설을 둘러봤다라고 말했는데 우리 국민들이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사과로 해석할수 있는 대목이나 **의 구체성에 대해서 역대 일본총리의 과거사언급에서 진일보는커녕 후퇴해 버렸습니다. 여기에 그의 발언 곳곳에 숨어있는 저의와 의도성을 따져보면 대단히 불쾌한 감을 어쩔수 없어요. 그것은 일본의 우리 나라침략을 외국의 침략이라는 사과속에 얼버무려 일본의 침략이 외국의 수많은 침략의 하나에 불과하다는 인상을 주었고 또 그가 서로 반성하면서 고통스러운 고난을 두번 다시 겪지않토록 협조하자고 한 말은 우리를 더욱 불쾌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반성해야한다는 말이 일제에 의해 일방적으로 해를 본 우리도 자기들과 함께 반성해야할 주체라는 뜻이라면 역사를 엄청나게 오도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사회자 : 그렇죠. 그리고 고이즈미총리가 사죄라는 명확한 일본어 표명도 있는데 ****라는 그런 그 애매한 표현을 쓴 것도 문제가 아닐수 없죠. 이렇게 보면 이번에 방한해서 한 일본총리의 과거사에 대한 사과발언의 수준이 95년 무라야마총리의 방한수준보다 낮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윤정원 : 우리 국민들이 고이즈미일본총리의 방한에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또한 그의 야스쿠니신사참배에 대해 매우 불만스럽게 말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는 15일에 있은 한일정상회담에서 자기가 야스쿠니신사를 총리보다는 한명의 정치인 그리고 인간으로써 참배했다며 개인자격을 강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참배가 잘못된 것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단 말이예요. 그리고 남쿠릴열도주변 해역에서의 우리 나라 어선의 꽁치잡이를 금지시키는 조치를 취한데 대해서는 일본의 영토주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취한 조치라는 식으로 말을 했는데 이것 역시 말이 됩니까 이게. 그래서 아시다시피 남쿠릴열도주변해역은 세계가 다 인정하는 러시아의 수위이예요. 그래서 이 해역에서는 이북과 중국을 비롯해 여러 나라 어선들이 러시아와 협의를 하고 고기를 잡고 있어요. 그런데 일본은 당치 않게 영토주권문제를 들고 나와 내년부터 거기에서 꽁치를 잡지 못하게 러시아와 잠정협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건 세상이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민들도 일본에 항의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본총리는 꽁치조업금지조치를 정당화하고 있으니까 우리 국민들이 왜 분격안하겠습니까.

사회자 : 그리고 역사왜곡과 관련한 일본총리의 발언도 아주 고약하지요.

윤정원 : 고이즈미총리는 방한해서 무엇이라 말했는가 하면 교과서문제는 일본의 검정제도에 따른 불가피한 것이였다고 했는데 이건 말도 되지 않는 날강도적인 궤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저들의 역사왜곡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소리예요. 남의 나라를 침략하고 엄청나게 많은, 상상을 초월하는 불행과 고통을 주고서도 그걸 합리화, 정당화하는 역사교과서를 만들어 시판하면서 그것이 저들에게만 유리하게 만들어진 검정제도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변을 하니까 어디 말이 됩니까. 그리고 고이즈미총리는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역사학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역사공동연구기관을 설치하자, 전 세계 누구라도 전범자에 대한 참배가 가능하도록 하겠다, 꽁치어장문제는 양국외교당국간의 중대한 협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는데 그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건 뻔하잖아요.

사회자 : 일본 보수세력의 반발도 클 것이고 일본정부가 현재 35개 항목을 고치라는 한국정부의 역사교과서수정요구를 이유가 없다며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있으며 남쿠릴열도해역이 일본의 영토문제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일본총리가 한 약속과 제안이 별로 효과를 나타낼 것 같지 않다는게 관계전문가들의 일치한 견해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이번 고이즈미일본총리의 행각이 저들의 죄행을 합리화하고 최근 더욱 높아진 우리 국민들의 반일감정을 잠재우기 위한 범죄적 행각으로써 일본당국자들의 오만성, 파렴치성 그리고 침략성을 여지없이 드러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계 민중들이 고이즈미총리의 방한을 단죄규탄하는 건 천백번 정당하다고 봅니다. 일본은 경거망동하지 말고 우리 나라와 가까운 이웃으로 지내기를 바란다면 과거사에 대한 진솔한 사죄와 함께 보상을 해야하고 최근 한일간의 첨예한 문제로 되고 있는 교과서문제 등 현안 문제에 대한 긍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윤정원씨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윤정원 : 네, 감사합니다.



민족의 존엄은 세기를 이어 빛난다

퇴직역사학교수 장영수씨의 글 / 구국의 소리, 주체90(2001)년 10월 18~20일

서론

민족에게 있어서 존엄은 생명이고 빛이고 명예라고들 한다. 그래서 어느 민족이든 자기의 존엄을 귀중히 여기며 그것을 지키고 더욱 빛내이고저 투쟁한다. 새 세기에 들어선 오늘 지구촌에서는 지배주의세력의 전횡과 독재가 판을 쳐 작은 민족, 약소민족의 존엄이 무참히 유린당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민족은 주체의 조국이라 칭송되는 이북이 있어 20세기에 이어 새 세기에도 존엄의 최정상에서 세계에 빛을 뿌리고 있다. 세기와 세기를 이어가며 높이 선양되는 우리 민족의 존엄은 과연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인가.

오랫동안 민족사연구에 몸담아온 나는 나름대로의 소신을 피력코저 펜을 들었다.

1. 민족존엄의 새 역사를 여시다

돌아보면 100여년전 우리 민족의 운명은 참으로 비참했다. 20세기의 시작과 더불어 이권쟁탈을 위한 대국들의 각축전장으로 되었던 한반도, 우리 민족은 망국망민의 설움을 안고 몸부림쳐야만 했다.

일제의 식민지통치의 사슬에 2중3중으로 결박당한 한반도는 그대로 피바다였다. 이땅의 수많은 자원과 재물이 일제에게 약탈당했고 600만이 넘는 청장년들이 섬오랑캐의 죽음의 전쟁터와 노역장에 끌려가고 근 20만명의 여성들이 종군위안부로 잡혀가 짐승보다 못한 학대와 모멸을 당했다. 우리 말과 글, 심지어 성과 이름을 쓰는 것마저도 금지당했다. 그렇지만 어디에 하소할곳도 없고 누구하나 동정해주는 사람도 없었다. 오히려 약자를 조롱하고 일제와 맞장구를 치며 저들도 한몫 보려고 발벗고 달려들었다. 말그대로 민족의 존엄은 강도일제의 군화발에 여지없이 짓밟혔었다.

민족의 명줄이 칠성판에 올랐던 그 암담한 시기에 과연 누가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고 땅바닥에 떨어졌던 민족의 존엄을 찾아주었는가. 그분은 바로 **김일성**장군이셨다. 일찍이 10대의 어리신 나이에 조국광복의 큰 뜻을 지니시고 새 민족사를 열기 위한 항일성전을 선포하신 **김일성**청년장군. 그분께서 울리신 항일의 총성은 민족존엄의 새 시대를 알리는 장엄한 포성이었으며 일본제국주의에 대한 준엄한 파멸선고장이었다. 장군께서는 20성상 백두광야에서 온갖 고초를 다 겪으시며 신출귀몰의 지략으로 일제 백만대군을 삼배 베듯 쓸어버리셨다. 백의동포는 **김일성**장군을 우러러 용기백배해 항일성전에 나섰다. 마침내 1945년 8월 15일 삼천리 이 강산에 ≪**김일성**장군만세!≫, ≪**조선독립만세**!≫**의 환호성이 터져 올랐다**.

허나 그 광복의 환희도 잠깐, 삼팔선 이남에는 새 강점군인 미군이 기어들어 주인행세를 했고 그 지배권을 이북땅에까지 확대하고저 6.25북침전쟁의 불을 질렀다. 겨레는 민족의 존엄이 또다시 짓밟힐 엄중한 위기를 맞게 되었다. 건국이 선포되고 유격군이 정규군으로 개편된지 2년밖에 안되는 청소한 이북대 미국간의 전쟁은 온 지구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러나 이북은 3년간의 싸움에서 미국의 건국사상 처음되는 수치스러운 패배를 안기고 민족의 존엄을 영예롭게 수호했다.

절세의 영웅, **김일성**대장군의 무비의 담력과 탁월한 전략전술, 영활한 영군술에 의해 패전을 모른다는 아메리카양키들의 힘의 신화는 산산조각이 났다. 15개 추종국가 지원군들을 끌고 북을 단숨에 점령할 기세로 달려든 미제침략자들은 무리죽음만 내고 항복서에 도장을 찍었다. 6.25전쟁에서의 북의 승리는 민족의 존엄을 만방에 떨친 세기적사변이었다.

우리 민족의 존엄은 세기적낙후를 청산하고 이북땅위에 민중의 낙원을 건설하는 나날을 통해 빛나게 과시되었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사회주의건설의 초행길을 개척하시어 미국이 100년이 걸려도 일어설수 없다던 이북땅에 자력으로 자주, 자립, 자위의 막강한 강국을 세우셨다. 그래서 세인들로부터 인류의 이상향, 사회주의의 본보기라고 칭송받는 주체의 조국으로 존엄떨치게 하셨다.

그분께서는 특유의 자주정치로 민족의 존엄을 건드리는 자는 추호도 용납하지 않으셨다. 이북인민군해군이 원산앞바다에서 정탐행위를 하던 미국의 최고성능의 정보수집함 ≪푸에블루호≫**를 나포했을 때 미국은 이북을 징벌하겠다며** 대무력을 한반도해상에 끌어들이며 북을 위협했다. 일촉즉발의 위기앞에서 이북의 우방들은 우려를 표하며 화를 입기 전에 간첩선을 돌려주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허나 **김일성**주석께서는 보복에는 보복으로,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대응하겠다는 폭탄선언으로 오만하게 날뛰던 미국을 눌러놓으시고 미국으로부터 사죄를 받아내시었다.

≪**미국함정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해를 침범해 엄중한 첩보행위를** 저지른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으로 깊이 사죄한다.≫

결국 미국은 이북에 제2의 항복서를 바치는 꼴이 되었다.

김일성주석님이시야말로 존망의 위기에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주신 민족의 은인이시고 이북땅위에 세인의 선망을 받는 불패의 강국, 민중의 낙원을 건립하시어 민족의 존엄을 만방에 떨치신 민족존엄 선양의 위대한 시조이시다.

2. 민족존엄의 최전성기를 펼치시다



김정일영수의 선군정치가 있어 이북은 경제강국건설에서도 민족의 존엄을 떨치고 있다. 현대과학기술의 결정체라고 할수 있는 ≪광명성1호≫의 성공적 발사로 우주강국의 전열에 당당히 들어선 이북이며, 첨단과학의 급성장으로 서방선진국을 아연케하는 곳이다. 현대열법에 의한 제철공법이 창조된것도 놀랍고 대자연개혁으로 국토가 천지개벽된 것도 경이적이다. 천겹만겹의 악조건에서 강대국신화를 창조한 것으로 해 더욱 돋보이는 이북이다. 오늘날 겨레와 세인이 선군정치로 민족의 존엄을 빛내이시는 **김정일**영수를 희세의 위인으로 격찬함은 당연지사라 하겠다.

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는 미국앞에서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당당히 행사하고 있는 이북은 우리 이남민중에게 있어서 희망의 등대이며 유일한 삶의 활력소이다.

이북이 민족의 존엄이 높이 선양되는 민족존엄의 본향이라면 이남은 민족의 존엄이 무참히 유린되는 민족존엄의 사각지대이다. 명색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역대로 미국상전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표정관리를 하느라 바빴다. 그들은 민족의 체면, 존엄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었다. 주한미군이 우리 여성을 살해능욕하고 귀중한 이땅을 오염, 황폐화시켜도 사법권행사는 고사하고 항변한마디 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들의 편만을 들었다. 이땅의 역대 위정자들은 민족의 존엄을 땅바닥에 떨궈 우리 국민에게 수치감만 안겨주었다.

그러나 이북은 희세의 위인이신 **김정일**영수를 높이 모시어 행성의 중심에서 가장 크게 보이는 나라, 존엄의 강국으로 빛나고 있다.

지금 세계의 이목은 능란한 자주외교술로 세계정치를 관장하시는 **김정일**영수께로 쏠리고 있다. 영수께서 계시어 민족의 존엄이 최상의 경지에 이르고 있다. 세계도처에서 의미심장한 친선과 협력의 메세지가 평양으로 날아가고 있으며 이북의 국제적인 위신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초고속 이북수교열풍이 일고 있는 속에 대국들의 수뇌들이 연이어 평양을 방문하고 있다. 연 300여억인구가 시청한 **김정일**영수의 러시아연방방문은 행성이 생겨 일찍이 없었던 일대사변이었다. 영수께서는 러시아연방에 대한 공식방문기간 조러모스크바선언을 마련하시어 미국부시정권에 초강경의 폭탄선언세례를 안겼다.

조국과 민족의 존엄을 수호해 나가시는 백두산 천출명장 **김정일**영수의 철의 신념과 심묘한 전략 앞에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 안전을 해치려던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계획은 된서리를 맞았다. 이북을 중심으로, **김정일**영수를 축으로 하는 21세기의 새로운 정치지도가 그려지고 있다.

고대에는 세계의 모든 길이 로마로 통했다 하지만 오늘은 평양으로 통하고 있다. 오늘날 **김정일**영수를 떠난 세계정치, 이북을 배제한 국제사회에 대해 생각할수 없을 만큼 북의 위상과 존엄은 드높다.

정녕 **김정일**영수는 세기를 이어 민족존엄의 최전성기를 마련하신 민족존엄의 상징이시다.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김정일**영수를 모신 그 이상의 행운, 그 이상의 영광은 없는 줄 안다. **김정일**영수를 받들고 따르는 길에 민족번영과 존엄의 창창한 내일이 있다.

나는 지금 7천만 겨레가 **김정일**영수의 향도아래 통일된 강성대국에서 **김일성**민족의 존엄을 만방에 떨치는 그 날을 보며 필을 놓는다.

어느 한 철학자는 세계사에 있어서 하나의 민족은 한번만 획기적일수 있고 지배적일수 있다고 했다. 한민족이 영원히 번영과 존엄을 누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함을 뜻하는 말이라 하겠다. 역사에 부흥의 기록을 남긴 고대로마제국도 그랬고 중세기 광대한 영토를 병합했던 칭기스칸의 몽골도 그랬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세기를 이어 민족의 존엄을 만방에 떨치고 있다.

이러한 경이의 비결은 **김일성**주석 그대로이신 천출명장 **김정일**영수께서 계시기 때문이라 하겠다. 그분의 선군정치는 민족존엄의 근본원천이다. 세계가 선망의 눈길로 바라보는 위대한 선군정치가 없었더라면 우리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은 열백번 유린당했을 것이다.

지난 세기 90년대에 **김일성**주석서거라는 뜻밖의 국상을 당한 북의 불행을 기화로 감행된 미국의 대북압살책동이 얼마나 끈질기고 맹렬했는가. 그것은 세계언론이 평한바 그대로 금세기 초유의 대공세였다. 미국이 영토도 인구도 작은 나라 이북을 향해 굶주린 맹수마냥 달려들고 있을 때 우리 이남민중은 불안을 감추지 못했으며 세계는 숨을 죽이고 북미대결을 지켜보았다.

그러나 **김정일**영수께서는 선군정치라는 만능의 보검으로 미국을 필두로 하는 제국주의연합세력의 횡포한 대북압살책동을 보기좋게 쳐갈기시고 민족의 자주권, 민족의 존엄을 수호하셨다. 영수께서는 민족의 존엄을 농간하려는 그 어떤 세력도 용서치 않으신다. **김정일**영수는 영장의 경륜과 지략, 강장의 담력과 배짱을 지니신 천하무비의 명장이시다.

97년 러시아의 진흥연구집단이 현 세계에서 10대명인의 첫순위에 **김정일**영수를 꼽았던 사실은 이미 알려진 이야기이다.

영수께서 계시어 이북은 90년대의 북미핵대결에서 연전연승할수 있었으며 북침작전계획 ≪5027-98≫**과 같은 미국의 모험적인 침략기도를 좌절시키고 민족의 존엄을 영예롭게** 수호할수 있었다. 세계는 **김정일**영수와 같이 대적의 포위속에서도 주도권을 확고히 쥐시고 총성한번 울리지 않으면서 상대를 제압하신 명장을 알지 못한다. **김정일**영수의 호국장정을 일러 미국방연구소 고위연구위원은 ≪**김정일**장군의 영군술은 놀라움을 넘어 경이적이며 부러움을 넘어 매혹적이며 훌륭함을 넘어 위대하다≫고 격찬한바 있다. 신냉전바람을 일으키며 강권을 휘둘러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은 가차없이 타격하는 미국의 부시정권도 북의 존엄만은 감히 건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 하겠다.

네, 천출명장 **김정일**영수께서는 민족존엄의 상징이시다, 그분을 받들고 따르는 길에 민족번영과 존엄의 창창한 내일이 있다는 걸 사리있게 자료를 안받침하면서 서술하셨는데 좋은 글 감사합니다. 장영수교수님.

남북사이의 관계개선은 민족대단결의 전제

구국의 소리, 주체90(2001)년 10월 18～21일

지금 이회창 등 일부 보수세력들은 우리 민족끼리 나라의 통일문제를 풀어나갈데 관한 6.15공동선언의 이행을 방해하면서 안보니 공조니하고 외세의존과 반북대결을 고취하고 있는데요. 반통일분자들의 이러한 작태는 우리 민족앞에 용서받을수 없는 죄악으로써 반드시 겨레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야 말것입니다. 네, 그럼 ≪오늘의 연단≫ 첫 순서입니다. ≪남북사이의 관계개선은 민족대단결의 전제≫ 이런 제목으로 윤정원씨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하여 우리 민족이 대단결을 이룩하자면 남북사이의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데 대해서 말씀드리죠.

아시다시피 조국통일의 주체는 우리 민족이며 조국통일위업은 남과 북으로 갈라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민족적 단합을 실현하는 문제입니다. 남과 북의 화합과 민족의 대단결을 떠나서는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남과 북사이의 관계를 불신과 대결의 관계로부터 신뢰와 화해의 관계로 전환시키는 건 민족적 단합과 조국통일을 실현하는데서 절실한 요구로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문제가 그 어느때보다 절실한 문제로 나서는 이유는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지 1년이 훨씬 지난 지금에와서도 반통일세력들의 책동으로해서 남과 북사이의 충분한 신뢰와 화해의 분위기가 조성되지 못하고 이땅에 오히려 긴장이 격화되고 있는 사정과 관련됩니다. 남과 북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는 조건에서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를 부인하면 대결을 피할수 없어요. 남과 북은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인정하는 기초위에서 화합을 이룩하고 공존, 공영, 공리를 도모하면서 조국통일의 길을 함께 열어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회창을 비롯한 이남의 일부 보수우익세력들은 미국의 대북침략정책에 추종하여 우리 민족끼리 나라의 통일문제를 풀어나갈데 관한 6.15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을 방해하고 안보니 공조니하면서 외세의존과 남북대결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북공동선언발표이전의 행태와 차이가 없다는걸 말하죠.

과거 이남은 동족을 적대시하고 민족내부의 반목과 불화를 조장하는 반북대결정책으로 남과 북의 화합을 막고 민족의 대단결을 저해했습니다. 이남의 반북대결정책은 남과 북 사이의 오해와 불화를 낳는 근원으로, 남북관계개선과 민족적 단결의 걸림돌로 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남의 일부 보수우익세력들이 외세를 추종하며 이북을 적대시하는 반북대결정책을 계속 추구한다면 남과 북사이의 신뢰와 화해의 분위기를 조성할수 없을뿐 아니라 긴장을 격화시키고 만회할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수 있습니다.

지금 이남의 일부 보수우익세력들은 외세와의 공조로 이남의 안보를 유지할수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있어요. 외세는 어디까지나 침략적입니다. 미국이 이남을 군사적으로 강점한 것은 이땅을 발판으로 우리 나라 전체와 아시아를 침략하기 위해서죠. 지금 미국은 이북을 모함, 압살하기 위한 범죄적인 대북적대시정책을 분별없이 감행하고 있어요. 미군의 이남강점으로 이땅에 긴장이 격화되고 전쟁위험까지 떠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땅의 일부 보수우익세력들은 이러한 외세의 옷자락에 매달려 공조니 안보니하며 침략군의 영구강점을 애걸하고 그와 함께 동족을 반대하는 전쟁연습을 계속 벌이고 있죠.

민족의 안보는 외세공조가 아니라 민족공조에 있습니다. 말하자면 남과 북의 화합과 협력, 단결에 진정한 민족의 안전이 있어요. 누구든지 외세를 등에 업고 외세와 공조하면서 동족을 적대시하고 반북대결정책을 추구한다면 우리 민족앞에 용서받을수 없는 죄악을 저지르게 될 것이며 반드시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겁니다.

또한 이땅에서 아직도 동족을 주적이라고 하면서 대결을 선동하는가하면 통일애국단체들과 인사들을 이적으로 몰아 철창으로 끌어가는 것과 같은 용납못할 사태들이 계속 빚어지고 있는 것은 달아오른 민족적 단합의 열기에 찬물을 끼얹고 남북관계와 통일의 앞길에 어두운 그늘을 던지는 범죄행위로 됩니다.

이땅의 보수우익세력들은 민족대단결에 저해를 주는 이러한 범죄행위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반북대결정책을 연북화해정책으로 바꿔야하죠. 그리고 민족적 단합과 통일을 가로막는 반통일악법인 국가보안법철폐의지를 밝혀야합니다. 그렇게 되면 남북관계는 불신과 대결의 관계가 아니라 신뢰와 화해의 관계로 발전하게 될 것이고 민족적 단합과 조국통일을 실현하는데서 보다 큰 진전이 이룩되게 될겁니다.

감사합니다.



반일항전으로 일본의 흉계 짓부수자

이동욱 / 구국전선, 주체90(2001)년 10월 21일



일본총리 고이즈미가 우리 민중의 방한반대시위 속에 지난 15일 서울에 기어들어 경찰의 삼엄한 경계속에서 서대문 독립공원을 참배하고 이른바 한일정상회담을 한뒤 7시간반동안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고이즈미의 방한과 때를 맞추어 서울 등 경향각지에서 각계층 민중과 시민단체들의 반일집회와 시위가 잇달았다. 집회와 시위들에서 일장기와 고이즈미의 허수아비를 소각하면서 일본총리의 서울행각을 강력히 반대, 규탄했다. 우리 민중은 한일정상회담을 냉소와 위구심속에서 지켜보면서 분노를 금치 못했다.

고이즈미는 정상회담이라는데서 과거침략전쟁을 일으킨 A급 전범자들의 유골이 안치되어 있는 야스쿠니신사참배에 대해 ≪전쟁희생자를 위안하기 위해 참배했다. 군국주의는 싫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느니, ≪교과서문제는 일본내 검정제도에 따른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변명했다. 그밖에 회담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대테러전쟁에 대한 지원방안 등이 협의되었다고 한다.

역사왜곡과 신사참배, 일본군국주의부활의 장본인인 고이즈미의 이같은 기만적인 언동은 반역사적이고 비이성적인 오만에서 비롯된 파렴치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일본총리의 서울행각은 한미일공조체제강화를 통한 대북강경정책을 재확인하고 동시에 저들의 군사대국화를 추진하기 위한데 그 추악한 목적이 있다. 또한 그것은 일본의 과거죄행을 백지화하고 날로 높아가는 우리 민중의 반일감정을 무마시켜 보려는데 있다. 특히 미국에 대한 9.11테러사건을 기화로 이북압살을 겨냥한 불순한 모략을 꾸미려는데 그 음흉한 저의가 있다 하겠다. 학생단체들이 고이즈미의 이번 행각을 ≪한반도평화통일을 위협하는 한미일공조체제의 비상가동이라고 할 수 있다≫고 평한 것은 결코 우연치 않다.

우리 민중은 역사왜곡에 대한 사죄와 시정약속이 없는 상태에서 더욱이 일본의 군사대국화의 창끝이 실제로 한반도에로 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일본총리의 방한과 그리고 역사왜곡과 신사참배, 공치어장문제, 한국어선침몰사건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확실한 사과와 시정없이 일본에 면제, 동의만 준 성과없는 한일정상회담을 지켜보면서 이를 우리 민족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으로, 극악한 재침책동의 일환으로 낙인찍고 전국민의 치솟는 분노로 준열히 단죄규탄한다.

사실상 지금 일본은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코자 군국주의부활과 무력증강으로 줄달음치면서 재침의 기회만 노리고 있다. 최근에만도 일본은 미국이 ≪대테러전쟁≫에 나서자 때를 만난듯이 이에 앞장서고 있다. 일본반동들은 반테러를 빌미로 자위대의 해외파병과 무력사용을 허용하는 ≪테러대책특별조치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그리고 자위대의 미군지원을 위해 파병을 결정했다.

우리 민중은 일본총리의 서울행각과 일본군국주의재침흉계를 직시하고 경각심을 높여야 하며 반일항전에 과감히 떨쳐나서야 한다.

당면하여 일본의 과거죄행에 대한 사죄와 보상, 역사왜곡사죄, 이북위험론의 철회, 한일합동군사훈련계획철회, 한국어선침몰사건에 대한 사죄와 보상, 남부 쿠릴열도에서 한국어선 공치조업금지시도의 즉각 중단, 일본자위대의 해외파병반대 등을 촉구하여 투쟁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과거 일본의 식민지지배가 우리 민족에게 얼마나 큰 고통과 불행을 주었는가를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

일본에 의해 우리 민족이 받은 인적, 물적, 정신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으며 결코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일본이 진정으로 우리 민족과 화해를 바란다면 과거에 대한 사죄와 보상이 선행되어야 하고 다시는 평화를 위협하는 책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민중은 일본반동들의 재침책동을 결코 용납치 않을 것이며 거족적인 반일항전으로 일본의 과거죄악을 반드시 결산하고야 말 것이다.

DMZ에 평화의 노래가 울린다

평화촌 행사와 남북문화교류

오는 27일 부터 31일까지 4박5일동안 민통선과 비무장지대에서 ≪2001 비무장지대 평화촌 행사≫가 열린다. 평화를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는 남북대중문화 예술인을 비롯 10여개국 작가들이 참여하여 한반도의 평화를 논한다. 이 행사의 의의를 조명하고 이를 통해 남북문화교류의 대안을 제시한다.

분단 56년만에 정전 협정 48년동안 잠자고 있던 비무장 지대의 평화를 알리는 서곡이 시작된다.



화력으로 중무장된 비무장 지대에 배치된 총포대신 노래가 울린다. 녹색 군복을 입은 우렁찬 군인의 구령대신 평화를 기원하는 오케스트라가 연주된다. 땅 밑 얇게 묻혀 생명을 위협하는 지뢰대신 생명을 담은 그림과 조각들이 전시된다.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경의선이 통과하는 민통선내 도라산역에서 열리는 ≪2001 평화촌 행사≫는 분단 56년만에, 정전협정 48년동안 잠자고 있던 비무장지대의 평화를 알리는 서곡이다. 비무장지대는 지난 세기 냉전이 남긴 세계 유일의 분단지역. 그러나 지난해의 남북정상회담이 비무장지대를 세계적인 평화유산으로 만들고 있다. 경의선이 통과하는 남쪽의 마지막역이 도라산역이다. 비무장지대 150미터앞 철책이 바라다 보이는 그곳에서 평화를 사랑하는 국내외 문화예술인들이 모여 평화의 메시지를 북으로, 세계로 보낸다.

한스크리스퍼 부흐를 비롯한 독일, 마케도니아, 노루웨이, 중국, 일본, 대만 등 세계 분쟁지역의 작가들이 모여 평화를 주제로 한 작가회담을 갖는다. 또한 네팔, 아프카니스탄 등 분쟁지역의 평화운동가, 평화학자들이 모여 문명과 평화라는 담론으로 회의를 갖는다.

GODMZ≪비무장지대로 가자≫라는 상설전시장에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비무장지대의 생명을 담은 회화, 조각, 설치예술의 전시, 영상작업들이 이뤄진다. 참여작가는 백두산사진작가로 유명한 백남식씨의 백두산, 금강산, 한라산의 사계를 주제로 한 영상멀티미디어쇼가 준비되고 이반≪덕성여대 교수≫, 임봉규≪신라대 교수≫, 송대섭≪홍익대 교수, 판화≫, 강리나≪설치미술≫, 김영원≪홍익대 교수, 조각≫, 송번수≪홍익대 교수, 회화≫, 김창경≪비디오≫ 등 40여명 이상의 작가들이 참여한다.

평화 마을에선 1998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조디윌리암스의 강연이 예정되어 있고 평화와 관련된 ngo들의 공간이 마련돼 평화관련 단체들의 활동을 알리고 교류할 수 있게 된다. 어린이 평화학교도 평화마을의 주요 프로그램. 150여명의 어린이들의 모여 2박3일간 생활을 함께 하면서 통일 한반도의 미래상을 위한 협동 체험교육이 시도된다. 북쪽의 어린이가 올 경우 남북의 어린이가 30명씩 함께 지내면서 문화와 이데올로기의 차이를 극복하는 진귀한 체험의 기회들도 준비 돼 있다.

2001 평화촌의 한켠 행사장에서는 통일체육을 준비해 온 학계인사들이 모여 비무장지대와 민족통일체육이란 주제의 세미나가 열리고 간이로 만들어진 축구장에서는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평화축구경기가 열릴 예정이다.

도라산역 특설공연무대에서는 2001 경의선평화음악회가 준비되는데 평화와 통일 등을 주제로 한 국악, 클래식, 사물놀이패, 대중가수 등 각 장르의 음악의 공연이 펼쳐진다. 또한 양정수 수원대 교수팀의 현대무용, 발레, 고전무용이, 각대학 체육대생들이 참여하는 이영숙 상명여대 교수팀의 에어로빅 시범, 비무장지대를 주제로 한 이정희 교수≪중앙대 무용학과≫팀의 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2001 평화촌 행사가 갖는 의미는 대단히 중요하다. 분단 56년간 남과 북이 말로만 해왔던 통일을, 서로 다른 지역에서 해왔던 통일의 연습을 한반도 공동의 평화라는 화두 속에 녹여 넣자는 것이다. 특히 주 행사개최 장소가 도라산역 지역이기 때문에 이번 행사를 계기로 분단의 상징인 비무장지대를 남북의 평화를 위한 접점으로 만들고자 하는 중요한 작업이다.

남과 북의 문화예술인들이 그 접점에 모여 함께 먹고 자고 서로의 속생각을 털어놓고 노래부르고 하면서 서로의 차이를 실감하는 것이다, 남과 북의 관계에서 그동안 이질적인 것보다는 동질적인데부터 시작해 왔다. 그러나 너무 달랐다. 신뢰는 서로의 극명한 차이를 아는 것에서 생기는 것.

분단 56년 이후 살아온 양식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서로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에서 출발해 그 격차를 좁히는 노력, 충돌에서 접근으로 가는 그 고통의 체험이 필요하다. 2001평화촌 조직위가 북측의 문화예술인들에게 참여를 요구하고 북측에서 합의한 것은 바로 이같은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평화는 공존의 토대이다. 2001 평화촌 행사는 남북간 상생의 토대를 분단의 상징에서 찾자는 것이다. 올해는 비무장지대 150미터앞에서 행사가 열리지만 내년에는 비무장지대로 50CM 들어가서, 내후년에는 부서진 기차가 누워있는 곳에서 평화의 행사를 열어 마침내 비무장지대의 빗장을 열자는,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를 열자는 것이 이 행사의 배경이기도 하다.

이번 행사에서는 비무장지대를 평화보전지역으로, 세계평화박물관≪peaceum≫으로 만들기 위한 추진위원회가 구성될 것이며 한반도 평화협정촉구선언도 발표될 것이다. 경의선 복원이 이뤄지는 비무장지대는 우리가 가진 세계적인 자원이다. 세계 유일의 분단기념물이자 역사박물관이고 생태박물관이다. 지뢰밭, 녹슨 철조망, 버려진 포탄 모든 것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념물이다. 또한 이것들은 남북의 번영을 위한 중요한 관광자원이기도 하다. 경의선의 복원 개통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가 분단세기동안 디아스포라로 살아온 세계 도처의 한민족 동포들에게 전달되고 그 평화가 세계 도처에 도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평화는 힘이다. 우리 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의 단합된 겨레의 동력으로 작용해 마침내 통일을 위한 원동력이 되게 할 우리 시대의 화두이기도 하다. 평화는 남북을 동시에 살릴 수 있는 큰 힘이다. 흩어졌던 과거를 봉합하는, 과거의 시점으로 돌아가서 남북을 다시 잇는≪reunification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 완전한 통일≪unification≫을 위한 정지작업이다. 우리가 함께 하는 2001 평화촌 행사는 겨레를 살리는 역사적 변화를 만들기 위한 중대 작업인 것이다.

한남대신문 sdr96@orgio.net
2001-10-16

6.15 공동선언이행과 국가보안법폐지 및 양심수 석방을 위한 거리캠페인



얼마 전 어느 한 동네시장에서 ≪국가보안법폐지 절대반대≫라는 구호를 들고 수구단체들이 캠페인을 했다고 합니다. 국회 상임위에서는 한나라당 김용갑의원이 역시 또 ≪햇볕정책은 **김정일** 집단을 강화시키고, 우리 사회 내부의 친북좌파세력들의 활동공간을 넓혀준 실패작≫이라고 떠들었습니다. 이전 클린턴 대통령의 약속사항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는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북한의 전향적인 자세 전환이 없는 한 당분간 한반도 정세에 큰 변화가 없다≫며 적반하장식의 깡패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국가보안법 폐지의 구호는 작아지려 하고 있습니다. 통일시대를 모두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국가보안법으로 잡혀가는 한총련대학생, 조직사건 피해자들은 연일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도 나서야 합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해나갑시다. 그래서, 저희는 국가보안법관련 피해자단체들을 모아서 ≪10월 20일부터 매주 토요일 종로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YMCA앞에서 ≪6.15공동선언이행과 국가보안법폐지 및 양심수 석방을 위한 거리캠페인≫≫을 진행하려 합니다. 진보를 향한 새 세기여야 함에도 ≪지금 이 나라는 우회전 신호를 넣고 좌회전하는 바람에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이라는 반통일수구세력과 ≪**통일이후에도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시킬 것**≫**이라는** 반통일외세로 인해 광기가 난무하는 지경에서 우리는 조그마한 힘이라도 모아서 여론을 환기시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6.15 공동선언이행과 국가보안법폐지 및 양심수 석방을 위한 제1차 거리캠페인≫

*연설:
1. 권오헌 민가협 양심수후원회장님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하여≫
2. 구본승 단국대 민주동문회 간사 ≪소위 단국대활동가조직사건의 부당성≫
3. 범민련 후원회원 중 1인 ≪범민련을 탄압말라≫

*일시 및 장소: 10월 20일 오후 4시 종로 YMCA 앞

*참가 단체:
공안탄압분쇄와 구속동지석방을 위한 서울민주노동자회 비상대책위
김건수 석방과 공안검사 정점식 퇴진을 위한 대책위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범민련 후원회
소위 단국대활동가조직사건조작음모분쇄와 국가보안법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
소위 ≪민족민주혁명당≫ **조직사건 진상규명과 공안탄압 저지를 위한 대책위**
6.15공동선언실현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통일연대 구속자 석방대책위
2001 민족통일대축전 음해저지 및 방북대표석방을 위한 한청 대책위
청년통일인사 황선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
한총련 이적규정철회를 위한 특별위원회

*후원: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2001년 10월 19일
토요 거리캠페인 기획단

11월 3일 학생의 날 기념 강연회 ≪민족과 청년≫

부제 : 당신이 없으면 건국도, 민족도 없다

1. 강연회 취지

학생들이 전국적으로 반일 총궐기에 나서는 계기가 되었던 광주 학생의거의 정신을 계승하는 학생의 날을 맞아 민족문제를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근래에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군국주의 부활 음모에 반대하는 반일 감정이 각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노근리 양민 학살, 주한미군 범죄, 환경 오염 등의 사건을 계기로 반미 감정도 전례없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 민족임에도 반세기 이상 대결과 반목 속에 민족분단의 수난을 겪어왔던 우리 민족사에서, 작년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간 교류와 왕래가 활발해지면서 민족 화합과 통일의 기운이 고양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외세에 의해 자주권을 빼앗기고 국토 양단의 시련을 겪어야 했던 우리 민족의 민족문제 해결의 염원이자 민족적 발전을 지향하는 의지의 표출이라 확신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민족문제 해결에 청년학생이 주체로 나서는 것은 시대와 민족의 요구일 것입니다. 청년학생들은 항일운동에서부터 4.19의거, 5.18광주민주화항쟁 등 역사의 고비마다 항상 맨 앞장에서 민중의 희망이었고 역사의 등불이었습니다. 또한 미문화원 점거로 반미운동의 봉화를 지펴올리고 반세기 분단을 딛고 통일의 물꼬를 튼 선봉장이기도 하였습니다. 시대적 사명에 충실했던 청년학생들의 전통과 긍지를 계승하면서 지금도 민족자주, 민족통일 실현에 청년학생들이 자신의 몫을 담당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근래 대학생들 속에 민족의식이 결여되어있다는 지적이 울려나오고 있는 현실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90년대 들어서 민족과 국가의 경계가 허물어졌다느니 하면서 ≪세계화 바람≫이 불고, 중고등학교 교육에서 '국사' 과목이 선택과목이 되는 등 민족 의식 교육이 약화되었습니다. 또한 대학에도 소비향락적인 문화, 개인주의 문화가 널리 유포되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대학에 들어온 90년대 중후반, 2000년대 학번들에게서 민족의식이 부족한 것은 어쩌면 필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학생의 날 기념 강연회를 통해서 학우들에게 민족주체의식을 높이고 민족의 구성원으로서 청년의 역할은 무엇인가 사색해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2. 강연회 주제 해설

≪민족과 청년≫ – 당신이 없으면 건국도, 민족도 없다

민족에 대한 무관심, 민족 문제는 나의 삶과는 관계 없는 일이라는 의식은 민족과 개인의 관계를 바로 보지 못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민족사적 견지에서 청년이 어떠한 역할을 담당해왔는지에 대해서 옳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도 큰 요인이 될 것입니다.

강연회의 중심 주제는 ≪민족과 청년≫으로서 ≪민족문제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민족문제는 개인의 삶, 대학생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밝히고 ≪21세기 민족적 발전에 청년이 어떠한 몫을 해야 할 것인가≫ 물음을 던지게 될 것입니다.

3. 기획안 ≪장소 : 건국대학교 사회과학관 302호≫

10월 31일 17:00 강사 : 강정구 ≪동국대 교수≫

제1강 ≪민족통일과 청년의 역할≫ – 민족사적 당면 과업인 민족통일의 의미와 전망, 그리고 청년의 역할은 무엇인가?

11월 1일 17:00 강사 :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사무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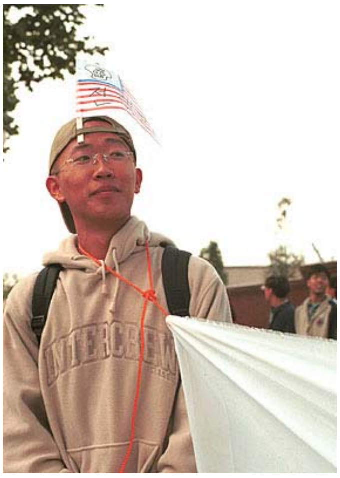
제2강 ≪친일파 청산과 민족 정통성 확립≫ – 친일파, 친일잔재 청산은 민족사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또한 현재적 의미는 무엇인가?

11월 1일 19:00 강사 : 손석춘 ≪한겨레 편집위원≫

제3강 ≪언론개혁≫ 조선일보 반대운동 <주최 : 한기연>

11월 2일 17:00 강사 : 박거용 ≪상명대 교수, 한국대학교육연구소장≫

제4강 ≪민족과 대학≫ – 대학 위기의 근본적 원인과 구조적 문제는 무엇이고 민족교육의 대안은 무엇인가?



민족건대 34대 자주적 총학생회



조미관계 10년을 통해 본 한(조선)반도의 통일정세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이하 통일여명 편집국 강조)

차 례

1 조미 관계의 본질과 세 차례의 정치적 합의

조미 관계를 인식하는 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미국이 북(조선)을 고립·봉쇄하는 측면을 중심으로 조미 관계를 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물론 미국의 고립·봉쇄책동이 조미 관계를 규정하는 요인들 가운데 하나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니다.

북(조선)에 대한 미국의 고립·봉쇄책동을 중심으로 삼고 조미 관계를 인식하려 할 때, 두 가지 오류를 피할 수 없게 된다.

하나는 제국주의자들의 이른바 ≪폐쇄국가론≫을 용인하는 오류며, 다른 하나는 조미 관계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곧 사회주의혁명역량이 제국주의세력에 맞서서 반제혁명투쟁을 전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는 오류다. 만일 ≪폐쇄국가론≫을 용인하게 되면, 사회주의혁명역량은 제국주의세력이 가하는 고립·봉쇄의 일방적 공세를 받기만 하는 무력한 존재가 되어 버린다.

제국주의세력의 고립·봉쇄 속에 갇혀 있는 사회주의혁명역량이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는 주장은 우리의 정세인식을 패배주의라는 함정으로 끌어간다.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할 것은, 조미 관계의 본질은 사회주의혁명역량과 제국주의세력 사이의 대결과 투쟁이라는 점이다. 사회주의 진영이 무너진 이후 지난 10년 동안 북(조선)은 ≪사회주의혁명의 보루≫로 자기의 존재를 지켜왔을 뿐 아니라, 마지막 남아있는 사회주의혁명역량을 타파·소멸하려는 제국주의세력의 집중공세에 단독으로 맞서 투쟁하여왔다. 1995년부터 1999년까지 북(조선)이 ≪고난의 행군≫을 했던 시기에 워싱턴 정가에 나돌았던 이른바 ≪북한 붕괴설≫, 그리고 2000년 이후에 새로 출현한 이른바 ≪북한 변화설≫**은 사회주의혁명역량과 제국주의세력의 대결과 투쟁이라는 조미 관계의 본질을 은폐하면서 제국주의세력이 압도적인 우세로 사회주의혁명역량을 봉쇄·말살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날조·유포한 ≪제국주의 승리론≫의 변종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1) 조미 관계에서 대결의 성격은 **사회주의와 제국주의의 사상전**이라는 사실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 사상전은 **주체사상을 진수로 하는 김일성주의와 ≪세계화 전략≫에 기초한 지배주의**의 대결,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의 대결,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대결로 전개되었다. 조미 관계의 본질을 바라보는 민족민주전선의 관점은, 조미 대결의 성격을 민족 대 외세의 대결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고 사상전으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반외세 민족주의자들의 관점과 다르다.

2) 조미 관계에서 투쟁의 양상은 국가역량을 총동원한 사활적인 투쟁이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군사력, 정치외교력, 국가적 조직력, 경제력을 총동원한 투쟁**이었다.

유일한 초강대국이라고 자처하는 미국의 집중공세에 맞서서 자기의 존재를 지켜야 했고, 더 나아가서 전세를 역전시켜야 했던 북(조선)은 자기의 국가역량을 총동원하여 그야말로 죽느냐 사느냐 하는 반제혁명의 결사전을 전개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한 긴장된 전투상황 속에서 북(조선)이 하나의 국가로서 수행하는 전략은 반제혁명투쟁에 복무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북(조선)이 하나의 사회적 집단으로서 추구하는 모든 가치와 목적은 반제혁명의 승리를 지향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반제혁명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북(조선)의 국가전략이 제대로 보이게 되며, 북(조선)의 사회적 현실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조미 관계 10년을 돌이켜 보면, 두 나라 사이의 적대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은 세 차례의 중대한 정치적 합의를 통하여 진전을 이루어왔다는 사실이 드러나 보인다. **1993년 6월 11일 뉴욕에서 채택된 조미 공동선언, 1994년 10월 21일 제네바에서 채택된 조미 기본합의서, 그리고 2000년 10월 12일 워싱턴에서 채택된 조미 공동성명**이 그것이다.

이 정치적 합의들은 사회주의혁명역량과 제국주의세력 사이에서 지난 10년 동안 전개된 대결과 투쟁이 남긴 결과다. 우리가 주시해야 할 사실은, 조미 사이에서 이루어진 세 차례의 중대한 정치적 합의는 한결같이 두 나라의 해묵은, 그리고 매우 불안정한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국교를 수립하기 위한 합의**였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지금 조미 관계는 세 차례의 정치적 합의를 이행하여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국교를 수립해 가는 과정에 들어섰다고 보아야 한다. **올해 새로 들어선 부시 정부가 조미 관계를 냉각국면으로 끌어가려고 하였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 조미 관계의 변동방향은 **국교 수립**이라는 최종 목표를 향한 궤도에 올라 있으며 그 움직임은 비록 전진속도의 증감이라는 차이는 보일 수 있어도 차단할 수 없게 되었다.

2 사회주의혁명의 최대 시련기에 발휘한 북(조선)의 돌파력

지난 1980년대 내내 미국은 북(조선)의 정치협상 제의를 묵살하면서 봉쇄압박과 무력위협으로 대답하였다.

미국은 북(조선)이야말로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타파 · 소멸해야 할 적대세력이라고 규정하였다. 한(조선)반도가 지구 위에서 미국의 핵공격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위태로운 타격지점으로 되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으며, 한(조선)반도를 가리켜 미국이 임의의 시각에 전면전을 일으킬 수 있는 ≪태평양의 화약고≫라고 불렀던 이유가 거기에 있다. 한(조선)반도에서 핵공격의 격발장치에 손가락을 걸고 있었던 쪽은 제국주의세력이었다. **1999년 10월에 세상에 드러난 미국의 한(조선)반도 전쟁계획인 ≪작전계획 5027≫이 보여준 것처럼,** 제국주의세력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웬만한 나라를 한꺼번에 쓸어버릴 방대한 무력과 막강한 첨단무기를 동원할 수 있는 미증유의 전쟁 수행력을 과시해왔다.

미국은 이처럼 한(조선)반도에서 전략적 공격을 퍼부을 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으므로 북(조선)이 자기에게 굴복하기를 바랐고 정치협상 제의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이것이 지난 1980년대에 조미 관계가 처해 있었던 정황이었다.

그런데 1990년대에 이르러 어떻게 해서 조미 정치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며, 세 차례의 정치적 합의를 내놓을 수 있었던가? 우리가 주시해야 할 사실은, 사회주의혁명역량과 제국주의세력 사이에서 벌어진 **힘의 대결**에서 사회주의혁명역량이 제국주의세력의 일방적인 공세를 물리치고 힘을 겨루는 대등한 지위에 올라섰기 때문에 그러한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이다. **역사적 경험은 제국주의세력이 자기와 대등한 지위에 있지 못한 무력한 상대에 대해서는 절대로 정치협상을 벌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지난 10년 기간 중에 눈길을 끄는 것은, 1995년부터 1999년까지 5년 동안 조미 사이에서 정치협상이 진행되지 못하고 거의 정체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렇게 되었던 까닭은 그 기간에 사회주의혁명역량의 최대 시련기인 ≪고난의 행군≫과 ≪사회주의 강행군≫을 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사회주의혁명역량이 시련기에 처해 있을 때, 제국주의세력은 이미 이루어진 정치적 합의를 내던지고 종래의 적대 · 말살정책을 다시 꺼내어 휘두르면서 사회주의혁명역량을 타파 · 소멸하려고 하였다. 사회주의혁명역량이 시련기에 들어서자 제국주의세력이 그 무렵까지 진행되고 있었던 정치협상을 중단하면서 고립 · 압살책동에 집중하였다는 사실은, 제국주의세력은 미약한 상대에게는 절대로 정치협상을 벌이지 않는다는 역사적 경험을 다시 입증하였다.

그렇다면 북(조선)은 제국주의세력이 정치협상을 중단하면서 집중시킨 고립 · 압살책동과 사회주의혁명의 최대 시련기를 무엇으로 돌파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된다.

1) 북(조선)은 **군사력**으로 돌파하였다. 북(조선)은 1998년 8월 31일에 **인공위성체 ≪광명성 1호≫를 탑재한 3단계 우주발사체 ≪백두산 1호≫를 우주공간을 향해 발사**하였다. 그 광경을 지켜본 제국주의세력은 경악하였고 종전처럼 적대 · 말살정책을 계속 고집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여 자기의 정책을 바꾸지 않을 수 없었다. **우주발사체 ≪백두산 1호≫는 북(조선)이 미국의 심장부를 강타하여 전쟁수행력을 마비시킬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음을 암시**함으로써 엄청난 정치적 위력을 발휘하였다.

북(조선)의 이론에 의하면, **제국주의세력에 맞설 수 있는 힘은 정치적 의사를 관철하는 가장 강력한 물리력인 군사력**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강대한 군사력을 보유한 제국주의세력에 맞서 싸우는 반제혁명에서 빈약한 군사력을 지닌 나라의 정치외교력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1993년 6월에 조미 공동선언을 채택한 것이나 1994년 10월에 조미 기본합의서를 채택한 것이나 2000년 10월에 조미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은 모두 북(조선)이 미국에 대해서 군사력을 시위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1993년의 조미 공동선언 채택은 **북(조선)이 미국의 태평양지역 전략거점들을 겨냥한 중거리 미사일을 시험발사** 하였기에 가능했으며, 1994년의 조미 기본합의서 채택은 **북(조선)이 핵무기 개발 능력을 과시**하였기에 가능했으며, 2000년의 조미 공동선언 채택은 **우주발사체 ≪백두산 1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하여 대륙간 탄도미사일 보유하고 있음을 암시**하였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가지고 무력위협을 일삼고 있는 제국주의세력에 맞서 싸우려면 자기들도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북(조선)의 생각이었고, 북(조선)은 **피나는 노력**을 기울인 끝에 마침내 그 생각을 현실로 이루어냈던 것이다. 제국주의세력과 가장 첨예한 군사적 대치상태에 있는 사회주의혁명역량이 미국의 심장부를 한 방에 날려버릴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무장하였다는 사실은 제국주의세력에게 가장 심각한 위협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위협 앞에서 제국주의세력은 더 이상 일방적인 공세를 취할 수 없게 되었으며 종래의 적대 · 말살정책을 거두어들이고 정치협상의 길로 끌려나오게 되었다.

북(조선)은 사회주의혁명의 최대 시련기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한 채 허리띠를 졸라매고 국가역량을 총동원하여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하였으며, 그로써 난관과 역경을 정면돌파하고 제국주의세력과의 대결에서 전세를 역전시켰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바로 **이러한 경험을 총화하여 군사를 중시하는 사상을 정립**하였다. 이미 세상에 알려진 대로, 북(조선)은 자기의 **사회주의혁명을 선군혁명**이라고 부르며, **사회주의정치를 선군정치**라고 부른다.

2) 북(조선)은 **정치외교력**으로 돌파하였다.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미국을 상대하여왔던 북(조선)의 정치외교전략을 세 가지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다. 외세에 의존하지 않는 **자주적 외교전략, 선의에는 선의로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대처하는 외교전략,** 그리고 **한(조선)반도 주변 네 나라의 역량관계를 이용하는 외교전략**이다.

외세의 의존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외세라는 개념은 북(조선)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뜻한다. **북(조선)의 외교전략은 중국과 러시아에 의존하지 않는 자주성을 근본으로 삼아왔다.** 그렇기 때문에 북(조선)은 중국과 러시아가 반제전선에서 이탈하여 미국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취했을 때 수세에 몰리지 않았으며, 중국과 러시아를 통하여 북(조선)에게 압력을 가하려고 하였던 미국의 우회전략을 파탄시킬 수 있었다.

북(조선)은 교활한 제국주의세력이 선의로 위장하고 접근해올 때 방심하거나 속아넘어가지 않았다. 또한 북(조선)은 제국주의세력이 핵전쟁도 불사하겠다고 하면서 강경하게 나왔을 때 겁을 먹고 뒤로 물러서거나 적당히 타협하여 위기를 넘기려는 비굴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으며, **≪보복에는 보복으로 전면전에는 전면전으로≫라는 반격구호로 받아치며** 초강경으로 대응하였다.

북(조선)은 한(조선)반도 주변 네 나라의 역량관계를 적절하게 이용하면서 유리한 국면을 만들어내곤 하였다. 한(조선)반도에 대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이해관계는 상충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유리한 국면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북(조선)의 생각이다. 미국이 두려워하는 것은 자기들이 가장 중시하는 미·일 동맹관계에 균열이 생기는 것과 중·러 관계가 밀착되면서 반미공조관계를 맺는 것이다. 우리가 주시해야 할 것은, **일본이 미·일 동맹관계에서 이탈하려는 경향과 중·러가 반미공조관계를 맺으려는 경향은 모두 대량파괴무기를 개발하는 문제에 결부**되어 있는데, 동북아시아에서 대량파괴무기를 개발하는 문제나 대량파괴무기의 확산을 억제하는 문제를 좌우하는 열쇠를 쥐고 있는 쪽은 북(조선)이라는 사실이다.

북(조선)이 만일 1998년의 ≪백두산 1호≫에 이어서 ≪백두산 2호≫를 발사하게 되면 일본도 그에 대응하여 중거리 미사일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보유하려 할 것이며, 그러한 추세는 미국의 안보우산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전쟁수행력을 확보하려는 군국주의적 야심을 자극할 것이다. **일본이 독자적인 전쟁수행력을 확보하는 것은 미·일 동맹관계에 균열을 일으키면서 미국의 동아시아전략에 치명타를 입히는 것**으로 된다. 따라서 미국이 미·일 동맹관계를 종전대로 원활하게 유지·관리하려면 북(조선)이 ≪백두산 2호≫를 발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방법은 조미 정치협상에서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미국이 ≪백두산 2호≫가 발사될까봐 노심초사하고 있었던 **2000년 10월에 조명록 특사를 워싱턴에 파견하여 미국이 두려워하는 ≪미사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였고, 당시 미국 대통령 클린턴은 그 해결책에 동의하였다. 그리하여 워싱턴에서 역사적인 조미 공동성명이 채택될 수 있었고, 그 직후에 미국 국무장관이 미국 대통령의 북(조선) 공식방문을 준비하기 위하여 평양을 찾아갔으며, 미국 대통령의 평양 방문이 실현되는 결정적인 단계에까지 근접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시하여야 할 것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조미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국교수립으로 나아갈 수 있는 획기적인 해결책을 이미 제시하였고, 클린턴 행정부가 그것에 동의한 바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미국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여 조미 정상회담을 열고 두 나라 정상이 합의하는 내용을 세상에 발표하는 과제가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클린턴에게 제시하였고 클린턴이 받아들인 획기적인 해결책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 해결책은 외부에 알려진 바 없지만, 그 동안 조미 정치협상의 핵심내용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드러난다.

(1). **북(조선)이 ≪백두산 2호≫의 발사를 중단하는 대신 미국은 ≪광명성 2호≫를 운반할 우주발사체를 대리 발사 해주는 책임**을 맡는다. 대리발사의 책임이란 미국이 직접 발사해주든지 아니면 제3국이 발사할 때 미국은 자기에게 요구되는 조치를 취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북(조선)은 ≪강성대국 건설≫의 핵심사업인 평화적인 우주개발을 계속하여 추진**하여야 하므로 **≪광명성≫으로 이름을 붙인** 인공위성체는 계속하여 개발하게 될 것이다.

(2). 북(조선)은 우주발사체 **≪백두산≫의 개발을 중단하는 대신 미국은 주한미군을 철수한다.** 우주발사체 ≪백두산≫의 탄두부에 인공위성체 대신에 핵탄두를 장착하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된다. 그러므로 우주발사체 **≪백두산≫의 개발을 중단한다는 말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중단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것은 **이미 보유하고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폐기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한다**는 말은 조미 적대관계를 청산하는 추세에 따라 미군병력과 군사장비를 **단계적으로 철수**하고 군사기지를 **단계적으로 폐쇄**해 가다가 **한(조선)반도의 통일이 실현되기 직전에 철군을 완료하고 군사기지를 완전히 폐쇄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3). 조미 두 나라는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국교를 수립**한다. 적대관계를 청산한다는 말은 정전협정을 공고한 평화보장체계로 전환하고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조미 국교수립은 북(조선)에 대한 미국의 적대·말살정책의 종말을 의미한다.

그런데 새로 들어선 부시 정부는 선행 클린턴 정부가 북(조선)의 해결책에 동의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다시 협상을 시작해야 하는 것처럼 부산을 떨고 있다. 이에 대해서 북(조선)은 클린턴 정부가 조미 정치협상에서 동의한 것을 부시 정부가 그대로 인정하고 그것을 이행하기 위한 정치협상을 재개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그렇지만 부시 정부는 북(조선)의 그러한 요구에 대하여 선뜻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 바로 이것이 지금 조미 관계에 걸려있는 최대의 쟁점이다. 이 쟁점을 해소하는 타결점을 찾게 되면 곧 조미 고위급 정치협상이 열리게 되어 있다.

부시 정부가 2000년 10월의 조미 정치협상에서 동의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버티자, 2001년 5월 3일 평양에서 열렸던 조선-유럽연합 정상회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10월의 조미 공동성명에서 발표한 ≪백두산 2호≫ 발사에 대한 유예조치를 2003년까지만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2003년 유예조치는 미국에게 앞으로 2년 반의 시한부 통첩**을 준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은 조미 두 나라가 정치협상 재개문제를 놓고 벌이고 있는 갈등을 정해진 시한 안에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시간이 흐를수록 초조해지고 불리해지는 쪽은 미국**이다.

3) 북(조선)은 국가적 **조직력**으로 돌파하였다. 북(조선) 인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국가역량을 총동원하여 전략목표를 수행하는 데 집중할 수 있는 것도, 대외적으로 강대국들을 상대하여 당당하게 정치외교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도 모두 국가 내부의 결집된 힘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북(조선) 내부의 결집된 힘을 그들은 ≪**일심단결의 위력**≫이라고 부르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980년대 중반에 그 힘의 원천을 ≪수령·당·대중이 하나의 사상,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일심단결한 사회정치적 생명체≫라고 밝힌 새로운 이론을 정립하였다.

북(조선)의 국가적 조직력은 ≪고난의 행군≫이라는 시련기의 역경 속에서, 국상을 당하여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겼을 때, 미국과의 전면전을 눈앞에 두고 준전시상태가 선포되었을 때, 허리띠를 졸매매고 경제재건에 달라붙었을 때 전인민적 일체감을 보여주었으며 일사불란한 단결을 과시하였다.

3 조미 사이의 적대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을 어떻게 볼 것인가?

조미 사이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국교를 수립하는 과정은 주한미군을 철퇴하는 과정과 일치한다.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하지 않으면 조미 사이의 적대관계를 청산할 수 없으며 국교 수립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대중 대통령과 만난 2000년 6월의 평양 회담에서 주한미군 주둔을 용인했다는 말은 **주한미군 철수를 반대하는 친미예속세력이 꾸며낸 헛소문**이다.

여기서 강조해야 할 것은, 조미 사이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국교를 수립하는 과정은 사회주의혁명역량과 제국주의세력의 평화공존체제를 수립하는 과정이 아니라 **사회주의혁명역량이 반제전선에서**

승리를 쟁취해 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이다.

1999년 9월 ≪페리 보고서≫에 처음으로 등장했던 조미 사이의 ≪평화적 공존≫이라는 말은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념인데, 그 말은 현대수정주의자들이 한때 떠들었던 제국주의세력과의 ≪평화적 공존, 평화적 경쟁, 평화적 이행≫이라는 반사회주의적 구호와는 아무런 인연이 없다. 북(조선)에서는 ≪평화적 공존≫이라는 개념을 쓰지 않고 ≪**평화보장체계**≫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매우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공고한 평화체제로 전환한다는 군사적 의미에 국한해서 사용하는 개념이다. 평화보장체계의 수립은 평화적 공존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정전체제를 정상적인 평화체제로 전환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사회주의와 제국주의 사이의 평화적 공존은 북(조선)이 반제혁명노선을 포기하거나 수정하지 않는 한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성립될 수 없다.

북(조선)은 미국에 대한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국교를 수립한다는 것을 사회주의와 제국주의가 평화적으로 공존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지 않고 한(조선)반도에 대한 제국주의세력의 지배를 제거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북(조선)에게 있어서 조미 국교수립이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며 한(조선)반도에서 제국주의세력을 제거하는 목적을 실현하는 가장 위력한 정치적 수단**이다. 북(조선)이 조미 정치협상을 통하여 국교수립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사회주의혁명역량이 승리를 쟁취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는 까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미 국교수립 과정은 사회주의혁명역량을 제거하려는 제국주의세력의 적대・말살정책이 파탄되는 과정이다.

둘째, 조미 국교수립 과정은 제국주의세력이 동북아시아를 지배하기 위하여 전진배치한 주한미군이 철수되는 과정이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친미예속세력은 조미 관계가 국가 대 국가의 평화공존체제로 나아가고 있다고 강변하면서, 그러한 추세에 따라 남북 관계도 국가 대 국가의 평화공존체제로 전환하자는 국가 연합제 방안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이것은 조미 사이에서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국교를 수립하는 것과 더불어 남북 사이에서도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국교를 수립하여 통일국가가 아니라 유럽연합과 같은 국가연합을 건설하여 ≪사이 좋은 이웃≫으로 살아가자는 방안이다.

그러나 국가연합 방안은 실현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근거가 있다.

1) 조미 관계의 변화과정은 국가 대 국가의 평화공존체제를 수립하는 과정이 아니라 **사회주의혁명역량이 제국주의세력에 대한 반제전선에서 승리하는 과정**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남북 사이의 적대관계를 청산하는 과정도 국가 대 국가의 평화공존체제를 수립하는 과정이 아니라 **통일세력이 반통일세력과 맞서 싸우는 조국통일운동에서 승리하는 과정**이다.

2) 유럽지역에서는 혈통과 언어를 달리하는 여러 국가들이 통합의 주체가 되었으므로 국가연합을 건설하였으나, 한(조선)반도에서는 **단일한 혈통과 언어를 가진 민족이 통일의 주체이므로 연방국가를 건설**하게 될 것이다.

4 분단체제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민족통일기구 수립이 가지는 의의

반세기가 넘도록 분단체제를 지탱해온 힘의 균형상태가 만일 깨어지지 않는다면 분단체제는 없어지지 않고 언제까지나 지속될 것이다. 그런데 평양회담과 6.15 공동선언 채택 이후 오늘의 현실은 분단체제를 지탱해온 힘의 균형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분단체제를 유지하려는 힘과 분단체제를 제거하려는 힘 사이의 역량관계가 큰 폭으로 변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일세력과 반통일세력의 투쟁이 그 역량관계를 변동시키는 원인이다. 그 투쟁에서 어느 쪽이 승리하느냐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힘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다.

통일세력과 반통일세력의 역량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구도가 보인다. 지배・예속구도로 병합되어 있는 제국주의세력과 친미예속세력은 분단체제를 유지하는 반통일세력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에 반하여 북(조선)의 사회주의혁명역량과 남(한국)의 민족민주전선역량은 각기 분단체제를 제거하려는 통일세력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두 개의 지역으로 분산되어 있다.

분단체제를 유지하려는 반통일세력과 그 체제를 제거하려는 통일세력 사이에서 형성된 역량관계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측면을 지니고 있다.

제1측면 – **사회주의혁명역량과 제국주의세력이 대결하는 측면**
제2측면 – **사회주의혁명역량과 친미예속세력이 대결하는 측면**
제3측면 – **민족민주전선역량과 제국주의세력이 대결하는 측면**
제4측면 – **민족민주전선역량과 친미예속세력이 대결하는 측면**

이 대결구도의 네 측면에서 **주되는 두 측면**은 **사회주의혁명역량과 제국주의세력이 대결하는 제1측면, 그리고 민족민주전선역량과 친미예속세력이 대결하는 제4측면**이다.

북(조선)의 견해에 따르면, 사회주의혁명역량이 친미예속세력보다 제국주의세력에 대해 공세를 더 집중해야 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까닭은 **제국주의세력이 친미예속세력보다 더 강한 상대이므로 제국주의세력과의 투쟁에서 승리하면 친미예속세력도 쉽사리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민족민주전선역량과 친미예속세력이 대결하는 측면을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까닭은, **제국주의세력이 민족민주전선역량을 직접 상대하려 하지 않고 언제나 친미예속세력을 앞에 내세워 상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국주의세력은 자기보다 힘이 약한 친미예속세력을 동원해서 민족민주전선역량을 제압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친미예속세력을 앞에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만일 민족민주전선역량이 비상히 강화되어 친미예속세력으로서는 도저히 제압할 수 없고 되레 제압 당하게 되면, 제국주의세력은 직접 민족민주전선역량을 타파・소멸하려고 덤벼들 것이다. 그러나 민족민주전선은 아직 그러한 조건에 있지 않다.

그렇다면 한(조선)반도의 역량관계에서 볼 때, 어떠한 조건에서 분단체제가 제거되고 조국통일이 실현될 수 있을까? **사회주의혁명역량과 제국주의세력의 대결에서 사회주의혁명역량이 승리하고, 민족민주전선역량과 친미예속세력의 대결에서 민족민주전선역량이 승리한다면 분단체제가 제거되면서 조국은 통일될 것**이다. 이것은 자명한 이치다. 우리가 더 따져 묻고자 하는 물음은, 지난 10년 동안의 정세는 이 자명한 이치에 얼마나 합치되어 왔는가 하는 것이다.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지난 10년 동안의 정세동향을 역량관계의 변동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해보면, **사회주의혁명역량은 제국주의세력에 대한 투쟁에서 승리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데, 민족민주전선은 친미예속세력을 제압할 만큼 압도적인 역량을 지니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 돋보인다. 그러므로 앞으로 10년 안에 분단체제를 제거하고 조국통일을 실현하느냐 혹은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문제에서 중요한 관건은 민족민주전선역량을 어떻게 강화하느냐 하는 문제에 달려있다.

2000년 6월 평양회담에서 채택한 **6.15 공동선언은 앞으로 10년 안에 분단체제를 제거하고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방략을 제시한 역사적인 문서**다. 북(조선)의 견해에 따르면, 조국통일의 실현

방략을 제시하고 있는 6.15 공동선언이 2000년 6월에 채택될 수 있었던 것은 사회주의혁명역량과 친미예속세력의 대결에서 사회주의혁명역량이 승리국면에 들어섰기 때문이라고 한다. 사회주의혁명역량이 제국주의세력과의 대결에서 승리국면에 들어선 기세를 몰아 친미예속세력의 민족분열책동을 제압하고 6.15 공동선언을 채택하였다는 것이 북(조선)의 생각이다.

그렇다면 6.15 공동선언이 제시하고 있는 조국통일의 실현방략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것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과 남측의 연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는 방략이다. 이것은 조국통일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국가연합제의 공통성을 실체화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서로 다른 두 방안의 공통성을 실체화한다**는 말이다. 여기서 공통성을 실체화한다는 말은 **조국통일과업을 담당·추진하는 정치적 주체**를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북(조선)은 **그 정치적 주체를 ≪민족통일기구≫라고 부른다.** 북(조선)은 6.15 공동선언을 채택한지 **약 넉 달 뒤인 2000년 10월 6일에 처음으로** 민족통일기구를 수립하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북(조선)의 견해에 따르면,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국가연합제의 공통성을 실체화하는 것이 곧 민족통일기구를 수립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민족통일기구란 무엇인가? 민족통일기구는 통일국가의 지위와 권능을 아직 갖지 못한, 그러나 통일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담당·추진하는 남북 정부당국의 공동기구라고 볼 수 있다. 민족통일기구가 두 정부당국만 참여하는 공동기구인지 아니면 정부당국, 정당, 사회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명실공히 전민족적인 공동기구인지는 아직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제기된 **북(조선)의 통일론에 비추어보면 전민족적인 공동기구**라고 예상된다. 그렇지만 조국통일과업을 담당·추진하는 전민족적인 공동기구를 수립하는 것에 대하여 제국주의세력과 친미예속세력의 반대와 저항이 만만치 않은 현실조건에서 그러한 기구를 수립하더라도 처음부터 전민족적인 공동기구를 내오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정부당국의 공동기구를 수립하고 일정한 조건이 성숙된 단계에 가서 차츰** 정당, 사회단체도 참여하도록 폭을 넓혀 가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당국의 공동기구를 수립하는 과업과 정당, 사회단체가 공동기구를 수립하는 과업은 당분간 각각 분리되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2001년 6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진행된 **민족통일운동촉진기간에는 정당, 사회단체들이 조국통일 공동기구를 수립하는 과업이 성과적으로 추진**되었다.

민족통일기구가 수립되면 그 기구는 **정치권, 외교권, 군사권**을 두 정부가 종전대로 행사하게 하면서, 그 밖에 다른 권능을 하나로 통합해 가는 역할과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 민족통일기구는 정치권, 외교권, 군사권을 아직 통합하지 못한 조건에서 **두 정부가 대등하게 참여하는 과도적 공동기구이므로 국가연합제 방안에서도 존재**할 수 있다. 그 기구를 수립하는 것은 김영삼 정부가 제시했던 ≪남북연합≫을 수립하는 방안이나,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 이전에 내놓았던 3단계 통일론에 나오는 ≪공화국연합≫을 수립하는 방안, 곧 모든 형태의 국가연합방안과 모순되지 않는다.

민족통일기구가 남북 정부당국이 대등하게 참여하는 공동기구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지만, 그 지위, 역할, 권능의 문제에 관해서 남과 북의 정부당국은 좁히기 힘든 견해 차이를 보이게 될 것이다. 그 공동기구의 지위에 관련하여 **남(한국) 정부는 남과 북의 정부 밑에 두고 상호협력 하는 공동기구**로 생각할 것이고, 그에 비하여 **북(조선)은 남과 북의 정부 위에 두는 공동기구**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두 정부 산하의 공동기구냐 아니면 두 정부 상위의 공동기구냐 하는 데 따라서 그 권능은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다르게 된다. 그 공동기구의 임무와 역할에 관해서도 **남(한국) 정부는 남북 사이의 교류·협력기구**라고 생각할 것이고, 그에 비하여 **북(조선)은 조국통일기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지금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성사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 가운데 하나는 김정일**국방위원장과 김대중 대통령의 서울회담에서 **민족통일기구를 수립하기로 합의하자는 북(조선)의 비공식 제안에 대해서 남(한국) 정부가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고 있는 데** 있다.

지금 북(조선)이 남북 정부당국의 협상에서 추구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당면과업은 민족통일기구를 수립하는 과업**이다. 남(한국) 정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지만 **남북 최고 지도자의 회담이 열리기만 하면 극적으로 타결점을 찾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이미 집권 말기에 들어서고 있는 남(한국)의 현 정권은 남북 정부당국의 정치협상에서 합의한 내용을 실현하는 데서 무기력증을 노출하고 있다. 민족통일기구가 수립된다고 해도 **아마 차기 정권에 가서야 정상적으로 가동**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족통일기구를 수립하는 당면과업을 생각할 때, **차기 정권을 세우는 2002년의 선거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민족통일기구를 수립하더라도 정치권, 외교권, 군사권은 남북 정부가 종전처럼 독자적으로 행사하게 되므로 조국통일은 아직 실현된 것이 아니라 진행형이다. **정치권, 외교권, 군사권을 통합하는 문제는 한·미 동맹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문제이므로 자주적 민주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에는 해결하기 힘들다.** 민족통일기구는 자주적 민주정부가 수립되기 이전까지 제한된 범위 안에서 조국통일과업을 수행하게 될 것이며, **자주적 민주정부가 수립되면 그 정부는 정치권, 외교권, 군사권을 통합하여 마침내 연방통일정부를 수립하는 과업을 완수하게 될 것**이다.

5 민족민주전선은 앞으로 10년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민족민주전선이 자기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앞으로 10년 동안 추진할 전략목표는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과 조국통일 실현이다. 이 전략목표를 추진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몇 가지 당면과업을 생각하면 다음과 같다.

1) 민족민주전선은 **제국주의세력을 한(조선)반도에서 제거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한(조선)반도에서 민족민주전선의 반제투쟁은 **사회주의혁명역량이 승리의 기선을 잡은 반제전선에 가세·결집하는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조선)반도의 반제전선은 전민족적인 반제자주역량과 제국주의세력 사이의 투쟁이 벌어지는 전선으로 확장될 것**이며, 그로써 반제전선의 결정적 승리를 앞당기게 될 것이다.

여기서 지적해야 할 사실은, **≪가세·결집≫이라는 개념은 전술개념이 아니라 전략개념**이라는 점이다. **≪가세·결집≫이라는 전략개념은 한(조선)민족의 반제자주역량이 사회주의혁명역량과 민족민주전선역량의 통일전선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밝혀주는 개념**이다. **반제자주역량의 통일전선**이라는 말은, 강대한 제국주의세력에 맞서 싸우는 반제투쟁이 두 지역으로 나누어진 채 산발적, 분산적으로 전개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 또한 **반제투쟁은 민족민주전선이 자기의 단독역량으로 승리할 수 있는 투쟁이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 무릇 자주시대의 미래를 개척하고 있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반제전선은 한결같이 전민족적 통일전선**이며, 한(조선)민족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므로 **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해야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결정적 승리를 이룩하게 된다.**

지금 한(조선)반도에 배치되어 있는 반제전선은 **군사·정치적 대결과 대중적 정치투쟁**이라는 두 가지 전투를 전개하고 있다. **사회**

주의혁명역량은 국가역량을 총동원하여 군사·정치적 대결을 벌이는 반제전선을 담당하고 있다. 그에 비하여 **민족민주전선역량은 국가역량을 동원할 수 없는 조건에 있으므로 대중의 조직역량을 최대한으로 결집시킨 반제전선**으로 강화·발전되고 있다. 그러므로 민족민주전선의 반제투쟁은 대중적 정치투쟁의 성격을 지닌다.

국가역량을 총동원한 사회주의혁명역량과 대중의 조직역량을 최대한으로 결집시킨 민족민주전선역량이 **단일한 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할 때** 반제전선의 승리는 반전시킬 수 없는 대세로 굳어질 것이다.

2) 민족민주전선은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부동의 전략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한(조선)반도에서 반제전선을 민족통일전선으로 확대·발전시켜 승리국면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민족민주전선이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전략목표는 반제민족통일전선의 승리와 함께 실현될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민족민주전선이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지 못하면 조국통일을 실현할 수 없다.**

민족민주전선이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려면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1).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려면 **남(한국)이 미국의 제국주의적 지배·수탈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 남(한국)이 미국의 제국주의적 지배·수탈구조에서 벗어나는 지름길은 **민중생존권 투쟁에 집중되어 있는 대중투쟁의 동력을 반미자주화운동으로 승화·발전시키는 것**이다. 민족민주전선의 **반미자주화운동의 중심에는 주한미군 철퇴운동을 배치해야** 한다. **민족민주전선역량은 주한미군을 철퇴하기 위한 대중적 정치투쟁을 조직하고 영도하여야** 한다.

민족민주전선의 반미자주화운동은 **미국의 군사적 지배 뿐 아니라 미국에 대한 사상적 예속, 미국의 정치적 지배, 경제적 수탈, 문화적 침탈을 반대·배격하여 친미예속체제 전반을 완전히 청산하는 총체적인 대중투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미국은 **조미 정치협상이 진전되는 데 따라 주한미군을 철수하면서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그대로 존치시키고 군사고문단을 배치하여 군사적 지배의 고삐를 계속 틀어쥐고 있으려 할 것**이며, 주한미군이 철수된다고 해도 미국에 대한 사상적 예속, 미국의 정치적 지배, 경제적 수탈, 문화적 침탈은 철군과 함께 저절로 청산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민족민주전선의 반미자주화운동은 정치·경제적 분야에서의 투쟁, 사상·문화적 분야에서의 투쟁으로 다양하게 전개되어야 한다. **반미노동조합운동, 반미농민회운동**을 중심으로 하여 **반미청년학생운동, 반미여성운동, 반미문예운동**이 생겨나면서 반미자주화운동의 거센 기운이 남(한국) 전역에 넘쳐나야 한다.

(2).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려면 **국가보안법체제를 타파하고 친미예속세력을 제거해야** 한다.

조미 사이의 적대관계가 청산되는 추세에 따라 주한미군이 단계적으로 철수된다고 해서 남(한국)에 자주적 민주정부가 저절로 수립되는 것은 아니다. 주한미군이 단계적으로 철수되는 과정에 들어섰다고 할지라도 **만일 민족민주전선역량이 남(한국)의 정세변화를 주도하지 못하면 친미예속세력은 여전히 집권하면서 친미예속체제를 유지할 것**이다. 물론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친미예속세력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친미예속체제가 자동적으로 해체되리라고 예상하는 것은 안이한 판단이다. 친미예속세력은 주한미군이 단계적으로 철수되는 과정이 시작되면 자신을 유지·보존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친미예속세력이 계속 집권하면서 국가체제를 장악·관리하고 있는 한, 정권기관과 사회 전반에 뿌리 박혀 있는 친미예속체제는 쉽사리 제거되지 않을 것이다. **민족민주전선은 미군이 철수한 뒤에도 친미예속체제가 지속되고 있는 나라들의 쓰라린 경험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민족민주전선이 친미예속세력을 제압하는 투쟁에서 정치적 타격을 집중해야 할 지점은 **국가보안법체제**다. 그 체제는 친미예속세력이 의존하고 있는 존립근거이므로 그 근거에 정치적 타격을 가하면 그 위에 성립되어 있는 체제는 무너지게 마련이다. 국가보안법체제를 타격하는 것은 우선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는 투쟁으로 가능하다.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는 투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민족민주전선이 친미예속세력을 제거하고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투쟁에서 결정적인 의의**를 가진다. 민족민주전선이 **주한미군 철퇴투쟁을 중시하고 거기에 역량을 집중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을 부차적인 투쟁과업으로 생각하고 경시해서는 안 된다.**

반제전선에서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로, 민족민주전선이 친미예속세력에 대한 투쟁에서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보장하려면 기층 민중의 조직역량, 곧 노동대중과 농민대중의 조직역량을 중심축으로 전선을 재배치하고 전선역량을 일층 강화해야 한다. 친미예속체제에 대한 치명적인 타격은 기층 민중의 조직역량에 의해서 가해지게 된다.

(3).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려면 **민족민주전선이 주도하는 정당**을 건설해야 한다.

민족민주전선은 정치조직의 최고 형태인 정당을 건설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할 수 없다. 정당 건설의 당위성과 필연성을 논의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그 방법론을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때가 되었다. 민족민주전선이 주도하는 정당을 건설한다고 했을 때, **≪주도≫라는 개념에 유의하여야 한다. 민족민주전선역량이 그대로 정당으로 대체·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역량이 주도하면서 다른 역량들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통일전선적 성격의 당을 건설해야** 한다. 여기서 지적할 것은 세 가지다.

ㄱ. 민족민주전선은 노동대중과 농민대중의 조직역량을 중심으로 하여 청년, 학생, 여성, 지식인의 조직역량이 총결집된 위력적인 정치세력으로 강화·장성되어야 한다. **특히 노동대중의 조직역량이 전선역량의 중심에 확고하게 결합되어야** 한다. 민족민주전선이 기층 민중의 조직역량에 의해서 강화·장성되어야 통일전선적 성격의 당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영도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당 건설 이후에도 당의 모든 사업을 민족민주전선의 요구에 맞게 영도할 수 있다.

ㄴ. 민족민주전선이 **자기의 정당 건설에 함께 해야 할 동반세력은 개혁세력**이다. 지금 남(한국)의 현실을 보면, 친미예속세력과 개혁세력이 뒤섞여 있는 상황인데, 친미예속세력이 개혁을 표방하고 있는가 하면 개혁세력이 친미예속의 늪지에서 허덕이고 있다. **집권상층부의 개혁세력은 고정불변의 친미예속성을 지니고 있어 개조대상이 될 수 없다.** 조미 정치협상의 진전에 따라 주한미군이 단계적으로 철수되고 기층 민중의 조직역량으로 강화·장성된 민족민주전선의 반미자주화운동이 상승되면, 집권상층부의 개혁세력은 그들의 친미예속성과 반민중성 때문에 민족민주전선의 정치적 타격을 받고 몰락하게 될 것이다.

그에 비하여 **소자산계급을 기반으로 하는 중간층 개혁세력은 지금은 비록 친미예속성에 기울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정세발전의 요구에 따라 개조대상이 될 수 있다.** 중간층 개혁세력은 소자산계급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기층 민중의 계급적 요구에 부응할 능력이 없으며, 남(한국) 사회가 양극화되는 데 따라 **차츰 분해**되고 있는 소자산계급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중간층 개혁세력들 가운데서 끝내 친미예속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세력은 반미자주화운동의 타격을 받고 몰락하게 될 것이며, 반미자주화운동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개조된 개혁세력들만이 살아남게 될 것이다. 민족민주전선은 **개혁세력에게서 친미예속성을 벗겨내고 개조하여 정당건설의 동반세력으로 포용해야** 한다.

ㄷ. **통일전선적 성격의 진보적 대중정당은 민족민주전선과 개조된 개혁세력이 결집하되 민족민주전선이 주도하게 될 정당**이며, **앞으로 정세발전에 따라 차츰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예비하는 정당**으로 발전될 것이다.

(2001년 9월 18일 작성)



다른 길은 못간다

희한하다고 말하기엔 새겨주는 의미 너무도 깊다
멋장이라고 경탄하기엔 받아안는 뜻 너무도 높다
통일에 대한 열망 얼마나 뜨거웠으면
여기에 이런 탑을 다 세웠을까

돌탑의 무게 7천톤, 탑의 너비 61.5미터
콘크리트보다 더 굳센 통일의지가
용접불꽃보다 더 뜨거운 혈육의 정이
층층히 쌓여 탑신을 이루었다
오-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이여!

우러르면 들려온다
탑으로 솟은 두 여인의 외침
통일의 길 여기에 있다 ≪자주≫
통일의 힘 여기에 있다 ≪대단결≫
통일조국의 모습 여기에 있다 ≪연방제≫

이 길을 비쳐서 누가 애국을 말할건가
탑아래 시원하게 뻗어간 대통로
개성 판문점지나 곧추 서울로 이어졌거니
보라! 여기서 통일은 가장 가깝다

가자! 겨레여 동포여 손잡고 발맞추어
주석님 일평생 어려있는 통일경륜 안고
장군님 신념 불타는 통일이정표따라
오- 이 탑아래 서 본 사람은 다른 길 못간다

주체 90, 10월 14일

서울에 사는 한 출판사의 언론인 김모씨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칭송했습니다.

한민전 대변인은 13일 담화를 내고 제4차 이산가족방문단과 태권도시범단교환이 계획대로 이루어질수 없게 된 모든 책임은 남북관계를 긴장격화에로 몰아가고 있는 현 당국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단병호위원장의 재구속과 관련해 10일 19시에 시, 도의 민주당 당사 앞에서 동시다발집회를 갖고 대정부투쟁을 결의했습니다.

참여연대와 여성연합, 환경연합, 민주노총 등 전국 765개 노동시민단체들은 10일 서울 명동성당 가톨릭회관에서 미국의 보복전쟁중단을 촉구하는 반전평화시국대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20여개의 사회시민단체들은 12일 서울 흥사단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의 군국주의부활을 우려하고 역사교과서왜곡과 총리의 신사참배에 반대하는 범국민대회를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모임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이즈미가 방한에 앞서 교과서왜곡과 야스쿠니신사참배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한다고 촉구했습니다.

40여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전쟁반대여성평화행동 회원 100여명이 12일 낮 서울 탑골공원에서 미국의 보복전쟁중지를 촉구해 시위를 벌였습니다.

국제자유노련 빌 조던 총서기가 국제노동기구에 서한을 보내 민주노총 단병호위원장을 재구속한 것은 신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개입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노동기구는 15일 단병호위원장 재구속과 관련된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2명의 조사단을 한국에 파견해 단위원장과 면회를 할 예정이라고 민주노총이 전했습니다.

인권실천시민연대 등 5개 인권사회단체들이 10월 한 달동안 경찰개혁캠페인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 단체들은 정부 공안인력감축 등 제도적인 개선과 정부의 공약이행을 촉구하는 ≪1천인선언≫을 오는 19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올해 울산지역의 노사분규와 관련해 61명이 구속되고 500여명이 불구속입건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같은 숫자는 지난해 전국의 노사분규관련 구속자보다 많은 것입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추대되신 4돌과 조선로동당창건 56돌에 즈음해 체코공산당 서기장이 그분께 축전을 드렸습니다.

쿠바 국가이사회 피델 카스트로위원장이 6일 아바나에서 진행된 군중집회에서 연설하면서 반쿠바테러행위를 중지할 것을 미국에 촉구했습니다.

주체 90, 10월 15일

일본총리 고이즈미의 방한을 반대하는 시위가 14일 전국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민주노동당은 14일 서울 동대문 전농초등학교앞에서 일본총리규탄일장기화형식을 갖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이와 함께 경기도 수원과 부산, 광주 등 전국에서 일제히 일장기화형식을 가졌습니다.

한국 삽살개보존회가 고이즈미일본총리에게 일제시대 일본정부의 한국토종견말살정책에 대해 공식사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삽살개보존회에 따르면 조선총독부는 1938년부터 7년간 해마다 10여만마리의 개가죽을 한국에서 공출해가 한국의 토종견들이 멸종될 위기에 처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노총은 13일 서울과 울산 등 전국 13개 시, 도에서 동시다발집회를 열고 지난달 재구속된 단병호위원장의 석방 등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보건복지민중연대, 장애인이동권연대 등 2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11일 오전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효율적인 복지대책마련을 정부측에 촉구하기 위해 오는 26일부터 사흘간 중앙대에서 열리는 민중의 복지, 노동권, 생활권쟁취를 위한 연대한마당조직위원회를 발족시켰습니다.

통일운동단체의 한 인사가 대북협력사업을 악랄하게 비방중상하며 남북대결을 고취하고 있는 조선일보사집단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한나라당 개혁파의원들은 12일 최근 대정부질문과정에 한나라당의 일부 보수성향의원들이 색깔론공세를 취한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한나라당 김**, 김원웅, 김영춘, 서상섭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이회창총재와 면담하고 보수파의원들의 색깔론공세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하고 당지도부의 입장천명과 적절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한나라당 개혁파의원들의 이같은 입장은 당내 많은 인사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고교생이 평소 자신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동료학생을 수업중에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을 영생의 모습으로 높이 모신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14일 쿠바 외무성대표단, 네팔왕국 외무성대표단 등 외국인들이 주석님께 경의를 표시했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주체 90, 10월 16일

고이즈미일본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각계에서 그의 방한을 강력히 반대하는 등 반일기운이 급격히 고조됐습니다. 이에 대해 윤정원씨 종합해 드리겠습니다.
윤정원 : 이미 보도됐습니다만 각계에서는 고이즈미일본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반일기운이 전례없이 고조됐습니다. 특히 고이즈미가 한국에 도착한 날인 15일 서울시내 곳곳에서는 그의 방한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집회와 시위가 잇따랐습니다.
민주노총과 범민련남측본부 등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소속 50여명은 15일 서울 서대문 독립공원주변에서 ≪식민지지배를 사죄하라≫는 등의 현수막을 내걸고 고이즈미의 허수아비를 불태우는 등 일본총리의 방한을 반대하는 강력한 투쟁을 벌였습니다.
이날 한총련소속 학생들도 독립문앞 고가도로위에서 군국주의, 역사왜곡, 고이즈미방한반대라는 대형현수막을 내걸고 고이즈미의 방한을 규탄하는 유인물 수백장을 뿌리며 반일시위를 전개했습니다.

또 이날 서울시 재향군인회는 고이즈미가 방문한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앞에서 일장기를 태우고 반일구호를 외치며 일본의 역사왜곡과 꽁치조업금지를 규탄하는 시위를 1시간여동안 벌였습니다. 이들은 일본정부가 과거에 대한 반성이 없이 역사교과서를 왜곡하고 군국주의를 부활시키려한다며 역사교과서를 조속히 수정하고 꽁치조업금지 조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국회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고이즈미 일본총리의 방한과 관련해 역사교과서왜곡과 야스쿠니신사참배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등을 촉구하는 4개항의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통일외교통상위소속 의원들도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일본정부가 역사왜곡의 정당성을 강변하고 있는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하며 이번 방한을 계기로 일본정부의 진실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한 성의있는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이외에도 15일 서울 시내 곳곳에서는 일본총리의 방한을 반대하고 일본을 규탄하는 집회와 시위 등이 잇따라 고이즈미를 당황케 했습니다. 이로인해 고이즈미는 당초 예정되었던 국회방문을 취소하는 등 그의 방한일정은 큰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은 범죄적인 과거에 대한 진실한 사과와 성근한 보상을 할 대신 오히려 침략역사를 공공연히 왜곡하고 총리가 직접 나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등 우리 민중과 아시아민중을 우롱, 모독하는 행위를 거리낌없이 자행했습니다. 이로인해 일본은 국제적인 비난과 고립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이번 고이즈미의 방한을 계기로 분출된 우리 민중의 격렬한 반일기운도 이에 대한 응분의 표시라 할 것입니다. 일본은 우리 민중을 비롯한 아시아민중들의 이같은 반일기운을 직시하고 과거 침략역사에 대한 진실한 사과와 그에 대한 응분의 보상을 하는 길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각계에서 반통일집단인 이회창 한나라당 패거리를 비난하는 목소리를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재야인사 최모씨는 이번에 북이 취한 이산가족상호방문유보조치에 대한 이회창 한나라당집단의 언동은 그들의 본심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똑똑히 알게 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에게나 명백한 것처럼 전군과 경찰에 비상경계태세가 내려진 오늘과 같은 삼엄한** 분위기속에서 이산가족교환방문이 이루어질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다. 한마디로 북이 이번에 취한 조치는 있을 수 있는 재난을 미리 막기 위한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북이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 책임은 전적으로 남북관계를 긴장격화에로 몰아가고 있는 남측에 있다. 그런데 이회창 한나라당패거리들은 이에는 아랑곳없이 북의 정당한 조치에 대해 시비중상하면서 북을 자극하고 긴장을 격화시키는데 혈안이 되고 있다. 이는 한나라당집단이 이산가족교환방문이 중단되기를 학수고대해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원래 한나라당집단은 남북관계가 잘되길 바란적이 없다. 비전향장기수들의 북송길을 막아나선 것도 그들이고 남북협력사업을 퍼주기니 뭐니하며 표표히 제동을 걸고 있는 것도 그들이다. 이런 한나라당패거리들때문에 남북관계가 원만히 풀리지 않고 있다. 이산가족교환방문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남북관계가 제대로 되자면 이회창 한나라당집단을 제거해버려야 한다.≫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동상을 찾아 15일 이북을 방문한 월남 정부 경제대표단이 경모의 정을 표시했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이북을 방문한 쿠바외무성 호쎄 아르만도 게라 멘체로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쿠바외무성대표단이 14일 만경대를 방문했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체코 공산당에서 선물을 드렸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네팔왕국 외무성서기가 선물을 드렸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추대되신 4돌과 당창건 56돌에 즈음해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초상사진에 꽃바구니를 드리는 행사가 지난 9일 쿠바 **김일성**경제전문학교에서 진행됐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추대되신 4돌과 당창건56돌에 즈음해 지난 5일 적도 기니 민주당대표단이 자국주재 이북대사관을 축하방문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불후의 고전적 저작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이다≫의 상세한 요지를 에티오피아 신문 ≪메브리크≫ 4일자가 옹근 한 면에 보도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추대되신 4돌과 당창건 56돌, 타도제국주의동맹결성 75돌에 즈음해 1일 페루 조선친선문화협회에서 ≪조선로동당의 영도자 **김정일**≫, ≪**웅대한 강령아래** 75년≫이라는 제목으로 뷸레찐을 발행했습니다.

파키스탄인의 절반정도가 지난 9월 11일 미국에 대한 테러가 이스라엘이 저질렀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지가 보도했습니다.

주체 90, 10월 17일

민주노총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등 80여개 사회단체들은 16일 명동성당에서 단병호위원장석방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범국민서명운동과 집회, 국제기구와의 연대활동을 통해 단위원장석방운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서울대학교에 아직도 일제잔재가 남아있다고 이 대학의 현직교수가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반통일분자인 이회창이 16일 그 누구와의 담화협상이라는데서 북이 개방하고 변화하도록 협력해야한다느니 뭐니하는 등 또다시 북을 자극하고 나서 국민적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각계에서 민족반역지인 조선일보가 남북협력사업을 악랄하게 시비중상하며 북을 심히 자극하는 것과 관련해 이를 비난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이 감청대상을 지나치게 넓게 정하고 있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지검 특수1부는 15일 증여세 등 63억원을 포탈하고 40억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조선일보 방상훈사장에 대해 징역 7년에 벌금 130억원을 구형했습니다. 또 조선일보 방계성전무에 대해 벌금 25억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2002년 태양절기념 및 2.16경축 우즈베끼스딴고통련준비위원회가 지난 6일 타슈

켄트에서 결성됐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사회주의조국을 방문한 조총련 조선대학교학생조국방문단 성원들이 16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신념과 의지의 강자들인 비전향장기수들과 상봉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이북을 방문한 쿠바외무성 호쎄 아르만도 게라 멘체로부상은 16일 귀국에 앞서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 회견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이북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김영남위원장과 홍성남 내각총리와 함께 중화인민공화국창건 53돌에 즈음해 중국지도자들에게 축전을 보내신데 대해 그로부터 답전을 보내왔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불후의 고전적 저작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이다≫에 대한 연구토론회가 2일 페루 **김일성**주의연구소조에서 진행됐습니다.

한편 기니 국방성 군의국에서는 2일 **김정일**영도자님의 이 저작에 대한 해설모임이 있었습니다.

3일 기니 꼬바농장에서도 **김정일**영도자님의 이 저작에 대한 독보회가 진행됐습니다.

주체 90, 10월 18일

지난 13일 주말등산에 나섰던 서울의 **대교수 김모씨가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만경대가문을 열렬히 칭송했습니다.

조선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국제연락위원회 기 듀프르서기장이 17일 ≪한민전≫ **평양대표부를 방문했습니다**.

15일에 방한한 고이즈미일본총리가 한국민의 고통에 **을 표한다는 사과발언을 한데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실질적 과거청산이 없이 또다시 말장난으로 한국민을 농락했다며 일제히 비난했습니다.

민주노총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참여연대 등 3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은 16일 서울 명동성당에서 민주노총단병호위원장석방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한나라당 박종웅의원이 이회창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김영삼의 대변인격인 한나라당 박종웅의원은 17일 이회창총재가 한 기관지와의 인터뷰에서 와이에스-제이피신당은 현정권을 돕는 셈이라고 한 것과 관련해서 성명을 내고 이는 경솔하고 무책임한 발언으로 유감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의원은 또 김영삼은 신당을 창당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며 이회창이야말로 지난 대선때 오만과 독선으로 여권을 분열시키고 김영삼을 배신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권철현대변인은 이회창이 다만 기자의 질문에 답변했을 뿐이라며 당소속의원으로써 이총재를 비난한 박의원은 사과해야한다고 요구해 한나라당내 김영삼파와 이회창파간의 싸움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항간에서는 망해가는 집안에 싸움이 잦기 마련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16일 전 부산대학교 자연대학학생회장 전모씨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검거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시 미대통령은 대테러전쟁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대한 안보공약은 확고하다느니 통일이후에도 한반도주변 미군의 규모를 감축할수 없다느니 뭐니하고 역설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하지 않을뿐 아니라 통일이후에도 미군을 계속 주둔시키겠다는 침략적인 속셈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보여준 망언이라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조선로동당창건 56돌에 즈음해 재미동포전국연합회의 주최로 지난 8일 미국 뉴욕에서 경축집회가 있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타도제국주의동맹결성 75돌기념 청년학생들의 야회가 17일 평양과 지방의 여러 곳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북을 방문한 월남 상업성 마이 반 저우 상임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월남정부 경제대표단이 16일 만경대를 방문했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추대되신 4돌과 조선로동당창건 56돌에 즈음해 이북주재 리비아사회주의인민사무소 서기가 17일 저녁 대사관에서 연회를 마련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조선로동당창건 56돌에 즈음해 루마니아 사회주의노동당위원장, 인도공산당(마르크스주의) 서기장이 각각 축전을 드렸습니다.

2002년 태양절기념 및 2.16경축 꼬스따리까준비위원회 결성식이 지난 8일 싼 호쎄에서 진행됐습니다.

민족교육권의 차별해소와 일조국교정상화의 조기실현이라는 주제의 제3차 일조교육토론회가 지난 13일 도쿄에서 진행됐습니다.

일조농업교류일본협회 결성식이 지난 13일 도쿄에서 진행됐습니다.

주체 90, 10월 19일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피바다**≫**가극단창립**30돌에 즈음해 18일 만수대예술극장에서 혁명가극 ≪피바다≫공연을 관람하셨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민족사랑여성회 회원 이모씨가 **김정일**장군님의 인덕정치를 높이 칭송했습니다.

각계에서 반통일분자인 이회창을 제거해야한다는 목소리를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재야인사 최모씨는 이회창이 반북책동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대해 분격을 금할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회창은 입만 벌리면 북을 모해하지 못해 안달이다. 이회창이 이번에 또다시 개방이니 변화니하면서 북을 심히 자극하고 나선 것도 일고의 가치도 없는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북으로 말하면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써 세계정치를 주도하는 존엄높은 나라이다. 지금 지구촌에 북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한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은 물론 한다하는 대국들의 수반들과 고위인사들이 저저마다 북을 찾아 세계정치를 논하고 있는 사실이 그걸 잘 말해준다. 이건 대국들이 자기의 영상을 높여보려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북이 세계정치의 제1번지로 되고 있다는 것을 실증해준다. 그런데도 이회창이 북을 개방변화시켜 국제사회의 진정한 일원으로 되게 해야한다느니 뭐니하고 떠든 것은 그야말로 허황한 궤변이라고 하지 않을수 없는 것이다. 죄지은 놈이 어쩐다고 이회창의 이같은 망발은 높아가는 이북의 위상에 질

겁한 죄많은 자의 비명에 지나지 않는다. 이 회창은 감히 민족의 이상향인 이북에 대고 삿대질하며 분수없이 놀것이 아니라 민족의 더 큰 규탄을 받기 전에 스스로 정계에서 물러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서울지방검찰청은 언론사 탈세고발사건과 관련해 주요언론사들이 법원경매광고 수주과정에서 법원직원들에게 할인을 제공한 사실을 밝혀내고 법원관계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소환조사해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업의 정리해고가 해고자의 가정생활은 물론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등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이론잡지 ≪구시≫**사에서 선물을 보내왔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이북을 방문한 월남 정부경제대표단이 선물을 드렸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을 영생의 모습으로 높이 모신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18일 상업성 상임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월남 정부경제대표단이 경애하는 주석님께 경의를 표시했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조선로동당창건 56돌에 즈음해 수단대통령, 팔레스타인대통령, 체히-모라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브라질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축전을 보내왔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추대되신 4돌과 당창건 56돌에 즈음해 3일부터 5일까지의 기간에 멕시코인민사회당, 불가리아공산당과 불가리아공산당(마르크스주의자), 따쥐끼스딴공산당, 우간다전국운동 캄팔라시위원회, 오스트리아공산당 레오벤시위원회에서 경축집회가 진행됐습니다.

조선로동당창건 56돌에 즈음해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불후의 고전적 저작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이다≫의 요지를 기니신문 ≪코로야≫ 5일자가 게재했습니다.

조선로동당창건 56돌에 즈음해 여러 나라 신문이 특집했습니다.

여러 나라 인사들이 조선로동당은 노동자계급의 당건설역사에서 처음으로 사상과 영도의 유일성을 실현한 노동자계급의 정당이라고 찬양했습니다.

주체 90, 10월 20일

서울시에서 활약하는 시민운동가 정승호씨가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선군정치를 평화수호의 보루로 높이 찬양했습니다.

교원간의 위화감조성 등의 이유로 교원성과급지급을 반대해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성과급반납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부산지역 환경단체들이 낙동강생태복원을 위해 낙동강대장정에 나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23부는 18일 지난 8월 평양에서 진행된 통일대축전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방북했던 범민련남측본부 서울 부의장 문재룡씨에 대해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문씨의 건강상태가 매우 악화돼 수감생활을 하기 어렵다며 다음달 18일까지 구속집행이 정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문씨는 한달후 다시 구속되게 됩니다.

한편 문씨를 포함한 평양축전에 참가했던 범민련간부 6명에 대한 첫 공판이 18일 오후 서울지방법원에서 강행됐습니다.

공안당국은 이들 범민련남측본부 관계자들이 평양에서 북측 범민련관계자들과 방문목적에 없는 회의를 개최했다느니 뭐니하며 이들이 귀환하는 즉시 파쇼적인 국가보안법위반혐의를 씌워 구속하는 폭거를 감행했던 것입니다.

통일을 위해 헌신해온 이들을 구속기소하고 재판을 벌이고 있는 공안당국의 범죄적 행위는 각계의 규탄을 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한국신당 김용환대표와 무소속의 강창희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에 입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각계에서는 이들을 아무런 정치적 소신이 없이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당적을 바꾸는 정치철새라고 비난하는 한편 음흉한 목적실현을 위해 세력확장에 집착하면서 다른 당과 무소속의원들에 대한 매수활동을 벌이고 있는 한나라당의 너절한 작태에 분격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육군항공작전사령부가 주관하는 이른바 육군항공공중사격대회가 18일부터 **사격장에서 개막돼 다음달 3일까지 강행됩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조선사회과학자협회 대변인은 일본당국이 지난 5일 주체사상연구조직과 관련된 대상들을 강제수색하고 100여점의 자료들을 압수해가는 폭거를 감행한 것을 규탄해 19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진보적인 사상과 인사들에 대한 일본당국의 무분별한 탄압책동은 세계의 평화와 자주화를 위한 민중들의 정당한 위업에 대한 난폭한 도전이며 주체사상연구활동의 발전을 가로막아 보려는 역사의 반동들의 시대착오적인 망동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성명은 더욱이 간과할수 없는 것은 일본당국이 국제**김일성**상이사회가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사무국장에게 수여한 국제**김일성**상 상장과 금메달까지 압수해 간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명은 일본당국이 시대의 요구를 외면하는 경거망동을 즉각 중지하고 그로부터 초래된 악결과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이북을 방문한 월남정부 경제대표단 단장인 월남 상업성 마이 반 저우상임부상은 귀국에 앞서 18일 평양에서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 회견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조선로동당창건 56돌에 즈음해 따쥐끼스딴공산당위원장이 축전을 드렸습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불후의 고전적 저작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와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불후의 고전적 저작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이다≫의 요지를 지난 9일 기니 라디오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추대되신 4돌과 조선로동당창건 56돌에 즈음해 그분의 고전적 저작 ≪조선로동당은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이다≫**에서 셋째부분 ≪당의 영도는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한 결정적 담보이다≫의 요지를** **신문 ≪***≫ 8일자가 게재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조선로동당총비서로 추대되신 4돌과 당창건 56돌, ≪ㅌ.ㄷ≫**결성** 75돌에 즈음해 러시아연방 공산당 모스크바시위원회주최로 지난 16일 경축집회가 진행됐습니다.